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우리이웃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5일
3월1일, 15일, 29일 5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 yahotour21@hanmail.net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월 26일(음력12월 17일) 수요일 (주간) 제510호

경주 남산 바로 앞에 4차선 도로가 웬 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내남-외동 14.8㎞ 설계중, 내년에 착공
지역민·전문가 유적·경관 훼손 우려 "남산 살리자" 반대

경주남산지구 근접 지역에 국도 7호선과 35호선을 연결하는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4차선으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남산 경관 및 유적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영식)이 시행하는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경주시 현곡면과 외동읍 구간 30.2km 연장으로, 문제되는 지역은 내남면 노곡리와 외동읍 구어리를 잇는 14.8km 구간.

계획안에 따르면 이 구간의 도로는 고위산과 마석산 아래쪽을 지나게 된다. 고위산은 금오산과 더불어 경주남산지구의 중심을 이루는 산이고, 마석산은 경주남산지구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금오산·고위산과 같은 줄기로 남산지구와 동시대의 불교유물이 다수 분포돼 사실상 남산의 일부로 간주되는 곳이다.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는 이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도로 밑에 두게 돼 높게는 지대보다 7~8m 높아지는데다, 도로 위쪽으로 방음벽까지 설치되면 현재 계획안대로 도로가 뚫렸을 때 해발 500m에 미치지 못하는 야트막한 남산 경관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통행량이 증가하면 소음문제까지 발생, 남산의 가치는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도로가 통과하게 되는 내남면 명계리에 남아 있는 북명사지는 직접적인 유물 훼손의 위험성까지 우려된다. 북명사지는 지난 1991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현지조사를 통해 석탑옥개석 2점과 탑신석 3점 등 다수의 석재가 발견된 곳으로 지금도 현지에 가면 옥개석 부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옥개석은 도로 건설 예정지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계획안에 따른 노선도에 따르면 도로는 경주 남산 지구의 중심을 이루는 고위산 아래쪽을 지나게 된다.

유적 보존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003년 도로예정지에 대해 이뤄진 문화재지표조사에서 유적분포가능성이 제기돼 문화재청이 시굴지시를 내린 상태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6년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지역들을 시굴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측은 "개인 땅을 시굴하려면 개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용지 보상을 해야 하므로 설계 전 시굴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내남-외동 구간 국도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봉명암 주지 법일 스님은 "내남-외동 국도가 건설되면 경주남산은 죽는다"며 노선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경주남산연구소 김구석 소장은 "내남-외동 국도 구간 일부를 직선으로 하면 남산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산 아래쪽으로 붙여서 곡선형으로 계획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강우방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남산일원은 신라시대 많은 유적이 산재 돼 있는 곳으로 개발시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며 "세계유산 여부를 떠나 남산 인근 지역을 소중히 보존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노선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진행중이며, 오는 8~9월경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중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현대불교 제10회 신행수기 시상식
- 때: 2005년 1월 29일 오후 2시
- 장소: 동산불교대학 강당(조계사 인근)

스리랑카에 복지타운 건립

조계종, 콜롬보 인근에 고아원 등

조계종이 최근 잇따른 홍수와 지진해일로 고통 받고 있는 스리랑카에 고아원과 유치원 시설을 갖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한다.

최근 불교의료구호봉사단과 함께 스리랑카에서 구호활동을 마치고 온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은 "스리랑카 정부가 콜롬보 인근 지역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현재 난다 스님 등이 스리랑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총무원장 법장 스님 명의의 협조요청 공문을 스리랑카 정부에 발송하는 등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조계종은 복지시설 실무 작업을 스리랑카의 현지 불교종단과 함께 추진해 명실상부한 불교복지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또 복지타운 건립과 운영은 조계종에서 직접하며, 현지인 절반과 조계종 관계자 절반을 이사진으로 하는 법인도 설립할 예정이다.

지원 스님은 "조계종 마을 건립으로 스리랑카 정부가 종단에 상당히 우호적"이라며 "복지타운 건설을 통해 자비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종단협, 4월에 '나라안정 민족화합 대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 이하 종단협)는 1월 19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2549년도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4월경 '(가칭)나라안정과 민족화합기원 대법회'를 봉행키로 결의했다.

종단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신임 부회장에 조계종 종회의장 법등, 천태종 총무부장 문덕 스님을 선출하고, 회장종단의 이사를 3인에서 4인, 상임이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또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 8차 3국불교우호교류대회 장소는 3월 15~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예비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남아시아돕기 성금 2억3천만원

本社 '나눔의 손잡기' 접수 1차분, 조계종에 전달

본사가 '나눔의 손잡기'를 통해 접수한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돕기 성금 1차분을 1월 19일 조계종에 전달했다.

본사 김광삼 사장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본사 '나눔의 손잡기를 통해 접수된 성금 3080만원과 한마음선원 본원 및 전국지원, 해외지원에서 모은 2억원을 포함해 총 2억308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법장 스님은 본사와 한마음선원에 사의를 표하고 "성금을 이재민들에게 골고루 전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쉽지 않다"며 "스리랑카에 유치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6면 남동우 기자

"다 그렇게 가는 것" 초삼 스님 입적



평생을 대중 앞에 드러나지 않고 수행해온 초삼 스님(사진)이 1월16일 각화사 남암에서 세수 82세 법랍 42년으로 입적했다.

입적하기 얼마전 도반스님에게 "다 그렇게 가는 것이다"는 열반송과 같은 말을 남긴 스님의 다비식은 1월 18일 하동군 낙양면 건봉암 토굴에서 엄수됐다. 스님의 수행모습처럼 꽃한 송이 없이 간소하게 차려진 다비식에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 회주·주지 스님과 제방 선원장스님 등 스님 2백여명과 재가불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초삼 스님은 1963년 효봉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74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89년부터 각화사 남암에 주석해왔다. 천미희 기자

'아이 벗'에 불교정보가 뜬다

1월 31일부터 뉴스·법문 등 실시간 서비스

현대불교신문이 아이벗 불교정보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이벗 전용 단말기(HP rw 6100)을 통해 1월 31일부터 아이벗 불교정보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뉴스 불교계의 다양한 기사가 종합, 신행, 문화, 생활, 영상 뉴스로 나누어 실시간 제공됩니다.

법문 큰스님의 법문을 문자, 영상 등으로 서비스합니다.

교양대학 영상과 문자를 통해 집에서도 전국의 유명 강사와 스님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법당 불자로서 가져야 할 예절과 기초 교리를 쉽게 배울 수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경전 말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찬불가, 주말정보, 불교계 일정 등이 상세히 제공되며 향후 벨소리, 게임 등 다양한 재미거리를 제공합니다.

E-Book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불서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아이벗 단말기의 필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며 향후 사이버기자, 문화지킴이 등 자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불교문화샵 온라인 불교 쇼핑몰인 마하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불교문화상품들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벗 불교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ibud.buddhapia.com)도 1월 31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할'



그림·조태호

대일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봉 인류평화기원 및 유주무주 애혼 영가 극락왕생을 위한 행
대윤산 묘림사 노천 지장대불 조성기념 만등불사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지극 정성으로 귀의합니다.
묘림사와 과거 현재의 인연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불자님들께 소승 두손 모아 감사드리오며 불자님 가정에 일체 액난이 소멸하시어 뜻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 이루시길 한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지장대불을 조성 봉안하고자 함께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제 지장 대불조성 회향을 아래 와 같이 알리게 되어 소승 너무나 큰 감사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크나큰 기쁨을 부처님 전에 회향 올리며,

인류평화기원과 유주무주 애혼 영가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8m 높이(28자)의 지장대불 봉불점안식과 대법회를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 봄날에 갖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장소멸하시고 선근인년 복덕을 지어 세세생생토록 복락을 누리시길 합장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운산 자락에서 관진 합장
불기 2549년 1월 좋은날

지장대불 점안법회 안내
증명법사 우룡 큰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 일시 : 불기 2549년 3월 6일 일요일 (음, 을유년 1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 대운사 묘림사 노천 지장대불전



만등불사 점등식 및 전야재 안내
- 일시 : 불기 2549년 3월 5일 토요일 (양력) 오후 7시
- 장소 : 노천 지장대불전 • 동참금 : 1인 1등 1만원
- 온라인번호 : (예금주 묘림사)
조흥은행 922-03-003246 부산은행 032-01-045509-9
농협 815040-51-035170

※ 차량운행안내 ▷ 범어사 전철역 시립공원묘지 입구에서 매일(오전 9시 30분) 차량운행대기
▷ 양산서창 파출소 앞 수시운행

가족과 함께 공부하며 기도하는 도량 대운산 묘림사 주지 관진 합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면 내광리 778번지 전화 052)237-4366. 238-6264 (팩스겸용)

포교원 · 교육원 10년 집중진단 <하> – 승가교육 체계잡기 어디까지 왔나

운영은 '사립' 통제는 '공립'…조화 필요

제도화 치중 '내적충실' 못채웠다 비판
"행정지원 등 관리 엄격해야"인식 여전

조계종 교육원이 1995년 1월 13일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교육이념으로 개원한지 올해로 10년이 지났다. 81년 단일계단이 성립되고, 91년 통합 행자교육원이 개원한 이래 교육원은 지난 10년 동안의 기초부터 전문과정까지 단계별 승가교육 체계를 제도화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과 못지않게 종단의 기초교육과 기본(강원)교육 부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제방강원에는 1100여명의 사미(니)들이 수학하고 있다. 실질적인 승가교육의 중심축이다. 스님이 되기 위한 기본을 배우는 실질적인 '의무교육' 과정이다. 하지만 모두가 인식하는 강원교육의 중요성만큼 교육원의 행정적 지원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원이 본말사 주지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대다수 스님(90.6%)들이 앞으로 출가자들의 '양보다는 질' 적인 면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현 승가교육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는 실제 '학부형' 역할을 하는 본말사 주지스님들 조차 현 교육제도에 불만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강원교육이 오늘날 승가사회의 변화에 걸맞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종단의 교육당국인 교육원과 일선 강원현장의 엇박자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강원교육의 부실문제와 관련, 교육원은 좀더 강력한 통제를 통해 강원 교육의 통일성과 체계를 잡아야 하지만 그동안 예산과 인력 등 현실적 한계가 많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교육원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교과과정 개발, 교수방법개선, 충분한 교육시간 확보 등 학인들의 학습여건을 향상시키면서 기본 학사일정 통일, 학인 이동질서, 의제 준수 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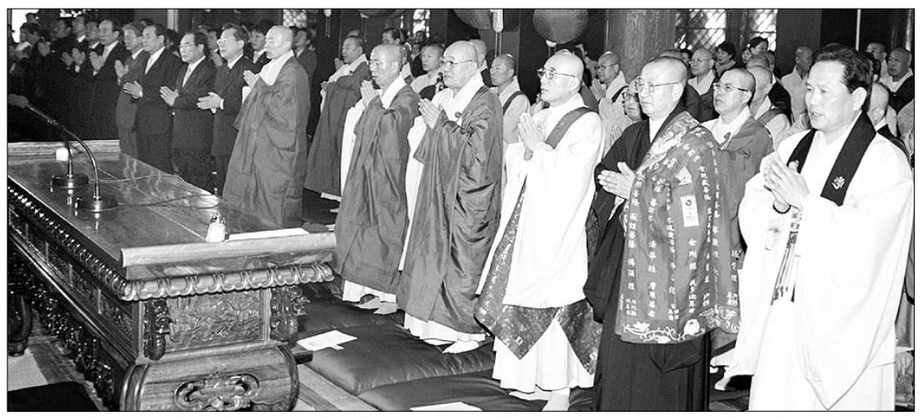
그러나 오히려 강원의 입장은 반대다. 교육원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오히려 강원 스스로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통도사 강주 우진 스님은 "강원의 설립과 운영, 강사임면, 학인선발까지 모두 사중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립대학'의 개념이 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3년 사미강원 한 곳을 운영하는데 약 2억 5000만 원 가량이나 들지만, 현재 19곳이나 되는 강원이 교육원으로부터 받는 지원은 1인당 20만원 남짓인 강사 보조비가 고작이다. 때문에 교육원이 지원은 별로 없고 '간섭과 통제'만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다.

한때 교육원에서 소임을 맡았던 한 스님은 "교육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생산해내는 주체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강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 발굴, 교수법 개발, 교과과정 연구 등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기존에 해오던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행정중심의 조직이라는 한계에 그대로 갇혀 버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교수 법산 스님도 "승가사회 내부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존의 교육 체계만을 고집해온 일부 강원교직자들의 자성과 함께, 강원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지 못한 교육원이 이제부터라도 강원교육 현장의 고민과 필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조계종이 추진중인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 활동이 단순한 제도의 변형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육원의 체질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1월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종단협 신년하례법회에서 참석자들이 남아시아 지진해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남아시아 복구 지원에 동체대비행을"
종단협 신년하례 조계사 대웅전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가 남아시아지역 지진해일피해복구 지원에 범종단적으로 나설것을 결의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정사를 비롯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국회정각회 이용희 회장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종단협의회 회장 법장 스님은 "이번 재앙은 인류 스스로 자연을 파괴해 불러온 재앙"이라며 "남아시아 지진해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부상자 구호와 복구지원에 동체대비의 행을 실천하자"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대북사업 실무회담잇따라
조계종 · 천태종 내달 금강산 · 북경서

2005년 대북사업의 물꼬를 틀 남북불교 실무회담이 개최된다.

조계종과 천태종은 2월 1~3일 3일간 각각 조불련 · 북측 영통사복원위원회와 실무회담을 갖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조계종은 조불련과 신계사 복원문제를 비롯해, 개성 유적 발굴조사, 조계종 중진 스님들의 방북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조계종은 조만간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원로 · 중진 스님들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실무회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계종은 또 금강산 관광객의 신계사 방문이 증가하는 것에 따른 대책과 만세루와 요사채의 구체적인 복원 일정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천태종은 최근 복원불사가 마무리된 영통사 낙성식과 대각국사 의천스님을 추모하는 학술세미나, 개성 인근 평화통일나무 심기 등을 의제로 회담에 나선다.

유철주 기자

'성탄트리' 규정공개요구
조계종 종평위, 서울시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 이하 종평위)가 서울시에 서울시청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개할 것을 1월 14일 공식 요청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물 운영기간이 35일임에 비해 성탄트리 설치기간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 71일에 이르기 때문이다.

종평위 손안식 위원장은 "특정 종교의 시설물을 지나치게 긴 기간동안 설치해두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서울시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교육 · 수행체계 강화 등 종단 정체성 다지기 역점

조계종 올 사업 확정

2005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11개 핵심과제 및 21개 핵심사업이 1월 19일 확정됐다.

종책기조별로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행종풍 진작으로 거듭나는 종단'에서는 승려교육 전반의 강화,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스님과 신도들의 수행체계 정립 및 수행지도자 양성, 승려노후복지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복지시설 건립, 승려노후복지기금 확대가 주요 추진사업으로 배치됐다.

둘째, '참여 속에 함께 하는 종단'에서는 교육, 수행, 포교 중심의 행정체제수립과 종무행정 지방이양 준비 사업이 포함돼 있다.

셋째, '종도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에서는 신계사 복원 사업, 소외계층 지원 및 불교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템플스테이 저변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종단'에서는 온라인 국제포교활성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완공,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등이 있다.

남동우 기자

"신체갈마 완화한다"
조계종 행자교육원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는 1월 18일 제2기 제4차 회의를 열고 제28기 행자교육원을 3월 16일~4월 7일까지 23일간 김천 직지사(예정)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유나에 지현, 교육원 책임자에 교육부장 현관, 습의도감에 혜능(남행자) · 용운(여행자) 스님 등을 위촉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에서 입교행자의 신체 갈마 기준도 명확히 했다. 운영위원들은 흉터가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에 의한 것이거나 가사 장삼을 수했을 때 눈에 띄지 않고 혐오감을 주지 않으면 입교를 허용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우리당 임채정 당의장
법장스님 예방

열린우리당 임채정 당의장이 1월 19일 조계총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이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해 국정의 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자 임 의장은 "현장에서 민의를 충분히 파악한 뒤 정책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법장 스님이 또 "'개혁'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형식적이자 제도적인 강제에 불과하다"고 충고하자 임 의장은 "의식개혁을 이룰수 있도록 종교계에서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신청
내달 28일까지 지자체서 접수

문화관광부는 2006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해당 전통사찰은 사업계획서 등을 2월 28일까지 시 · 군 · 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 · 군 · 구는 3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심의 · 검토한 뒤 시 · 도에, 시 · 도는 3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에 제출한다.

문광부는 지원 원칙으로 △전통사찰로서의 원형 보존에 반드시 필요한 불전시설, 법당시설 △당해연도에 보수완료가 가능한 사업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전통사찰, 재정부담 능력이 미약한 영세사찰, 산간오지 사찰 등을 제시했다.

한편 문광부는 2005년도 전통사찰 보존 · 정비사업 소요예산으로 국고 61억6900만원(지방비 61억6900만원, 자부담 30억8400만원 별도)을 책정했다.

남동우 기자

도심납골당 규제완화
보건복지부, 법개정키로

도심 내 장사(葬事)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납골당, 화장터 등의 시설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도시 개발 때 공설화장장과 납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돼 불교 장례문화의 확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월 19일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최열)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빠르면 이달 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2005학년도 동방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982년에 교계 최초로 설립하여 21세기 불교를 이끌어 갈 주역을 양성하고 있는
20년 전통의 불교 대학에서 정진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불교학과	2년	정규00명 통신00명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의 학력자	강원사집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승 가 과	2년	정규00명	· 입학원서(소정양식)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반명함판사진 6매	종단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범 패 과	2년	정규00명		
불교미술과	2년	정규00명		

■ 종법 제20호 교육법
제3절 불교대학 제31조(수학의무)에 의거, 불교대학은 승려 및 정사(재가승)의 기본교육과정으로서 본종 승려 및 정사는 누구나 이수해야 한다.

2. 특전
· 졸업생 전원 2급 정포교사 자격증 발급
· 승려인 경우 종단의 대선법계품수
· 본교 졸업생으로 재입학하여 졸업하면 중덕법계품수(※종단 승려인 경우)
· 범패과 전원 영산재보존회 이수증 수여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득(국가고시)
· 성적우수자 및 각종 장학금 지급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1월 3일(월) ~ 2005년 2월 15일(화)

4. 전형일
· 2005년 2월 18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5.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범패과 · 불교미술과)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학처 : 서울 성북구 성북2동 330-586
(TEL. 02-745-2030~2, FAX. 02-744-3461)
· 홈페이지 : www.dongbang.org
· E-mail : dongbangdae@hanmail.net
· 태고종총무원 : 서울 은평구 신사동 9-16
(TEL. 02-382-7361~2)
· 각 시 · 도교구종무원

한국불교 태고종립 東邦佛教大學
서울 성북구 성북2동 330-586 ☎(02)745-2030~2

세상 바꾸려거든 나부터 바꾸자



신춘 원로대담

이원섭 시인

대담:위영란 편집부국장

40여년간 선(禪)의 세계를 참구하고 그것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에 매진해 온 이원섭(81) 시인. 제법 서늘한 겨울비가 내리던 1월 18일, 본사를 찾은 이원섭 시인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들었다.

▲이렇게 저희 신문사로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건강이 좋아 보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보이지만 속으로는 바람이 빠져나갔죠.(웃음) 노쇠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불교와의 첫 인연이 궁금합니다.

-집안이 불교 집안은 아니었지만 원래 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교회엔 안나갔지만 성경도 읽어봤고 불경도 좀 읽었어요. 이광수의 소설이 불교적 색채가 강해서 그 영향도 많이 받았지요.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땐 일제의 학교교육이 너무 군국주의적이라 성미에 맞지 않아 혜화전문을 택했어요. 당시 혜화전문에는 조지훈, 김달진, 서정주, 신석정 등 쟁쟁한 문인들이 많아 한국문학을 많이 접할 수 있다는 점도 끌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화두를 연구해오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탐닉' 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께서 들고 계신 화두가 있습니까.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화두는 없어요. 화두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결국 하나입니다. 어떻게 무명과 분별을 깨느냐는 거죠. 표현은 달라도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화두는 원래 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두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수학문제는 지적 분별력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공안은 분별을 넘어선 세계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쓰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언어를 초월한 세계이지요. <조주록>에 나오는 것만 봐도 그래요. 조사선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15개나 됩니다. 그때마다 답이 달랐어요. 대답이란 것은 묻는 사람이 분별을 어떻게 깨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가는 것이죠. 정답이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만 있을 뿐이지. 분별로 접근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치유책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즘 과학으로 우주의 기원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관심 돌려서 지금, 우리의 생활이 어떤 모양으로 이뤄져 있는 것인가를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 상태를 살피면서 생사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길을 찾으신 겁니다.

또한 요즘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개혁과 보수는 처음부터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지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서로 어디를 강조하는가 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니 과격해질 수밖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문제 치유의 처방이 있고, 우리 불자들이 그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음 살펴 열반의 길 찾은 부처님처럼 지금 우리 생활 어떻게 이뤄지나 탐구해야

-각자가 자기 자신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세상을 개혁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스스로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모델을 간디에게서 찾습니다. 간디는 자신을 억압한 영국마저 사랑하며 무저항주의를 펼쳤습니다. 오늘날에는 간디의 사상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생님의 삶의 궤적은 불교와 시의 두 줄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시(禪詩)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선(禪)'이라는 것은 교(敎)까지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걸 글로 쓴다는 것은 자기모순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시가 언어이면서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듯, 선도 실제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요. 그래서 자기의 경지를 시의 형식으로 노래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시와는 다르죠. 재주만 있어서는 선시를 쓸 수도, 접근할 수도 없어요. 어느 경지를 느끼고 나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선시라고 생각합니다. 선에서 얻은 깨달음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선시가 아닙니다.

▲불자들 중에는 '불립문자'니 '교외별전'이니 해서 책 읽는 것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 책을 잘 읽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불립문자' 아닌 불경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이 '문자에 매이라' 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처님은 분별을 넘어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자들은 책을 읽고 책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책을 읽지 않고 믿는다면 도대체 그 믿음은 뭡니까? 뭘 믿는다는 겁니까? 불자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치달으면서 속도와의 경쟁이 생존의 무기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반대급부로 '느림의 미학'이니 '여유' '귀농'과 같은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부상하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남이 뛰니 나도 뛴다는 의식이 문제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남이 뛰는 걸 보고 자신도 뛰니까요. 이럴 때 일수록 인간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뛰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돈이죠. 하지만 돈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선행부도 말후태과(先行不到 末後太過)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이 허상이라면, 먼저 달려 가봐야 허상이니 닿지를 못하고 꼴찌로 가다보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크게 지나치기 쉽다는 뜻입니다. 달려가는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쓸데없는 문제로 싸우다보면 핵무기 등으로 결국 인류는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 외부에 있는 줄 알지만 결국 행복은 자기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야지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계획이랄 건 없어요. 지금 천태 대사의 저서를 번역하고 있는데 그걸 마무리 짓는 정도죠.

정리=여수령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이원섭 시인은 1924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44년 혜화전문학교(동국대 전신)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48년 <예술조선>과 <문예>로 등단해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한국현대시인협회장을 지냈다. 첫 시집 <향미사>(1953)를 펴낸 후 <선시> <당시> <논어>를 비롯해 만해 스님의 <불교대전> 등을 번역하며 불교 경전 공부에 매진했다. 2001년 <내가 뱉은 가래침>(2001)을 펴내 선기(禪氣) 넘치는 언어의 세계를 펼쳐보였다.

언제 어디서나 불교정보 내손안에

본사 1월 31일 아이벗 불교정보서비스 가동



인터넷이 연결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전용단말기 '아이벗'으로 불교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아이벗 불교정보서비스가 1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이벗 불교정보서비스는 전용단말기(HP rw6100)를 사용하여 NESPOT AP(Access Point)가 설치된 주변지역에서 무선 랜을 통해 초고속인터넷과 각종 불교문화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NESPOT AP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CDMA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해 핸드폰이 가능한 지역이면 불교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불교 포교에 획기적인 서비스로 기대된다.

■ **뉴스** = 현대불교신문사 기자 30여명이 매일 생산하는 기사가 즉시 업데이트 된다. 특히 동영상으로도 불교계 뉴스를 접할 수 있고 기사 제보 코너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주변의 불교 이야기를 직접 올릴 수 있어 쌍방향 뉴스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고 있다.

■ **법문** = 지상백고좌, 길을 묻는 이에게, 주제가 있는 법문 코너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특히 동영상으로 전국 제방선원의 방장, 선원장 등 이 시대의 큰스님 법문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 **교양대학** = 불교학 강의, 경전 강의, 문화 강의 코너로 나뉘어 다양한 무료 강의가 영상과 문자로 서비스 된다. 장휘옥 교수의 불교학개론, 수진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비롯해 불교미술, 다도 등 다양한 강좌를 서비스한다.

■ **사이버 법당** = 불교 예절, 기초교리, 오늘의 법구 등 세 코너로 운영된다. 불자로서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며 바쁜 현대인들에게 청량제가 될 법구를 매일매일 전달한다. 향후 개별 사찰이나 종단의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내가 다니는 사찰을 그대로 재현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신행생활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엔터테인먼트** = 법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찬불가를 비롯해 창작 찬불가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교계 일정을 매일매일 소개하며 전시정보, 영화정보 등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정보들을 서비스한다. 향후 아이벗 전용 단말기의 첫 페이지를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는 스킨서비스, 핸드폰 벨소리, 게임 등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 **E-Book** = 불교 신간도서,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여시아문 추천도서를 전자북으로 만들어 서비스한다. 또한 다양한 서적 정보를 제공한다.

■ **커뮤니티** = 아이벗 단말기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소개하는 Q&A, 필수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실을 비롯해 향후 사이버 기자, 문화 지킴이 등 모바일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 **불교문화숍** = 염주, 차 등 불자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아이벗 불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오픈



아이벗 불교정보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벗 홈페이지(http://ibud.buddhapia.com)를 함께 오픈한다.

아이벗 홈페이지는 서비스 소개를 비롯해 큰스님 영상법문, E-Book 등 불교정보를 유선상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모임, 관련 TIP 등이 상세하게 소개된다.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인모집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현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한국 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모집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5년 3월 10일 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나란다 삼장 불학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故人과 온라인으로 만난다

도봉사 110억원 투입 … "3년내 유비쿼터스 영각전 완공"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을 잃은 보리심 보살. 남편의 목소리라도 한 번 듣는다면 생의 의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사찰에 마련된 유비쿼터스 납골당에 남편의 유골을 안치하고, 실시간 대화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고 말하니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요"라는 대답이 들려온다. 가상의 공양물을 올리니 남편의 웃는 얼굴까지 볼 수 있었다.

놀랍고 황당한 '먼 얘기'가 아니다. 적어도 3년 안에 서울 도봉사 유비쿼터스 영각전(납골당)을 통해 실현될 내용이다. 도봉사(주지 원명)는 1월 12일 (주)코아정보시스템과 110억원의 유비쿼터스 영각전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대로라면 도봉사 영각전에는 '고인과 도 네트워킹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그와 관련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지원된다. 불교계 최초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고,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개념이 사찰 납골당에 적용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서비스는 납골당 분양자에게 개인적으로 제공된다. 1평 정도의 공간에 유골을 안치하고 그 뒤로 스크린이 배치된다. 가족들은 고인의 모습과 기록, 기억하고 싶었던 순간에 대한 입체 화면을 볼 수 있고, 고인의 체취까지 느낄 수 있다. 실시간 대화형 시스템도 갖춰지기 때문에 고인과의 대화도 가능해진다. 디지털 TV, 차세대 모바일 단말기, 손목 PC 등만 있으면 유무선 통신 및 위성 통신 방식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도봉사측은 이를 위해 지하 2400여 평의 공간을 확보하고 빠르면 3~4월경 납골당 시설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비쿼터스 영각전 시스템을 특허출원한 코아정보시스템 이승진 기획이사는 "3년 전부터 도봉사 주지 원명 스님과 함께 시스템을 준비해 왔으며, 1년 4개월 안에 모든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봉사 주지 원명 스님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해 납골당이 완성되면 돌아가신 영가들과 살아있는 가족들이 온라인 네트워크로 만나 가족의 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연변에 수월 스님 추모 사찰 건립

중국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연변자치주에 수월 스님을 기리는 수월조사전을 포함, 대각사가 건립된다.

중국 베이징대(北京大)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암 스님과 쉬멍린(許夢林) 연변자치주 종교처장, 대각사 건립위원회 신옥대표는 1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을 부탁했다.

연변 연길시 의란진 태암촌 병풍산 자락(연길시 중심에서 차량으로 20여분 거리)에 건립되는 대각사는 수월조사전, 대웅보전, 보제루, 요사채, 생활문화관 등을 포함 전체 1만5000여평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9월 3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건립 허가를 받고 현재 터닦기가 마무리 된 상태다.

올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수월조사전은 800여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조성된다. 1층에는 수월 스님 유물 전시관이 들어서며 2층에는 수월선원과

1만5천평 규모 130억원 예상
조계종 방문해 도움 요청
법장 스님 적극 지원 약속

천수경 대비주 기도원으로 꾸며진다. 조사전 뒤편으로는 수월 스님의 일대기를 그림과 글(한 · 중 · 영어로 번역)로 옥판에 새긴 수월십상도(十相圖)도 마련된다. 조사전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올 3월 1일 35평 규모의 임시법당을 건립할 예정이다.

대각사 총 건립비용은 130억원 정도. 이 중 조사전 건립만 10~5억원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건립위원회측은 한국불교계의 도움으로 조사전을 지은 다음 나머지 불사는 현지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쉬멍린 종교처장은 "대각사가 완공되면 연변불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수월 스님 사상연구소 설립 △수월문화회관 건립 △연길불교협회 창립 등을 향후 계획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대각사가 완공되면 한국불교를 중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포교 활성화에도 부합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월 스님은 1855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 29세에 연암산 천장사로 출가했다. 1910년 연변으로 건너간 스님은 흑룡강성 수분하 상류지역 동삼차구에 고려사를 세웠다. 스님은 여기서 짚신과 주먹밥을 만들어 항일유격대에 보내주고 부상당한 유격대원들을 치료해주는 등 항일독립운동을 펼쳤다. 경허 스님의 선풍을 이은 스님은 북 수월, 중 만공, 남 혜월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연기론은 생명윤리의 근거"

불교생명윤리 세미나서 제기

"경전을 근거로 하는 것 못지않게 현대사회의 상황에 맞는 생명윤리정립이 중요하다."

생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불교생명윤리 세미나'가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도법 스님과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미산 스님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낙태, 사형, 배아복제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접근방법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전남대 이중표 교수는 "연기론적 세계에 대한 이해는 현대과학의 시스템이론의 관점과 통하는 것으로 타인은 물론 자연을 자신처럼 생각하는 동체자비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윤리의 근거가 된다"며 "불교윤리의 올바른 정립은 상호인과율이라는 인과율적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도법 스님과 미산 스님,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 등도 "부처님의 연기적 가르침을 현대사회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불교생명윤리 정립 추진위원회 백남석 공동위원장은 "불교생명윤리문제에 대한 접근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현실 중심적이서도 안 된다"며 "향후 분야별 연구에서는 현 상황과 조건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인도에 '제2 나란다 대학' 건립

인도에서 불교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나그푸르에 '제2 나란다 대학'이 건립된다.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인도 구자라트 여학생 기숙소와 나그푸르 여성명상센터 준공식에 참석하고 온 참여불교재가연대 민정희 국제협력국장은 "동행했던 김태제 불교아카데미 이사(아이네임즈 대표이사)가 세계 최초 · 최대의 불교대학으로 유명했던 나란다 대학을 복원시킨다는 취지로 인도 나그푸르에 불교대학과 승가대학 설립을 TBMSG(서구불교교단우의회 인도지부)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도불교지원사업단(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선우, 현대불교신문,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은 약 30만평에 이르는 대학건립 부지와 대학 건립 재원 조달을 위해 TBMSG, 일본, 대만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건립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 사진=박재완 기자

천성산 지킴이 살려달라

정부 대책 촉구 전국서 촛불집회

단식 87일 넘긴 지율 스님

지율 스님의 단식이 계속되고 있다. 1월 21일 현재 87일. 지율 스님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월 17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남영주 총리실 민정수석, 20일 곽결호 환경부 장관 등이 지율 스님과 차례로 만났지만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지율 스님은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1월 14일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율 스님과 천성산을 살리기 위한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민주노동당 등 종교시민사회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문제해결에 적극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계종 호법부는 21일부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24시간 지율 스님의 신변을 체크하고 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

법원 조정권고안 제시

2003년 수경 도법 스님의 3보일배로 전국적 환경 이슈로 떠오른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이 1월 17일 전면 재검토 취지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법원은 '새만금 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 확인소송'대해 환경단체와 정부기관에서 추천한 새만금 사업 재검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를 막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세영 스님은 은 "법원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했다"며 "개발과 파괴가 아닌 생명의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송담 스님, 숭산 스님 49재서 법문 '화제'

송담 스님은 1월 16일 서울 화계사에서 열린 숭산 스님 49재에서 추모 법문을 통해 생전 숭산 스님과 문답했던 '현양매구(懸羊賣狗)'를 소개했다.

송담 스님에 따르면 숭산 스님의 부탁으로 미국에 간 일이 있었다. 이 때 숭산 스님은 "개는 양고기를 먹고 사람은 개고기를 먹는다"라는 법문을 했다. 이를 기억한 송담 스님은 외국인 제자들에게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불교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까지 개고기를 먹어서야 되겠는가. 개고기가 싫으니 양고기를 달라는 말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 말은 들은 숭산 스님은 "그거 참 잘했다"며 자신의 마음을 아는 송담 스님에게 크게 박수를 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송담 스님의 법문에 한 스님이 의의를 제기하자 또 다른 스님이 "개구즉착(開口卽錯)"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송담 스님은 "이 자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니 다른 사람은 입을 열지 말라"고 일갈했다.



숭산 스님 49재 추모법문 중 송담 스님의 즉석 법거량이 화제가 되고 있다.

남동우 기자

유학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2plus2

"미국유학이 한결 쉬워졌어요!"

1~2학년은 한국에서, 3~4학년은 미국에서

국내 최초로 미국대학 편입학 코스 운영!

Nungin Educational System
프레즈넷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1-6
TEL.02)512-4831 FAX.02)3444-3688

미국 주립대학 국내 2년과정 2005학년도 신입생 모집

50개 미국대학 총장협의체가 보장하는 유학과정
미국의 Presidents' Network 산하 50여개 대학에 국내이수 학점 인정, 편입, 학위취득과정 협정

유학기간은 짧게, 비용은 싸게
국내에서 미국대학 1-2학년 교양과정을 이수, 3-4학년 전공과정만 미국에서 유학
학비, 숙식비, 일반경비, 등을 절반이상 절약

집중적인 원어민 영어강의로 영어수강능력 함양
1-2학년 교양과정을 전부 원어민 영어로 강의함으로써, 미국에서의 영어수강능력을 충분히 습득 후 유학

특전
- 2년 후 미국 50개 대학에 수능불문, 희망전공 3학년 진학가능
- 능인선원이 미국의 불교/한의과 대학설립시 입학 특전

▶입학자격은...
• 고졸이상의 학력자 • 수능시험 성적과 무관
• 영어 우수자 우대

▶국내 교육장소는...
• 미국 협정대학들이 위탁한
• 해외교육개방특구내 대학(순천제일대학, 극동대학교 등)

★신입생 모집 / 유학설명회 개최★
(www.2plus2.co.kr 참조)
1/21(금) 오후4-6시 역삼하이츠빌딩(YBM플라자)
1/22(토) 오후2-4시 서울어학원 (강서구 신정동)
1/23(일) 오후2-4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문화·환경·화합 실천도량으로

은적사, 불교의 대중화·생활화에 역점
'환경특강' 등 열어 지역사회 선도 역할

고요한 산사는 옛말, 불교가 가진 오랜 전통과 정신적인 역량을 복지, 문화, 종교화합, 환경 등 다방면에 걸쳐 발휘하며 지역사회를 선도하려는 신라천년 고찰 은적사의 신년 계획이 돋보인다.

대구시민들의 안식처인 앞산에 위치한 은적사(주지 허운)는 새해를 맞아 문화와 환경을 가꾸는 중심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화장실 시설. 은적사의 재래식 화장실은 인분을 몇 차례의 거름장치를 통해 완전한 액비(액체 비료)로 만드는 BMW 방식의 화장실로 개조된다.

이는 주지 허운 스님이 지역 종교 화합과 교류의 일환으로 인연을 이어온 정홍규 신부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환경운동가인 정 신부와의 인연이 친환경적 화장실로 결실을 맺으며 신도들에게는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으로 꽃을 피우게 됐다.

또한 은적사는 환경운동가들을 초청해 유치원 자모와 신도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존을 위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격월로 발행되는 회보에 불교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환경관련 경구와 친환경 세제 만드는 법, 음식 찌꺼기를 이용한 비료 만드는 법 등을 실어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새로운 사찰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고민도 깊다. 지난해 송년음악회에서 음악가 김영동씨와 여러 국악인들을 초청해 해설이 곁들여진 우리음악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던 은적사는 보다 새로운 형식의 문화 공연을 구상 중이다.

그 중 하나가 김영동씨가 제안한 것으로 사찰에서 행해지는 의식적 요소가 들어있는 명상음악에 맞춰 절을 하는 음악회나 음악인과 관객이 더불어 호흡하는 음악회, 참회를 통한 회향이 될 수 있는 음악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통일을 염원하고,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앞산 공원에 장승을 세운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그동안 은적사는 신도들과 룸비니 유치원 어린이들의 바자회 등으로 마련한 성금으로 독거 노인, 지역 고학생 50여 명에게 장학금과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허운 스님은 "은적사의 지향점은 불교가 가진 사상적 깊이와 산사 생활 자체가 가진 친환경적인 요소를 어떻게 대중화하고 생활화하는가 하는 점"이라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사찰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거제 금강사 금강한문학당 개설

노래 부르듯 한문 읽기, 쓰기 재미 솔솔~~



거제 금강사는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지역 아이들을 위해 불교문화프로그램을 갖춘 한문학당을 열었다.



친환경 식사법인 발우공양.

발우공양·다도 배우며 마음 공부

"부생아신(父生我身)하시고 모국아신(母鞠我身)하시며 복이회아(腹以懷我)하시며 유이포아(乳以哺我)로다"

거제의 시골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금강사(주지 성원) 법당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린 금강사 금강한문학당에서 한문을 배우는 아이들의 소리다. 1월 18일, 금강사 인근에 사는 초등학생 34명은 대웅전에 모여 앉아 주지 성원 스님, 한문강독 교수사 대흥사 수련원장 법인 스님, 문화체험 교수사 법밀 스님, 일원 스님 등과 함께 입학식을 갖고 8일간의 금강한문학당을 시작했다.

첫 시간인 한문 강독시간, 법인 스님의 수심보경(修心寶鏡) 수업이 시작됐다. 대흥사 수련원장으로 5년 전부터 아이들을 위한 한문학당을 열어온 법인 스님의 수업은 금방 아이들을 사로잡았다. "나는 한문 도사며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학생은 죽비로 내려치는 죽비도사"라고 엄포를 놓은 스님은 한자의 뜻을 풀어가며 음악적 요소를 가미한 읽기와 쓰기로 재미를 더했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점점 초롱 해지고 스님을 따라 한문을 외우는 목청은 점점 높아갔다.

한문 강독에 이어진 발우공양 습의. 발우를 차례대로 펴고, 밥, 국, 반찬을 받은 후 밥을 먹고 다시 발우를 설거지 한 물까지 마셔야 하는 까다로운 발우공양법에 아이들은 한숨부터 내쉰다. 낯선 용어, 복잡하기만 한 순서에 걱정이 앞선다.

음식의 소중함과 사찰 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 첫날을 제외한 모든 공양은 발우공양으로 진행됐으며 금강다도회 공경숙 선생님의 지도로 다도와 예절 교육, 풍물놀이,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섬마을 아이들에게 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했다.

거제=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개소



부산시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소장 윤기혁)가 1월 19일 문을 열었다(사진).

양정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혜총 스님은 "부처님의 지혜로서 고령화, 핵가족화로 인해 점차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는 앞으로 응급센터, 경찰, 학계, 의료계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접수(24시간 1389번), 개별 특서에 맞은 전문적 상담,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천미희 기자

통도사자비원 노인요양원 개원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대표이사 현문)이 양로원, 노인요양시설에 이어 중풍, 치매 어르신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원을 1월 15일 개원했다(사진).

721평의 대지에 연건평 680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통도사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원장 혜강)은 총 13개의 방과 물리치료실, 미용실, 휴게실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췄다. 부주지 산옹 스님은 "치매, 중풍 어르신들이 남은 생을 편안히 지내실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055)383-3999

천미희 기자

서비스·전문성 향상에 최선
경남불교복지협 창립



경남지역 15개 불교계 복지법인의 협의체인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허)가 1월 20일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심허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경남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 창원전문대학을 자문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간의 조정 협력증진,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세미나 개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이동 목욕차' 찾아 갑니다

"저소득층 중증 재가 장애인들이 청결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릴께요"

경주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이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한 이동목욕서비스를 1월 19일부터 시작했다.

첫 시범 목욕봉사 대상자는 성건동에 거주하는 지체1급 장애자 김(54)씨. 이날 첫 시범 목욕봉사에는 이동목욕 홍보대사인 성부조(경주시장 부인)씨와 위덕대학교 한재숙 총장이 자원봉사팀 화랑회와 함께 동참했다. 경주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주 5일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해 경주시내뿐 아니라 안강, 감포 등 외곽지역까지 보다 더 많은 중증 재가 장애인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054)776-7522

배지선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 日탐방

"일본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불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대구지부(지부장 지성)가 1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4일간 일본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신연섭 파라미타 대구지부 부지부장 등 교사 27명과 대구지역 청소년 72명은 일본의 유수한 사찰을 참배하고 일본의 불교문화와 한국의 불교문화를 비교하며, 직접 체험하고 돌아왔다. 특히, 동대사의 행기스님 흔적, 법륭사의 백제 관음상·금당벽화, 광륭사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청수사의 고마이누(고구려 개 형상) 등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큰 자긍심을 느꼈다.

파라미타 대구지부 이수열 사무국장은 "2006년 1월에는 대만의 불교 문화를, 2007년 1월에는 중국의 불교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부산 청년불자 첫 합동 수계

부산의 청년불자들은 다 모여라. 한동안 침체 위기에 놓였던 부산 청년불자들이 '1만 청년전법단' 결성을 기원하며 합동수계법회를 갖는다.

부산불교신도회 청년분과가 주최하고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류상영)가 주관해 1월 29, 30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봉행되는 부산지역 청년불자 합동수계법회는 부산지역 청년 불자들의 신심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관 영주암 조실 스님을 수계 법사로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수계법회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부산지역 청년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인연 부산모임(다음카페), 나무아미타불 부산모임(다음카페) 등 온라인 청년 모임과 청년불자 산악회, 대불청 부산지구, 각 대학 불교학생회 등이 함께 1월 21일 준비 모임을 가졌다.

천미희 기자

대구 성도절기념대법회 봉행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1월 17일 대구 프린스호텔 국제회의장에서 성도절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는 보광원 조실 화산,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원명, 동화사 주지 지성,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조, 천태종 대성사 주지 문덕,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장 법운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신상철 대구시교육감, 사원주지연합신도회 김대희 회장 등 사부대중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원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부처님께서 성불을 이룬 깊은 뜻을 새겨 자신의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삼고, 이웃에게 행복과 평안을 함께 나누어 모두가 하나되는 '세계일화(世界一花) 사해일가(四海一家)'의 불국토가 성취되기를 염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co.kr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대학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1월 31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6. 남경중의약대학 교류 연혁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 원광대 ·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 1995년 1월 20일 학장혜인 스님 남경중의약대학 방문 상호교류 및 자매결연 협의
· 1995년 7월~2000년 12월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1차~14차)
· 1995년 8월 19일~8월 25일 남경중의약대학 총장 일행 방한
· 1995년 10월 25일 南京中醫藥大學 漢語 分校설립, 분교장 취임
· 1996년 8월 21일~8월 30일 이병용(李秉鎔. 한의사) 명예박사학위 취득 남경중의약대학 국제교육학원 교직원 방한 (中國 江蘇省 教育委員會 永鎭 國際教育學院長 楊公服, 教務處長 惠紀元, 國際交流服務中心 總經理 丁雲南)
· 1996년 12월 5일~12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項平 총장 방한
· 1997년 8월 10일~8월 15일 남경중의약대학 項平 총장 방한
· 1999년 9월 본교 중국어과 5명 본과 입학
· 2000년 9월 9일 본교 중국어과 11명 본과 입학
· 2000년 11월11일~11월17일 남경중의약대학 王琦玲 院長, 徐恒 院長 訪韓
· 2001년 3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28명 본과입학
· 2002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3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4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4년 11월 중국국가의사고시 7명 합격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적천사 괘불탱 보물지정 예고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2호인 적천사 괘불탱(사진)과 지주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적천사 괘불탱은 1695년에 조성됐으며, 화원으로 상린(尙鱗) · 해웅(海雄) 등이 참여했다. 이 괘불을 걸기 위한 지주도 170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괘불탱과 함께 지정 예고됐다.

박익순 기자

선돌선원서 보물급 범종 발견
서귀포시 문화재 지정 신청

제주 서귀포시 소재 선돌선원에서 고려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급 범종이 발견됐다.

서귀포시는 1월 12일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이 종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문화재 지정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범종은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높이(용뉴 포함) 33㎝, 무게 10㎏의 작은 소종(小鐘)이다.

한명우 기자

'국제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월정사, 문수청소년회 설립

평창 월정사가 사단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지역 청소년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청소년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수청소년회'를 설립했다.

문수청소년회(이사장 정념)는 1월 3일 열린 이사회에서 연중 관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인성교육, 문화예술탐방, 연합캠프, 성교육, 자원봉사활동, 국제교류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 청소년연합캠프와 불교학생수련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한중일 청소년들과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지역발전위해 뜻 모았죠"

7개 종단으로 구성된 수동사암련 첫 행사

1월 18일 남양주시 화도읍. 50여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남아시아 지진해일 재난을 부처님의 자비로 구호합시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거리탁발을 하고 있다. 작은 마을에서 이처럼 스님들이 함께 모여 행사를 여는 모습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상점 안에서 유리문에 얼굴을 대고 구경하는 마을 주민들의 시선이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이날 탁발에 나선 사람들은 남양주시 수동면 15개 사찰들로 구성된 수동사암연합회 소속 사찰 스님들과 신도들. 2004년 11월 사암연합회가 결성되고 나서 처음 갖는 행사다.

지진해일 피해민돕기 함께 참여
봉사활동, 공동 위령법회 등 공감대

최근 들어 수동사암연합회(회장 혜원 · 대광사)는 지역민들과 다른 지역 불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유는 세 가지다. 하나는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집력이 대단하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면 단위의 작은 사암연합회도 드물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민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수동사암련 사찰들은 건립된 지 2~3년 된 사찰들이 대부분이다. 남양주시가 개발붐에 휩싸이면서 수동면 지역도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찰들이 이곳에 문을 열고 포교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로 활발히 교류했다.

사암련은 이렇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심전심으로 결성됐다. 조계종, 총화종, 염불종, 법성종 등 7개 종단의 15개 사찰들이 모였고, 여기에 평상시 함께 교류했던 원불교 단체(오덕훈련원)도 들어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수동면 인근의 화도읍에 위치한 송암사 원호 스님은 자신이 수동면 출신이라며 수동사암련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화도읍 내의 다른 사찰들도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

수동사암련은 무량사에서 창립법회를 가진 후 매달 한 차례씩 회원 사찰들을 돌며 모임을 갖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소상히 알자는 취지에서 모임 장소를 그렇게 정한 것이다.

수동면 사찰들이 이렇게 쉽게 뜻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발전에 불교가 기여하는 방식의 포교활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동사암연합회의 주요 사업도 지역 봉사활동이나 지역민 공동 위령법회와 같은 현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스님들과 모임을 같이 하니 즐거워요. 더구나 지역발전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니 자부심도 생기고요. 이런 일에 종교가 따로 있을 수 있나요." 원불교 오덕훈련원장 정인신 교무는 수동사암연합회 일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수동사암련 회장 혜원 스님은 "원적사 남은 스님이나 무량사 금담 스님 등 많은 스님들께서 애쓰신 덕에 수동사암연합회가 모양을 갖출 수 있었다"며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다가가는 불교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광주 무각사 합창단 창단 음악회



광주 5 · 18기념관에서 열린 무각사 합창단의 창단음악법회.

'대구BBS 예술단' 초청 공연

광주 무각사(주지 광민) 합창단 창단을 기념하는 신년음악회가 1월 15일 5 · 18 기념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대구불교방송 예술단 초청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음악회에는 송광사 회주 법흥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광주사암련 회장 혜향 스님과 무각사 신도, 일반 시민 등 800여 명이 참관했다.

교향악단, 중창단으로 구성된 대구불교방송 예술단(단장 최경순)은 1부 공연에서 서연 스님의 플룻 연주와 중창단의 찬불가, 가곡, 교향악단의 모차르트 심포니 연주 등을 선보였다.

법흥 스님은 법어를 통해 "다변화 사회에서 현실구제의 훌륭한 방편인 음악을 통해 포교하는 합창단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무각사 주지 광민 스님도 인사말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창립된 무각사 합창단(지휘자 박신향)은 30여명의 단원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무각사에서 연습하며 각종 법회와 불교행사에서 음성공양을 펼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 자비를…

해인사 · 고운사 등 거리탁발



의성 고운사 거리탁발 장면.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 지원을 위한 자비의 탁발행사는 이번 주에도 계속됐다.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1월 18일 창원 경남도청 앞에서 입제식을 마치고 거리탁발에 나섰다. 해인사 스님 50여명은 이날 대구에 2팀, 창원에 2팀, 마산에 1팀 등 모두 5개 팀으로 나눠 자비의 탁발에 나섰다. 21일 거창, 22일 함양, 25일 진주에서도 자비의 탁발을 이어갔다.

의성 고운사 주지 혜승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과 신도 200여 명도 18일 의성과 안동 영주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구호 성금을 모금했다.

19일은 마곡사(주지 진각)와 대전 · 충남지역 스님, 신도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역 앞에서 자비의 탁발행사를 가졌다. 이어 22일은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가 구리지역에서, 영남불교대학(주지 우학)이 대구에서 각각 탁발을 실시했다.

한편,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등 조계종 전남지역 4개 교구본사가 1월 28일 오후 2시 광주에서 지진해일 피해민 돕기 자비의 탁발 행사를 갖는다.

조용수 · 배지선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서울 홍지동 소림사

전문성 · 조직력으로 승부



지난 12월 초에 열렸던 소림사 겨울불교학교의 어린이들 모습.

서울 종로구 홍지동에 위치한 소림사. 절 이름이 중국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소림사(少林寺)와 똑같아 눈길을 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지닌 사찰도 드물다는 느낌이 드는 절. 하지만 이런 외형과는 달리 소림사는 지금 몇 십년을 내다보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어린이 포교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소림사는 교육 · 포교 · 복지 등 종합 포교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소림사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은 서초구로부터 위탁운영하는 내곡동 어린이집과 여름 · 겨울 불교학교.

10년 맞은 불교학교 철저한 점검으로 유명
신도들 복지학 공부하며 복지포교에 열성

벌써 10년째를 맞은 소림사 불교학교는 인근 학생들은 물론 먼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여름불교학교 때는 연비와 수계를 하고 겨울불교학교 때는 포살을 한다. 그리고 박물관 탐방이나 사찰 순례도 한다.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철저히 점검하는 방식이다.

작년 6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어린이집 시설 보수를 위해 소림사는 막대한 재원을 쏟았다. "아이들 가르치는 환경이 좋아야 한다"는 주지 혜윤 스님의 소신 때문이었다.

주지 혜윤 스님은 "어린이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혜윤 스님의 성격 때문이다. 혜윤 스님은 지금 중학생 하나를 절에서 키우고 있다.

이 정도면 도심사찰로서의 역할은 충분하다는 생각도 들 법하다. 게다가 어린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이 불우한 어르신들 역시 그냥 보지 못하는 혜윤 스님은 17년 째 해마다 2차례씩 경로잔치를 열어왔으며, 불우어르신들에게는 생필품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혜윤 스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복지관을 운영해 본격적인 복지포교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래서 사중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복지학 공부를 하라고 지시했다. 한 신도는 이미 2급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여현 스님(재무)은 동국대 불교복지학 과정에 편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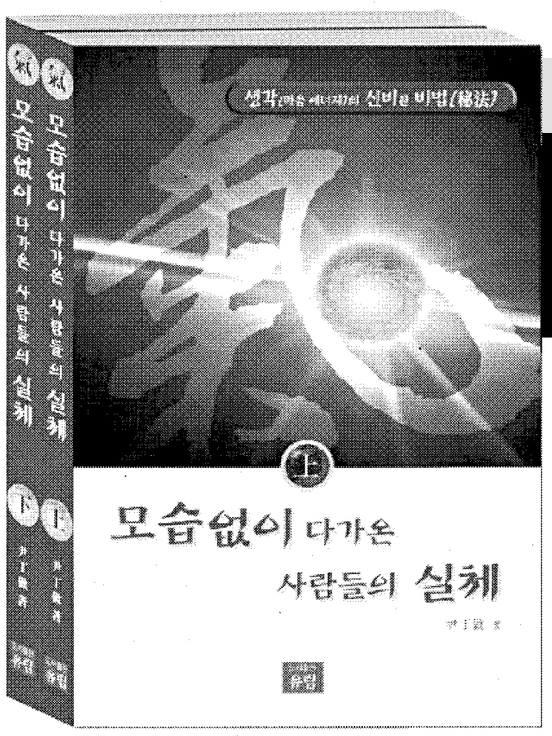
소림사는 신도교육 역시 체계적이고 질이 높기로 유명하다. 기초교리 과정만 2년이고, 이 과정을 마쳐야만 경전반에 편입된다. 봄 · 가을로 연수회도 갖는다. 신도회 조직도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이다.

소림사 주지 혜윤 스님은 무엇이든 드러내길 싫어한다. 언제나 말없이 먼저 행하며 모범을 보인다. 그런 속에서 소림사의 꿈은 영글어가고 있다.

한명우 기자

www.jinryeo.com

우리 곁에서 영가천도를 1~2초에 원격(遠隔)으로 하고 있는
고차원의 영적(靈的)초능력자 윤정주 원장의 체험이야기!



우리 생각의 묘법(妙法)과 신비(神秘)를 밝힌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육체를 통해서 창조되는 기(氣:마음 에너지)와 영혼과의 관계

모습없이 다가온 사람들의 실체

저 자 : 尹丁做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인체(人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 : 마음 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없이 다가온 사람들의 실체」는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아픔과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놓았다.

이 책을 통하여 진여(眞如)수련원 윤정주 원장의 신비(神秘)로운 기(氣 : 마음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느껴 보시고 체험해 보신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 광고는 여주 송영수氏의 배려로 게재 됩니다.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

전남 해남·강진·완도·진도

茶, 바다 그리고 고찰… 생활불교의 터전


2000년부터 시작된 해남 대흥사 '새벽숲길'은 산사와 주5일 근무제를 결합한 주말수련회의 대명사가 됐다.


땅끝마을 미황사는 한문학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사찰로 자리잡았다.

해남·강진

지역과 불교. 여기에는 많은 함수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공통분모는 역시 '생활'이다. 생활 속에 불교가 얼마나 녹아있느냐가 관건이다.

시대흐름 속에 강·약이 반복되는 가운데 오늘의 해남, 강진불교는 젊고 힘있는 불교라 할만하다.

해남, 강진 불교대학을 나오지 않고서는 지역에서 한소리 하기 어렵다. 지자체 단체장이 대부분 지역 사암의 신도회장 출신인 것만 보아도 불교계의 역할을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10여년 전만해도 이 지역에서 불교는 외면당했다. 종단분규로 인해 지역민들이 불교를 등졌기 때문이다.

해남불교는 1994년 천운 스님이 대흥사에 주석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95년 해남읍내에 대흥사 불교회관을 건립하고 한듬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포교에 나섰다. 곧이어 해남불교대학을 개설해 그동안 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방학특강에는 선지식은 물론 황석영, 김지하, 조정래 등 당대 최고의 명사를 초청했다. 서산대사 탄신대재에 초·중·고 백일장을 개최해 매년 700여명의 학생이 대흥사를 주제로 글을 쓰도록 했다. 이렇게 4~5년간의 수습기를 거친 후 2000년대에 들어서 교구신도회, 경찰서 법우회, 군청 공무원불자회(수선회) 등 직장직능 불교단체를 결성하면서 제2의 도약기에 들어섰다.

2000년부터 시작된 '대흥사 새벽숲길'은 주말수련회의 대명사가 됐고, 미황사의 한문학당, 작은음악회, 괘불재 등은 전국 각 사암에서 벤치마킹해 전국적인 포교 프로그램으로 보급되고 있다.

또한 해남불교에서 차(茶)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차의 성지로 일컬어지는 일지암을 중심으로 다양한 다인들의 모임이 이뤄지고 있다. 일지암주 여연 스님은 초창기 다인회를 결성해 전통차 강의와 보급에 앞장섰다. 특히 여연 스님을 주축으로 지역 젊은이들이 모인 남천다회는 직접 자생차 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다.

강진 역시 불자뿐 아니라 지역 기관장 대부분이 강진불교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이다. 룸비니 어린이집, 군청, 경찰서 불자회는 물론 상가번영 불자회, 신도연합회, 포교사회 등 각종 신행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백련사, 무위사, 고성사 등 한국불교의 맥을 이어온 대가람과 대한불교선각종, 세계불교미륵종 총본산이 자리해있어 지역불교를 더욱 힘있게 한다.

지난 2000년 호남을 중심으로 창종한 선각종은 전국에 318개의 말사가 있으며 종단차원으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소외이웃을 위한 봉사와 군부대, 교도소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완도·진도

육지에 비해 교세가 약한 섬 사찰은 대부분 포교나 대사회문제에 약한 편이다. 배를 타고 육지까지 나오려면 하루 거리여서 집중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10여개 섬으로 이뤄진 완도는 다르다. 민주화가 한창인 80년대에 '더불어 사는 세상'을 외쳤던 법일 스님이 6년전 신흥사로 오면서 완도 불교와 사회에 일대 변혁이 일고 있다.

해남 대흥사불교회관·새벽숲길 포교 발판

강진 가는곳마다 불교신행회 활기 넘쳐

완도 신흥사 중심 10여개 섬 불자들 뭉쳐

진도 쌍계사 국화축제·향적사 청년불교 눈길

한문학당, 장보고학교 등을 운영하며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주력하는 한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예공방, 다도모임을 운영하면서 불교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불교계가 나서 지역 성직자들과 시민단체들을 결집해 군정감시, 지역문제 해결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섬으로 이뤄진 진도는 쌍계사, 향적사, 용장사 등이 주축되어 지역불교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 쌍계사와 향적사는 포교에 있어 상호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활기를 띄고 있다. 천년고찰 쌍계사는 찾아오는 참배객들을 대상으로 포교에 임하고, 향적사는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포교전략을 펴고 있다. 쌍계사는 국화축제를 위해 화분 1000개에 모종준비를 마쳤고, 향적사는 학생회, 청년회 등 약해진 신행단체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해남·강진·완도·진도=이준엽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변화'와 '발전'의 주역

몽산 스님 (해남 대흥사 주지·해남불교사암련 회장)



"지역불교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세 개의 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몽산 스님의 신념이다.

'화안애어(和顔愛語)'를 강조하며 교구본사 주지라는 바쁜 일정 가운데도 포교라면 어느 곳이든 직접 차를 몰고 달려간다.

"발상을 바꿔야 지역불교도 산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불교대학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해남불교대학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교리강좌에서 벗어나 문화해설, 다도전문반, 자원봉사과정 등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제는 포교방향을 자연부락으로 돌려야한다"는 스님은 공격적 포교를 모색하고 있다.

일년이면 50여차례 수련회가 열리는 수련시설을 지역사회단체에 연수회 등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흥사에서는 포교, 수련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인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3천불·3천탑 조성 불사

정암 스님 (선각종 총무원장·강진 옴천사 주지)



선각종 총본산 옴천사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종단을 이끌고 있는 정각 스님은 평생 옴천지역 불교와 함께 하고 있다. 삼세가 정토세계이기를 발원하며 '3천불, 3천탑' 조성불사를 펼치고 있는 옴천사는 현재 1200여기의 각종 탑이 즐비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승,속을 떠나 사부대중이 함께 정진하는 열린선방, 강원을 건립중이다.

전국에 산재한 선각종 산하 사암들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스님은 종단차원으로 매년 심장병돕기 수술비를 지원해 그동안 6명의 환우를 쾌유케 했다.

부처님 찬탄과 마음 정화, 신심을 돋우는데 찬불가만한 포교가 없다고 주장하는 스님은 금년 봄에 선각종림합창단을 창단해 지역 사암을 찾아가 찬불가를 보급할 계획이다.

범 종단차원의 자비 실천행을 위해 오는 3월부터는 '사랑의 연탄 10만장 모으기 운동'을 펼쳐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누가 뭐래도 '진도 스님'

법일 스님 (진도 향적사 주지)



법일 스님은 진도에서 태어나, 진도에서 출가해, 진도에서 수행 포교하는 그대로가 '진도 스님'이다. 일찍이 포교에 원력을 세운 스님은 1981년 지산중학교 교사들과 지산면 불교학생회를 결성했다. 면단위 불교학생회로는 처음이었다. 82년 진도불교청년회, 85년 고등부 불교학생회, 89년 향적사 어린이회를 출범시켜 지도해 오고 있다.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목요법회 경전강의도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지역 포교에 있어 한눈팔지 않고 달려왔다. 이러한 스님의 우직함은 교도소 법회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1985년 시작한 장흥교도소 법회를 지금까지 25년째 이어오고 있다.

불교학생회에 애착을 갖고 있는 스님은 지난해부터 진도중학교 특별활동시간에 불교동아리방 교사가 되어 지도하고 있다.

국화 향기로 전법문 열어

진현 스님 (진도 쌍계사 주지)



출가 후 25년가량 전국 기도처에서 기도정진하던 진현 스님이 쌍계사 주지를 맡아 포교일선으로 나와 느낀 것은 '포교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쉽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스님은 진도불교 포교 코드를 '국화꽃'으로 정했다.

국화는 한 종류로 수백 가지를 표현해 낼 수 있으므로 다양한 모습의 불교를 접목시킬 수 있어 제격이다. 더구나 출가 전 스님의 전공이 원예여서 누구보다 자신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진도민요가 곁들여진 '국화축제'를 펼쳤다. 대성공이었다. 홍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1달간 펼쳐진 국화축제에는 진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단번에 진도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가 되었다.

지난해 시작한 다도교실은 보현다인회로 거듭나 신행단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지부임 3년째를 맞는 금년에는 학생회, 청년회, 신도회를 결성해 지역 봉사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문화로 지역민과 호흡

법일 스님 (완도 신흥사 주지)



완도에서 큰절로 불리는 신흥사는 규모는 작아도 완도불교를 대표한다. 그렇지만 1999년 법일 스님이 완도에 왔을 때만해도 불교가 있는 듯 없는 듯 미미했다. 120평 규모의 교육관(하심당)을 세워 교육부터 시작했다. 1층에 도예공방을 마련해 매주 수요일 생활도자기 강좌를 열고 있다. 문화시설이 없는 완도에서 공방은 급증하는 문화욕구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완도읍내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3층 교육장에서는 여름수련회를 비롯해 어린이 한문학당을 8회째 개최했다. 한문학당 출신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린이법회로 이어졌고, 금년 봄에는 중등부 학생회를 창립할 예정이다. 더구나 아이들을 따라 부모들도 사찰을 찾으면서 완도불교가 활기를 띄고 있다.

"건강하고 올바른 불교가 생명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2003년 시민단체를 결집해 민주개혁시민연대 상임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다.

문화재 사랑 심기 분주

종범 스님 (강진 무위사 주지)



한국불교미술의 보고인 무위사는 국립공원 내에 자리한 국보소유의 사찰 가운데 입장료를 받지 않는 유일한 사찰이다. "신도가 주인이고, 누구든 편하게 찾아야할 공간에 입장료가 웬 말이냐"며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스님의 의지다.

'성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참배객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 포교이자 수행이다'는 것이다. 무위사 법당자체가 맞배집으로 위압적이지 않고 서민풍이어서 입구에서부터의 편한 마음은 법당까지 계속된다. 더구나 몇 년 전부터 무위사 뒤쪽으로 생태숲길이 조성되어 자연과 함께하는 편한 세계가 이어진다. 특히 생태숲길 초입에 마련된 야생화 단지는 한국의 야생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사찰에서 흥미를 붙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생태학습장이 되고 있다.

금년 중으로 벽화보존각에 소장중인 불화 보존을 위한 성보박물관이 완공되면 참배객을 대상으로 하는 좀더 체계적인 포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행·체험행사 기획 '성공'

금강 스님 (해남 미황사 주지)



불교계 주요 벤치마킹 사찰인 미황사. 그 중심에 금강 스님이 있다. 2000년부터 시작한 어린이 한문학당, 산사음악회, 괘불제에 이어 이번 겨울방학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학교를 개설했다. 모두가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새로운 개념의 포교이자 수행이다. 더구나 땅끝 해남의 산중사찰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이 이제는 완성단계에 이르러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스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누구라도 언제든 수행할 수 있는 수행센터'로 산중사찰의 모델을 세우는 것.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되면서 일반인의 참여가 늘고 있어 집중 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력할 예정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수행은 8일간의 단기출가로 격월로 진행된다.

8일이란 기간은 주 5일근무제 등 사회변화와 그동안 수련회를 통해 얻은 결론으로 수행효과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기간으로 보고 있다.

'결사' 정신으로 열린불교 구현

법상 스님 (강진 백련사 주지)



백련사는 강진불교대학, 룸비니어린이집 등 강진에서 유일하게 불교 교육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법상 스님은 그 기관들을 백련사가 운영한다기보다 지역불교계가 함께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스님이 추구하는 지역포교의 근간이다. 민중불교 운동의 발상지인 백련사 결사의 뜻이기도 하다.

사찰도 강진군민은 물론 누구나가 부담없이 쉬었다 가는 도량을 추구한다. 권위적이고 의식화된 불교보다 편한 불교, 이웃 같은 불교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경내에 있는 동백숲을 개방하고, 3월부터 지역민들의 문화충족을 위해 야외 주말극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다도회를 중심으로 야생차 밭에서 직접 차 잎을 따고, 제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 발효차를 개발해 시음중이다.

수행 정진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는 스님은 2002년부터 선방 무문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명의 수좌가 정진중이다.

농촌 사찰에서 소박한 포교

자황 스님 (해남 광보사 주지)



자황 스님의 포교공간인 광보사는 논길과 밭길이 교차하는 전형적인 농촌사찰이다. 스님은 "자연경관이 웅장한 산중사찰도, 문화재가 많은 관광지 사찰도 아니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찾는 이도 없다"고 판단, 지역민들이 사찰을 찾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참선, 요가, 명상, 다도체험을 매개로 연중 작은 수련회를 개최하고, 방학 때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집중 수련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가을엔 한해농사에 지친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제는 사찰이 서서히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스님은 또한 교회, 성당과의 교류를 통해 종교화합을 도모하고, 이웃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좀더 지역민과 친밀한 사찰이 되도록 하기위해 예배기도, 수련정진, 생활복지 공간으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도량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심인당, 지역 문화 중심지로"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 신년 인터뷰

올해 4월로 임기를 마치는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 효암 원장은 "26대 통리원장으로 재임하며, 회당 종조의 정신을 되살려 밀교중흥의 여건 조성에 진력해왔다"며 "새로 출범할 집행부가 현재 진행 중인 종단개혁을 마무리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

▲임기가 이제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26대 통리원장으로 재임하며,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종단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종단의 갈 길이 분명해지니 진언행자들의 자신감도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기가 3개월 남았습니다만 어떤 분이 통리원장을 맡더라도 종조님의 유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상봉안 문제 등은 종단내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사안이었습니다.

-종조님의 유법 10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불상봉안, 승려제도 복원 교육강화등의 작업에 나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일은 진각종과 밀교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기 때문에 시도한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원하는 의미가 큽니다. 불상봉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심인당 구조상 불상을 모시기는 힘듭니다만 영묘전이나 납골당등 특별한 곳에는 모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엄은 교법과 수행체계를 기본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수행승 제도의 도입도 시간의 문제입니다. 진각종에 원래부터 출가 독신수행자가 있었습니다. 1964년 구족계 수계식도 있었고, 삭발염의한 수행자들이 심인당에서 포교에 전념했었습니다. 6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바뀐 것입니다. 현재 반대하는 스승님들의 의식도 시간이 가면 바뀔 것으로 확신합니다.

▲진각종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는 본존불 지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단의 정체성 문제는 흥망성쇠와 직결됩니다. 원래 진각종의 본존은 육자진언과 비로자나불이었습니다. 65년 총지종과 분종하면서 육자진언만 본존으로 됐습니다. 진기 18년 종조열반 이전으로 환원하자는 것입니다. 초기교단의 어른 스승들의 말씀과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밀교의 중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행승 제도 도입 시간문제…문화재단 설립

巫 밀교종단과 '세계밀교도협의회' 구성 추진

▲올해 핵심사업으로 문화재단 설립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이제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종단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 진원지는 심인당이 될 것입니다. 심인당을 문화회관 개념으로 바꿀 것입니다. 지역사회 교육 문화 복지 사업과 연계되어야 주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인당이 독특한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단차원의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심인당들이 산하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불교문화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 자료개발 진언과 다라니 발굴등도 주요사업이 될 것입니다.

▲한국밀교의 세계화에 대한 계획은

-올해 스리랑카에 어린이 집을 건립하는 등 천천히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도 일본 중국 티베트 몽골의 밀교종단과 세계밀교도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입니다. 또 원래 조계종 원불교와 세계불교도우의회 창립에 기여했고, 초창기 가입된 3대종단이었습니다. 올해 8월에 열리는 세계불교도우의회 모임에 참가해 다시 가입할 계획입니다. 남인도에도 4월중 종단의 유학생을 파견해 수행토록 할 것입니다.

▲밀교의 홍보및 대중화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밀교의 대중화를 위해 밀교의 경서를 번역해 보급하고, 교리강좌를 통해 대중화하겠습니다. 또 뉴미디어시대에 발맞춰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하고, 경주 산내연수원에 이어 홍천에도 제2 수련원을 건립해 진언행자들의 교육 수행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 명상 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들과 진언행자들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불교계가 더욱 발전하고, 불자들의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불공기간동안 기원드렸습니다. 우리 종단은 2006년 창종 60년을 맞아 밀교 중흥종단으로 실천적 도약을 위해 문화 복지 불사를 통한 대중불교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정사는 이밖에도 4대성지 성역불사 지속, 납골당인 탑묘원 건립, 총본산 종합개발, 육자진언과 37존 신행의 대중적 전개, 사이버 포교지원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종단 발전 버팀목 되겠습니다"

인터뷰 진각종 총금강회 이상귀 회장



진각종 총금강회(총신도회) 이상귀 회장은 "신교도(신도)들이 각자가 다니는 지역 심인당에 모든 것을 집중하다보니 총금강회의 힘이 미약했다"며 "앞으로 종단과 함께 발전하는 금강회가 되도록 조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금강회는 그동안 진각종단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까?

-진각종 신교도들은 믿음에 따른 자신의 수행실천은 잘 해 왔으나 진각종 전체 차원에서의 변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따라서 총금강회가 그동안 일궈온 뚜렷한 사업이라면 4년 전부터 지역별로 개최해 온 '한마음 체육대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총금강회 명칭을 '대한불교진각종 전국신도회'로 새롭게 변경하고 개별 심인당의 신교도 조직 활성화를 통해 진각종단을 대표하는 신도회 조직으로서의 질적 발전을 꾀할 것입니다.

▲총금강회의 조직은 어떻게 갖춰져 있습니까?

-전국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주, 포항 등 6개 지부가 있고 지부를 대표하는 지부장이 있습니다. 또 각 지부에는 지역별로 심인당이 있고 신교도를 대표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또 신교도들의 수에 따라 대의원을 두고 있는데 지부장 선출권과 총금강회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금강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까?

-먼저 금강회와 종단이 마음을 열고 종단 발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격월로 개최되는 총금강회 회의에 통리원장을 비롯한 종단의 어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금강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에도 신경을 쓸 것입니다.

또 신교도 한사람 한사람이 교육을 통해 신앙심을 새롭게 고취시키고 포교사업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미 통리원 포교부에서 신교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총금강회가 나서서 포교, 교육, 봉사, 복지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참신한 사업계획들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교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신심이 돈독해야합니다. 자기 마음을 비워내고 실천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봅니다. 종단은 진리가 있기에 발전하고 스승은 법을 전하는 분입니다. 또 우리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잘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치않는 종지와 애종심으로 각각 출석하는 심인당 발전과 종단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겠습니다.

대구= 배지선 기자

불단장엄 시범시행 후 확대

총지종, 전국에 만다라 봉안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이 종단 불교의식을 시대에 맞게 바꿔나간다.

총지종은 1월 13일 서울 총지사에서 승단총회를 개최하고 불단장엄, 만다라 전국사원 봉안, 의식과 의궤 개편 등 안건에 대한 토의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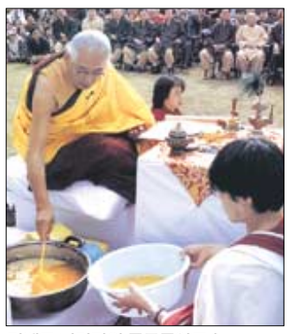
총지종은 이날 총회에서 먼저 한 개의 사원을 선정해 불단장엄을 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해 점차적으로 전국사원에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불단장엄 문제는 종단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 만큼 전체 총지종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불상봉안 등에 대해서는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불단장엄의 일환으로 전국 사원에 만다라를 봉안하는 문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총지종은 2년 전부터 총본사 총지사에 금강계 만다라 등을 봉안했으나, 종령의 잇따른 열반으로 이 일은 그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총지종은 앞으로 공식불공 첫째시간 항마염송, 불공시간 단축, 다양한 불사 의궤 개발 등 불교의식 개혁도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총지종의 이와 같은 불교의식 개혁 방안 마련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화활성화 방안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강유신 기자


총지종은 1월13일 총지사에서 승단총회를 개최했다.

세계밀교의식 한눈에
진각종 '밀교의…' 펴내


티베트 닝마파의 공물공양모습.

세계의 밀교의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화보집 <밀교의 호마와 관정>이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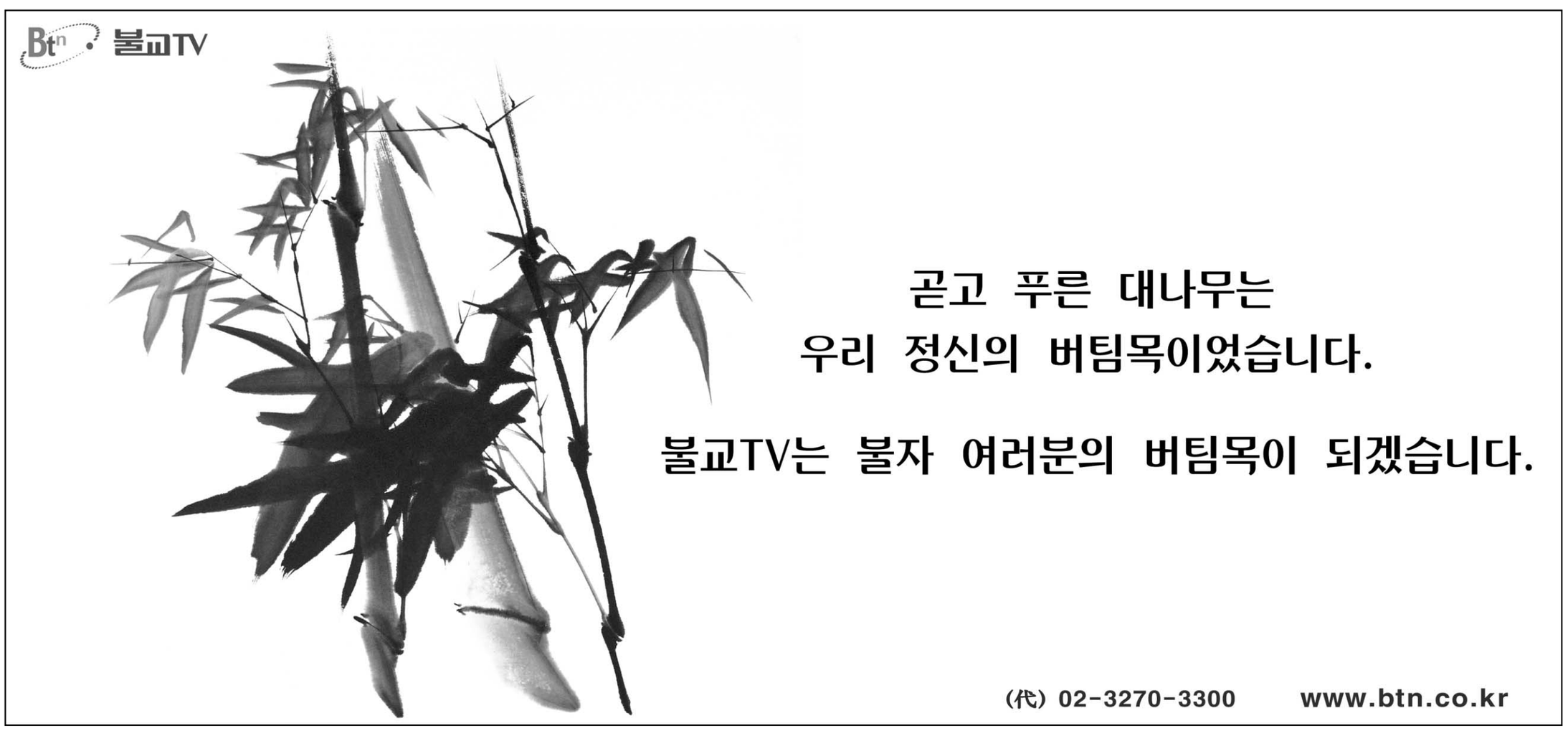
진각종 교육원장 혜정 정사가 감수하고, 진각대학 허일범 교수가 해설을 붙여 화보집으로 펴낸 <밀교의 호마와 관정>은 한국 티베트 몽골 일본 등지의 밀교의식중 기도성격이 강한 호마행법과 법회 성격이 강한 관정의식이 소개돼 있다.

진각종이 2002년 10월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총인원에서 연 세계밀교의식 시연법회를 정리한 이 화보집은 각국의 호마의식을 소개한 1부 의식부와 의식내용을 설명한 2부 해설부로 정리됐다. 진각종교육원 발행/3만원. 김원우 기자

법상종 총무원, 평택 유가사로 이전

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1월 13일 평택 유가사에서 총무원 이전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평택사암연합회장 겸 여래종 총무원장 법우, 안성 칠장사 주지 보광, 태고종 교육부장 동우 스님과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부원장 도일, 교육원장 무성, 연구원장 우공, 사회부장 일공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법상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법상종 종정 학감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모든 다툼을 쉬는 승의제는 일체의 찾아다님과 생각함과 모습을 초과하였네"라는 법어를 내렸다. 법상종은 2004년 12월 종단 법인인가를 획득,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밀려드는 환자… '희망' 이 특효약

해안선 복구에 집중, 구호 손길조차 못미치는 오지 피해민들 고통의 나날


조계종 의료봉사단장 지원 스님이 탕갈라 어린이에게 쌀을 전달하고 있다.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탕갈라 어린이들을 진료하는 모습.

조계종 · 동국대 스리랑카 지진해일 피해민 의료봉사 현장

주인을 잃은 무너진 집, 건물잔해가 널려있는 마을. 지진해일이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난 스리랑카는 사망자가 3만8천여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전쟁터 같은 참상을 그대로 안고 있다. 전국토의 75%에 해당하는 해안선이 피해를 입은 데다가 진행되는 복구활동이 도로나 기간시설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12일 조계종 의료구호봉사단(이하 의료봉사단)이 찾아간 스리랑카 탕갈라(Tangalle) 지역은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오지였다. 낙천적인 스리랑카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지진해일에 가족과 집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을…."

친구의 손에 이끌려 진료소를 찾은 마가와라(36 · 남)씨가 눈물을 보였다. 지진해일이 3살난 아들과 5살의 딸, 아내를 덮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손하나 쓸 수 없었다고 했다. 그를 진료소로 데려온 친구는 "이 친구가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멍하니 앉아있기만 한다"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의료진에게 애원했다.

5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스리랑카 남동부 함반토타(Hambantota)에서 만난 한 노인, 그에게서 짙은 절망이 배어났다.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진해일이 쓸고 간 것은 삶의 터전과 가족만이 아니다. 삶의 의지도 앗아가 버렸다. 그들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황망할 뿐이었다.

지진해일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조계종은 종단 사상 처음으로 해외 구호활동에 나섰다. 해일로 남편과 아내, 아이를 잃은 스리랑카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함이었다. 진료에 앞서 열린 개소식에서 공동단장 지원 스님(사회부장)과 진원 스님(호법부장)을 비롯한 조계종 의료봉사단원들은 베푼다는 마음을 여읜 자비보살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1월 16일, 215명의 이재민이 임시거처로 사용하고 있는 탕갈라 공립학교에 임시진료소로 쓰일 천막이 세워지고 한국에서 공수해간 구호물품도 교실 한 켠에 차곡차곡 쌓였다. 내과, 외과, 소아과, 피부과로 나누어 한 · 양방 협진으로 첫 진료가 시작되자,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밀려들었다. 눈에 기대를 가득 머금은 채였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맨발로 진료소를 찾아온 자야쿠루(27 · 남)씨는 정강이뼈가 다 보일 만큼 곪은 상처를 내밀었다. "거대한 파도를 본 순간 무작정 뒤로 뛰었죠.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봉사단, 30도 넘는 기온 속 진료 · 구호활동 구슬 땀

지진해일을 피해 달리다가 생긴 상처였다. 치료를 맡은 최정화 간호사는 비오 듯 쏟아지는 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스레 상처를 어루만졌다.

조계종 의료봉사단은 탕갈라와 함반토타에서 1주일동안 내내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까지 진료해야할 지경이었다. 점심시간도 따로 내지못해 2개조로 나누어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조계종 의료봉사단은 기간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이동석 소아과 전문의(경주병원 불자회장)는 "의료인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또 종단을 대표한 봉사단 일원으로서 어려운 이들과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하다"고 했다.

70% 이상이 불교인 현지 주민들은 한국을 불교국으로 기억했다. 조계종 의료봉사단에도 숙소와 진료장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 보다 의료봉사단을 먼저 배려하며 친절을 베풀었다.

조계종 의료봉사단의 거처였던 해양기술대학 기숙사에는 봉사단을 돕는 현지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이었다. 한국어 통역 봉사를 한 스리랑카인 만줄라(30 · 남)씨는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와 준 한국의 불자들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탕갈라와 함반토타에서 조계종 의료봉사단 이야기는 화제가 됐다. 소식은 입에서 입을 타고 빠르게 전해졌다. 그들이 조계종 의료봉사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말 뿐이었다. 이야기로라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속에는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처럼 때묻지 않은 순박함이 살아 있었다.

그래서일까. 진료소에서 만난 이재민과 현지주민들의 눈빛은 기대로 가득했다. 그들은 구호의 손길에서 어쩌면 희망을 떠올렸지도 모른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희망까지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부단장으로 참가한 조계종 사회국장 인오 스님은 "이번 구호활동은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한국불교와 한국인에 대한 믿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긴급재난에 대비한 종단기구의 필요성을 과제로 안겨주었다"고 말한다. 조계종 의료봉사단은 짧은 시간동안, 준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얻은 셈이다.

글 · 사진/스리랑카=박봉영 기자


30도를 웃도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의료봉사단을 찾은 스리랑카 탕갈라 주민들.


진품 달마도 액자*규격 :44cm X 54cm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재수대집 *소원성취
*Fe 나뭇모금+승금모금


*속뜨지액자
*소재:아크릴액자+pp금장


*달마도액자


*달마대도 *찾반:만사형통부 *건강부
*소재: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 격 :75mm X 50mm


*소원성취 *재수대집
*벚소아이 핸드폰고리
*소재:벚소아이+승금모금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 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진품액자 +열쇠고리+휴대폰줄+
달마카드 + 탁상액 자
9개(1세트)가격98,000원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적극 권해드리고 싶으신 분..
*삼재가 드신 분 *건강이 나쁘신 분
*사업 하시는 분 *이사 가시는 분
*각종 시험을 준비 하시는 분
*집안의 사형통을 기원 하시는 분

구입문의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SHOP
051-806-5587

*입금계좌(정정애)
*농협 :949-02-315451


청운 스님 약력
*대한천문풍수명리 성명협회 대구지부장
*평화불교대학 중앙이사
*대한불교 법사단 자비 봉사회 사무총장
*티베트 승왕으로불교대상 수료
*대한불교 조계종광혜정사 주지
*한국불교 태고종 보경사 주지
*장애인 재활 모임체 초심의 집 복지원장
*現 대한불교 曹조계종 만복사 주지

e카페 가서 공부할까? 수다떨까?

바쁜 일과로 업무에 찌들어 살면서도 인터넷의 바다를 끝없이 헤매는 수많은 직장인들. 공통의 관심사와 재미가 없다면 서핑에 서핑을 연속하는 그들의 발길을 잡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속에도 일터불자들이 의기투합해 만들어 나가는 그들만의 세상 'e카페'가 있다. 'e카페'는 직급과 나이를 따지지 않고 불심을 키워 나가는 나눔의 공간이요 직장생활에 감춰진 끼를 발산하는 자유로운 무대다.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으면서 스스럼없이 마음을 터놓고 함께 공감하는 그들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일터불자가 즐겨찾는 'e카페'들



그림 · 박구원

직업 · 직급 · 나이 불문 누구나 '도반'
신행정보는 기본… 음악과 웃음 가득

직장불교
cafe.daum.net/officebuddha

직업이나 직급, 나이, 성에 관계없이 일터불자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카페. '카페 직장불교(cafe.daum.net/officebuddha)'를 정의한 말이다. 개설 1년만에 회원이 1300여 명으로 늘어나 일터불자들이 모이는 카페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을 자랑한다.

하루에 카페를 찾는 방문자는 평균 500여 명. 불교를 주제로 한 카페에서도 방문자수가 손에 꼽힐 만큼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는 셈이다. '직장불교'가 이만한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유용한 정보에 재미와 감동을 더한 내용으로 꾸며졌기 때문이다.

각종 경전 해설을 비롯해 불교 사진, 영상, 교리 등 풍부한 불교관련 자료는 찾는 이로 하여금 반가움을 선사한다. 여기에 시사성 있는 감동의 이야기와 웃음거리가 있으니 시간에 쫓기는 일터불자들은 이 곳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

또 카페 '직장불교'에서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나 딱딱한 내용만 가득한 무례함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유용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인사를 전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다방향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갖췄다. 매일 좋은 경구와 인사를 나누는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매우 활발히 이뤄진다. 일례로, 매일 새로운 경구가 업데이트되는 '출석 확인'란의 글에 달리는 댓글은 40~50개 정도다. 많을 때는 60개를 훌쩍 넘긴다.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날마다좋은날 부처님나라
myhome.hanafos.com/~budsong

한국철도공사 불교단체협의회(이하 철불협)의 공식홈페이지인 '날마다 좋은날 부처님나라(myhome.hanafos.com/~budsong)'는 철불협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철불협 게시판은 불교계 소식과 철불협 공지, 단위철도역사 불자회의 법회 소식 등이 빼곡히 적혀 있다.

방문객 수만 18만 명을 바라보는 날마다좋은날의 인기비결은 철불협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들의 발길을 잡는 많은 자료에 있다. '경전방'에는 법구경, 금강경, 아미타경 등을 한문경전과 우리말로 수록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 '연꽃방'에는 초보불자들에게 필요한 불자예절이나 불교상식 뿐만 아니라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처님말씀이 가득하다.

자료실에는 경전 외에 선시, 불교미술, 음악감상 코너도 마련돼 있다. 운영자와 회원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홈페이지 자료실은 이곳을 들르는 사람들이 건네는 "부처님 나라에서 편히 쉬다갑니다"라는 인사가 빈말이 아님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cafe.daum.net/tbuddha

전국교사불자연합회(cafe.daum.net/tbuddha)는 전국 각 시 · 도 교사불자연합회 지부가 한 곳에 모여 활동하고 있는 카페다. 전국 여섯 개 지부로 나뉘어 따로 운영되는 카페 게시판에서는 각 지역 회원들간의 가벼운 안부인사에서 회원동정, 지역불교 행사일정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

전국단위 연합카페인 만큼 일상의 단상이나 추억담을 나누는 세심함은 부족한 편이지만, 학교에서 불교반을 운영할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이나 학생들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짧은 영어 경구도 알 수 있는 교사불자들의 모임이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여름 · 겨울 방학을 이용해 수련회를 꾸준히 개최해왔다. 올해에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 불사리탑에서 겨울수련회를 열었다. '절을 기차게 잘 하는 법'으로 유명한 청견 스님을 초청해, 호흡에 맞춰하는 '절 교육'과 자동단전호흡법인 '부처님 호흡법'을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다.

GM창원 불교법우회
cafe.daum.net/GMBUDDHA

GM창원 불교법우회(cafe.daum.net/GMBUDDHA)는 창원GM대우에서 일하는 불자들의 온라인 모임으로 지난해 문을 열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미 회원수가 200명을 넘어선 '중견' 카페다.

우선 대문에 들어서면 불교법우회 회원들의 따뜻한 한마디가 회원들을 맞이한다. "경남지역에 눈이 많이 왔네요. 법우님들 안전운행하십시요."(ID 오명균)을 비롯해 새해인사도 적혀있다. 또 회원들은 불교상식, 큰스님 법문, 염불 한마당 코너에서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도 하고, 불교지식을 공유하며 불심을 키워간다.

GM창원 불교법우회는 사내 불자모임인 만큼 온라인의 단편적 인간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오프라인 상의 활동도 활발하다. 특히 노인요양원과 재가센터가 있는 보현행원 자원봉사는 회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봉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
cafe.daum.net/ssbwh

'지루하지 않은 e카페,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cafe.daum.net/ssbwh).' 하루종일 땅 밑에서 일해야 하는 지하철불자들의 인터넷 카페다. 문턱에 들어서면 티벳어로 독경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와 <금강경> '사구게'가 오는 이를 맞는다.

모임터의 기본코너인 공지사항과 인사, 자유게시판을 포함해 수행법, 신행, 경전, 음악 등 15종류의 메뉴를 갖췄다. 회원들의 발길을 잡는 메뉴는 지루함을 떨쳐내기 위해 불교와 관련이 없는 태그와 디카, 웃음, 생활정보, 건강 코너. 17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지하철불자 카페의 인기비결이다.

카페에서는 법우회의 의식법요집과 장엄물, 수행법 등 지하철불자들의 신행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자료실과 앨범에는 2002년 이후 법우회의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다. 게시판에는 불교 종단과 언론사, 관련단체 등의 사이트를 친절하게 안내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중앙경찰학교 법우회

중앙경찰학교는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매년 전 · 의경 2만 5천명을 비롯해 신임경찰관 3천여명을 교육하는 훈련기관입니다. 전 · 의경은 이 곳에서 경찰 보조업무 교육을 2~3주간 받고, 신임 경찰관은 6개월간의 교육을 거친 뒤 전국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1999년 창립된 중앙경찰학교 법우회(회장 이종진)는 당시 법주사 여기에 매년 한차례씩 천년고찰을 찾아 수행과 실참을 익히는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적보사 법회는 2주~6개월 간격으로 참석자가 바뀌기 때문에 기초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포교의 황금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3만여명에 달하는 경찰들이 이곳에서 배운 지식으로 일선에 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공의 안녕 등을


매년 3만여명의 전 · 의경, 신임경찰을 배출하는 중앙경찰학교의 법당 적보사는 법회 때마다 80여명의 불자들로 가득차 발디딜 틈이 없다.

매주 법회 운영하며 '불심단속' 철저
기초교리 위주 공부… 단기출가 체험도

주지 혜광 스님과 봉사단체인 충주소명회 등 주변 불자님들의 도움으로 35평 크기의 법당(적보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인근 사찰의 스님들을 초빙해 법당에서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법회 때마다 교육생 80여명이 법당에 꽉 들어차 신심을 다지는 모습을 보면서 경찰불교의 희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현재 적보사 법회는 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과, 충주 혜원정사 주지 혜원 스님, 충주 연수암 주지 청호 스님 등이 주관해 열리고 있으며, 매주 소명회 회원들이 참석해 경찰불자들의 사기진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우회의 특징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젊은 예비경찰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보사의 교육 커리큘럼은 '종교를 왜 믿어야 하고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와 같은 기본적인 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경찰업무 특성상 대민접촉이 많은 경찰에 대한 포교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불교계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 상주하는 경찰불자가 40여명에 달하지만, 활동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적보사에 상주하는 스님이 없어 신앙상담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의 경우, 침례교회 주관으로 경목을 상주시키고 신앙상담과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종단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법우회 회원들은 앞으로 이곳에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몸에 익혀 일선 경찰서에서 이웃과 함께 하고 불교를 널리 전하는 청년불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성불합시다.

■길태현 총무(총무과 공보담당)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자광스님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영가 천도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두암말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을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람을 놀라게 하기고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무기와 번뇌의 마음을 무념과 반야로 바꾸는 수행방법과 수행단계

부산 법기불교대학 제6기 모집

바른수행과 바른깨침의 길을 제시하는 부산 법기불교대학이 제 6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자예절, 기초교리에서부터 불교의 핵심인 참선수행에 이르기까지를 강의와 수행지도, 점검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법기불교대학 제 6기 과정에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산법기불교대학 강의 일정]

차례	강 의 내 용
1강	입재, 불교바로보기 / 사찰의례 (삼귀의, 사홍서원, 전각·법당, 사찰예절, 합장, 절하는법, 예불문), 108배
2강	중생의 마음 (무기·번뇌, 가아·진아) / 친목의 시간
3강	수행방법 (관법과 염법) / 법담 나누기
4강	요처수행(산행)
5강	기초교리 (4성제8정도, 3법인, 5온, 12처18계, 연기법) / 호흡점검
6강	삼매와 삼매관성, 경계와 법, 업장소멸의 원리 / 선배의 수행경험담
7강	|토요일|철야정진 / 상기의 극복(멜로디), 지식호흡과 반지식호흡
8강	수행자의 건강관리 / 반별 법담 (도반의 수행담)
9강	좌선과 행선 (1시간) / 수행단계와 수행방법
10강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돈오, 무념, 반야, 삼신불) / 이근관, 안근관, 호흡점검
11강	봉사활동
12강	기복불교, 북방불교, 남방불교의 비교분석 / 멜로디 연습
13강	불교상식 바로 알기 / 설문조사, 발원(정근)
14강	수료식 / 선지식 법문

[개강]
· 주간반 : 2005년 2월 15일(화요일) (오후 2:00 - 4:00)
· 야간반 : 2005년 2월 16일(수요일) (오후 7:30 -9:30)

[접수]
· 부산법기선원 (T.051-516-9104)
· www.bubkisa.or.kr (한글도메인 '법기사')

[수강료]
· 총 95,000원 (교재비 포함)

*서울선원 법회일정은 02-854-18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UBKI BUDDHIST TEMPLE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기선원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가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본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채 요가지도자 용

- 지원자격 : 1. 2004년도 4년제 대학 졸업자 or 2005년도 졸업예정자로서 요가 수련 경험이 없어도 심신이 건강한자 지원가능
  2. 대구 지역 근무 가능한자
- 제출서류 :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주민등록등본
  4. 재적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 접수기간 : 2004. 12. 10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인통보 면접

※ 이메일접수 : albong99@hanmail.net

휘트니스 요가원 대구시 중구 포정동

영남범음범패
천도재 49재 수륙재
바라 · 나비무 회심곡 호적
행사해 드립니다
학인스님 모집. 부산범음범패연수원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 (한티재)
010-4816-6454

천연황토방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황토
발명특허 제0300446호
041)663-4977
041)663-778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 안 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영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육임역학 비법 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1)245-8575
053)551-1356(011-1763-3567)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70만원/카무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행자 모심
스님이 되실분(남,녀)
동자환영
경북 칠곡군 자천면 황룡사
054)972-3174
011-9942-2472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5세 미만
031)706-7766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전
011-9484-7733

가평잣
650g ⇨ 25,000원
농협 204039-56-036735 조금희
경기도 가평군 산면 임초리 332번지
010-3005-2865

불상과 탱화 보시받습니다
암자를 새로 조성하고 아직 불보살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 기회에 불자님께서 무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정토사 주지 법현합장
010-3943-0733

사무원(女) 모십니다
불심있는 분으로
업무보조 가능하신 분
(나이제한 없음)
한국불교금강선원(청량리)
02)969-24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천시내
011-781-3513

행자, 종무원, 공양주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
011-9150-9190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동대문근교. 60세이상
010-6283-109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모십니다
▷지리산 (50~60대)
50대미만 전화사절
011-483-5639

사찰 승합차 운전기사모집
1종보통소지 · 50세이상
성남시 남한산성소재
숙식가능
011-264-8312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연락바랍니다
▷40대초반 비구승
010-2727-1248

사천왕상을 모십니다
용화사는 미륵존불 자비신앙 도량입니다
불사에 도움주실 인연있는 불자님 소원성취 기원
경북 예천군읍 동본리 165-1 용 화 사
054)654-4925, 654-7030 / 011-758-1819

인연을 찾습니다
불심이 돈독한
45~55세 사이의
여불자님 인연 찾습니다
054)862-8787

조용한 암자에서 수행기도 하실 비구스님 모십니다
041)864-9143
011-392-6885

빌딩관리구함
깔끔하고 부지런한 불자원함
남. 65세까지 가능 (월80만원)
근무시간 : 8시~19시(월~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02)3477-9002

기도스님 모십니다
051)542-4848

조계종 부산 포교당에서 작년에 이틀간 복장식과 점안식을 한 장엄한 부처님 다섯분을 적당한 사례금으로 모셔갈 스님을 찾습니다.
연락처 : 부산 설법원
051)441-1430
내원암 054)653-1180

빌딩관리구함
깔끔하고 부지런한 불자원함
남. 65세까지 가능 (월80만원)
근무시간 : 8시~19시(월~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02)3477-9002

불상(급)안내
지장대불을 모실분을 찾습니다
- 위치 : 경북
- 높이(좌대포함)23석자 한세트(옥촛대, 향로, 다기) 초꽂이 180개
- 대불조성비용 5500만원(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010-4525-9095

이십팔숙 특별지도
- 역술과 이십팔숙의 특수비법을 쉽게 설명
  불설 28숙은 모든 역술을 총괄하는 비법이며 이것을 모르고는 역술을 논할 수 없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지도 : 대주스님

☎ 02)926-1259 / 011-741-0867

운세 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똑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송암 범음대학 단기반 학인모집
2005년 1월 11일 ~ 1월 20일까지(10일간)
대령 · 관욕 · 불공 · 시식 등
단기 속성반 10일간 교육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가 85호 보화당 한의원 옆 3층
063)643-6619, H · P 011-9454-6619(종산스님)

눈 임시 가격인하
눈 전문 특수영양식품
눈에 좋은 물질특허성분 함유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
일본성인병예방협회 추천제품
눈밝은 세상 (02)2237-8004



요사채 건축공사 및 내부시설공사 전문
1.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
2. 증축 확장 개보수 공사
3. 보일러 설비 및 위생배관 공사
4. 전기 공사
5. 샷시 창호 공사
6. 미장 방수 공사

불심으로 봉사하는 여일 종합 건축 공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12-22 대표 윤재만
TEL. 02)476-8139 H P. 011-9720-1443

(주)해피세븐 www.hansmall.co.kr



꿀벌이 만들어 낸 천연건강식품
독일 직수입 아가드 프로폴리스
효능) 강력한 천연 항생, 항균작용
간장기능의 활동성을 높여주는
천연의 항산화제
02-521-0648 / 011-241-6822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 22일(화), 24일(목)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 체계적인 교육
▶주 · 야간반 선착순
- 3월 22일(화)-주간반, 24일(목)
- 주 · 야간반 각 요일 선택. 주 1회
- 불교 TV 금강경강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큰스님들의 특별 법문
- 인터넷방송국,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출가 학교 및 행자 모집
문의 : 011-9852-0075 충무스님
문의-대구큰절: (053)474-8228,
경산도량: 811-0337, 칠곡도량: 312-8221
인터넷 홈페이지 : www.TVbuddha.co.kr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만삼달인 물(만삼 생것 10kg · 황기 · 잔대 · 삼지구엽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 (60포 : 20만원) ● 2Box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무료 역학대 특강

희망찬 을유년을 맞이하여 본 학원 강의 전과목을 무료로 실시 합니다.

강의과목	• 명리학 육효학 자미두수 관상 • 이론과 실전 비법전수

초단기 전문가 양성 시스템
전문 역술가, 전문 역학 강사, 문화센타 강사 육성
※ 100% 전원 취업보장

한국 전통과학 아카데미

전화문의	02)929-4646, 4643 HP 018-350-7150
위 치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5번출구 30m

홈페이지 : KTSA.CO.KR

탈종공고

- 사찰명 : 금 덕 암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202
- 주지명 : 도 원(홍금자)
- 승려번호 : 082-0029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5. 1. 15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포교당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강북
- 법당 요사 : 60평
- 임대료 : 480/55
- 시설비 : 1200만
- 위치 : 전남
- 법당 : 25평
- 요사 : 25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3억8천
- 위치 : 전북
- 법당 요사 : 40평
- 삼성각 : 3평
- 부지 : 311평
- 가액 : 2억6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절터: 종로10억(2000평 집90평) 청계산5억(150 집60평) 천안4억(8070평) 남양주4억5천(2500평) 평창5억3천(5300평) 서산1억(14000평) 양평10억(55000평) 가평1억7천(8300평)
- 사찰-서울: 1억, 3억, 7억, 4억2천 4억5천, 6억5천. 경기: 9억, 9억5천, 5억5천 음성: 1억5천 서산: 6억 대전: 5억 울산: 4억5천. 그외 사찰터 多 공양주 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경북대 후문) 대로변
- 평수 : 신축 건물 130평,주차장 완비 (5층 중 4 ~ 5층)엘리베이터
-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40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및 사천왕 탱화 500옥불 인등, 방7개, 화장실 5개, 일제 시스템 에어콘, 무선앰프 집기류 일체
- 가액 : 전세 2억 1천만원 시설비 1억 4천만원

※ 최적의 포교중심지. 몸만 오시면 됨
053)959-049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소재 (시내 5분거리)
- 부지 : 200평, 주차장완비
- 법당,산신,요사,별채,용왕당
- 가액 : 2억 9천만원
- 특징 : 석불7m 조성 (융자 3천 5백만원)

010-4547-3020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사 찰 안 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요사 : 23평, 산신각
-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월동
- 교통편 : 버스정류장 2분 전철(2,5호선 8분거리)대도로변
- 평수 : 52평 5층건물 중(2층전세)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 : 즉시법회(완벽). 법당, 공양실 (30명), 사무실, 접견실, 주차장, 스님사무실, 스님방(샤워실, 화장실)
- 답사 후 시설비 결정

02)2699-7637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 동구 반어동
- 평수 : 120평 2층건물, 슬라브건물3채 사찰앞 도로 8m지점
- 가액 : 2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30-503-2412
011-1755-241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 법당(목조) 12평
- 요사(벽돌) 25평
- 가액 : 9천만원

016-652-7547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 약 40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 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400만원
- 덕산온천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018-601-3389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계면
- 대지 : 150평
- 건물 : 35평
- 가액 : 1억 6천
- 뒤는 산밑이며, 앞은 4차선 도로임
- 위치 : 서울대역 지하철역
- 법당 : 35평
- 요사 : 방1개
- 보증금 : 1천만원에 월 70만원 시설비 : 방문후 결정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55)323-2858
011-9542-5726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감전동 부근
- 총 40평 (공양간, 방3개)
- 감전 지하철 역에서 5분거리
-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500만원 월세 25만원

011-813-8806
051)327-9022

포교당(급)안내
- 위치: 울산 남구 인구밀집지역
- 2층건물 중 2층 (32평)
- 건물 (시설) : 법당 15평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016-640-8133

사찰안내
- 위치: 경남통영시내
- 법당, 요사 2채, 화장실
- 가액: 보증금 없음 월 20만원 시설비 2500만원 답사 후 절충

010-6355-6397

도심 포교원안내 (전세)
- 위치: 김포시내, 중앙승가대학교 5분거리,김포신도시확정지구인접
- 외형 : 3층 중 3층 / 총 55평
- 내형: 법당원목상단 및 운곽, 지장호신동 216불, 후불탱화 50평, 큰방2개, 영가단-방1별도, 전체보일러/108명분 집기
- 스리랑카불교이주노동자-월례법회
- 가액: 전세4천/시설비2천

031)986-2335 / 011-820-1500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근교
- 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30평
- 가액 : 1억 7천
- 한척한 외딴 암자
- 위치: 부산 근교
- 부지 : 3천평
- 법당 : 24평
- 요사채 : 50평
- 가액 : 4억 8천
- 여법한 근교암자
- 위치 : 진주 근교
- 부지 : 4천평
- 법당 : 50평
- 요사채 : 100평
- 가액 : 8억
- 버스진입 대형사찰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5)383-0023 /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dongmuen.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청 옆
- 대지 : 310평
- 건물 : 3층건물 1동 100평, 슬라브 기와 1동 45평, 부속 건물 1동 10평 (소나무 조경 및 그림같은 포교당)
- 가액 : 8억 5천만원

010-4876-5535
011-584-4418

암자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학장동(대로50m)
- 구조 : 단층 건물 독채(아파트 밀집지)
- 시설 : 법당(석가,관음,지장,후불탱화, 신중탱화,약사불탱화,인등설치,영가단)
- 승방, 거실, 주방, 창고 산신당, 세면장, 수세식 화장실2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15만원 시설비 : 2500만원(즉시법회가능)

011-768-1355

최고급 휴양지(암자,사찰터) 시골에서 노후를 보내실분
- 위치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내야경(5분거리), 국도옆, 전원주택지
- 면적 : 2100평(자연녹지) 현재 밭으로 사용
- 농가주택 : 1동 청고 1동
- 가액 : 평당 12만원

019-484-545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양평읍내
- 대지 : 26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5평
- 가액 : 2억 7천만원
- 양평읍내 10분거리 산밑 별장임

010-8678-1322

포교당(급)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2층. 50평
- 삼존불, 각단 후불탱화, 지장전, 법당18평, 큰방 2개, 주방, 화장실 따로.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약간의 시주금으로 평생절에서 기도하며 함께 지내실 분을 모십니다

016-261-2068

포교원안내
- 위치: 김포시내, 중앙승가대학교 오분거리,현재 4학년 졸업반
- 평수: 3층중 3층 / 55평
- 특징: 큰방2 영가단-방1별도 108명분집기, 최고급불기 스님방에어컨, 전체보일러
- 스리랑카불교이주노동자월례법회
- 법당: 원목상단, 후불탱화/50평 지장호신동불 216불
- 가액: 전세4천/시설비2천/합6천

011-820-150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려3동
- 전세 5천만원 또는 3천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삼존불, 산신탱화, 원불, 용궁탱화, 신중탱화
- 시설일체

011-9556-8413
010-8623-9234

사찰 안내
- 위치: 밀양시 얼음골
- 총평수 : 전답 임 포함 약 3천7백평
- 가액 : 15억. 현주위시세 평당 30만원

※ 명산,계곡절경,등산객 피서객 항상 많음

011-4876-5535

모십니다
사찰건립에 동참할분 (소자 본투자)
- 사찰위치 : 경주 (환경위치 대단히 좋습니다)
- 현재사찰규모 : 대지임야 5000평, 법당요사채 300평)
- 현재 운영중인 사찰

010-7270-6766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시내 2층건물2층(법당,주방,화장실) 옥상(큰방1,원장실1) 30평
- 전세 : 500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 시설완비, 에어컨등, 가전제품 일체, 삼존불 봉안, 즉시법회가능

292-3131
017-841-4869

포교당 안내
- 위치 : 목동 4거리 남부시장옆 3층건물 3층
- 53평(법당,방2,주방1,목욕탕, 베란다)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보증금 2천5백만원,월 50만원 시설비 2천8백만원

02)2645-4200
011-621-9216

포교원안내
- 위치 : 중랑구 면목3동 사가정 전철역 5분거리
- 건물1층, 15평~20평
- 법당, 방2개,주방, 화장실
- 보증금 (시설비포함) 1300만원, 월 70만원

016-9511-0840

토굴안내
- 위치 : 충남보령 외곽지역
- 대지 : 270평
- 건물 : 조립식 15평, 스레트 건물 15평,
- 정남향 포근하고 아늑한 기도도량 특히 법사님, 비구니스님, 보살님께 최적의 장소, 자세한건 전화요망

011-526-1824

사찰안내
- 위치 : 경북시내지역
- 대지 : 350평
- 시설 : 집기일체 양도함
- 특징 : 시내가 한눈에 보임
- 가액 : 보증금 1억 500만원 융자안고 양도 可

018-541-1890

사찰안내
- 위치 : 대전시 가야동 2층건물
- 불기 살림 일체
- 보증금 : 1천만원에 월 45만원 시설비 일체 1천 5백만원
- 시내버스에 광고중 (역술은 전적으로 하는 곳)
- 스님 신병관계상 급히 양도코저 함

011-806-8467

포교원안내
- 위치: 하남시 덕풍동 (신장 4거리)
- 법당1,방3개,주방1,화장실1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3663-2754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500만원

011-9238-9960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대지 : 250평
- 구조 : 법당 40평 요사채 40평
- 은행융자 : 3억원
- 가액 : 8억원(절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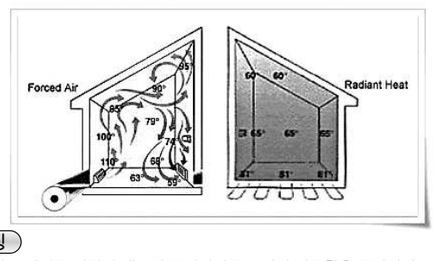
011-584-129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일반주택 사찰)
- 대지: 160평 ● 건물(시설): 36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답사 후 가격 절충 可)

019-503-7959

원적외선 사찰 난방

원적외선 웰빙 난방으로 구도에 정진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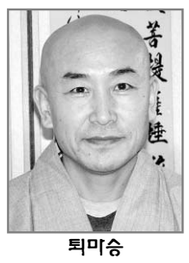
특 징
1. 원적외선 복사열로 바닥과 내부의 공기까지도 봄날의 따뜻함을 드립니다.
2. 바닥이나 벽면의 기존시설을 손대지 않고 바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3. 기름값 대비 50% 가까이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4. 원적외선 난방으로 공기가 탁하지 않고 깨끗합니다.
5. 전자파가 없고 부분난방이 가능하며, 합선과 화재위험이 없습니다.
6. 유지관리 비용과 A/S도 거의 불필요한 제품입니다.
7. 환경 친화적 소재이며 반영구적 수명인 차세대 난방 시스템입니다.
8. 불시 신축, 증축, 개축시 난방공사 상담 환영합니다.

설치장소
사찰, 포교원, 수련원, 기도원, 강당, 문화재관리실, 방갈로, 펜션, 오피스텔, 아파트베란다, 기숙사, 고시원, 황토방, 찜질방,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음식점, 지료 및 입원실, 콘테이너하우스, 숙직실, 옥탑방, 전원주택.....

시 공 처
통도사 백운암(법당, 요사채), **변산반도 월명암**(법당), **정선 불암사**(요사채), **대구 청계사**(요사채), **서울시 문화재 2호 봉황각**(수련원), **유교문화원**, **서울 불광사**(다항원), **북한산 삼봉사**(주지실, 요사채, 공양실), **포천 장안사 천도교 서울 총구 수련원**(서울 문화재 36호), **가평 불광사**(요사채)

고정협찬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웰빙코리아 http://www.wbkor.co.kr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33층 3304호 H·P 011-719-9716 전화 02)538-8489, 551-3010, 2661-6711



퇴마승

영혼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짓은 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등등이 마음에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 합니다.

영 가	빙 의 현 상 (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유산,자연)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오랜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시고 찾아오십시요.
빙의현상, 가정우환, 기타 깨끗이 치료됩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지장재일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부곡동
- 평수: 42평, 빌라트상가건물 2층
- 부산대학교 지하철역에서 200m
- 가액 : 전세 2천만원에 월 70만원 시설비 1천 5백만원

051)517-8018
010-4802-801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묵2동
- 평수 : 30평, 방, 화장실 삼존불 모든집기일체
- 고급단청 되있음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800만원 절충가능

02)972-3123
011-9093-8766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왜관
- 대지 : 260평
- 건물 43평 2채
- 상태 : A급, 기도처로 최적, 정남향
- 가액 : 9500만원

011-522-4896

포교원안내
- 위치: 수원시 장안구
- 3층건물 중 3층. 70평
- 내부시설 A급
- 가액: 1천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6304-0036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 엄광사
- 법당에 부처님 10분, 후불탱화, 산신탱화, 용궁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지장탱화
- 가액 : 1억3천만원

011-824-593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 법당 : 40평
- 특징 : 옥상시설 사용 13평, 판넬
- 보증금 : 1천만원 월 40만원

053)957-9551
011-398-980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신림1동 신림시장 입구(상가 2층) 신림전철역 5분거리
- 법당30평,방2개,주방,실내화장실
- 집기일체 완비
- 가액 : 보증금 3천 5백만원,월55만원
- A급 시설비(집기포함) 1천만원 (절충가능)

02)830-3803.3804
011-895-7150

사찰안내
- 위치 : 충남(온양에서 20분거리)
- 평수 : 사용평수 200평(대지48평)
- 건물 : 법당1동, 산신각1동 요사채1동, 방3개, 주방, 방1개
- 가액 : 4천만원

※ 스님이 사정상 급히 지방으로 이주하는 관계로 저렴하게 인연이 되실분 찾습니다

041-841-3090
017-337-416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대동면
- 대지 : 170평, 건물 40평 (대웅전, 요사채, 행랑)
- 가액 : 3억 5천만원

절터안내
- 경남 양산시 어곡동
- 임야 3천평, 전 500평
- 가액 : 3억

011-864-7332

선사들의 자연인식 불교생태철학 근간

서재영씨 '선의 생태철학 연구'로 박사 학위
"모든 존재는 인간과 동일한 법성 지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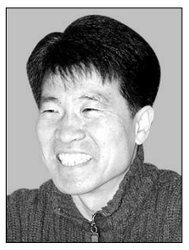
불교생태철학을 주제로 다룬 첫 박사 학위 논문이 동국대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학술지 등에 발표된 단편적인 논문은 많았으나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다, 동국대가 불교생태철학으로 특성화를 추진하는 마당에 나온 것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국대 선학과 서재영 씨는 <선(禪)의 생태철학 연구>에서 선(禪)사상의 생태학적 측면을 집중 조명, 이로부터 불교생태철학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위기에 대한 불교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이 논문은 "생태파괴야 말로 생명에 대한 어떤 범죄행위보다 심각한 위협이며, 이에 대한 해답을 불살생과 자비를 최고의 실천윤리로 삼는 불교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연구 결실이다.

서 씨에게 불교생태철학은 불교의 현재적 의의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현대의 담론에 동참하고 사상적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불교가 더 이상 '과거의 전통'이 아닌 '삶에 기여'하는 본래적 전통으로 돌아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 씨는 생태위기의 불교적 대안을 선사상에서 찾았다. 선사상에는 "초기불교 사상이나 불교일반의 교의에 담긴 내용들보다 훨씬 풍부한 생태적 전통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선사상에는 생명의 위계성이 나타나지 않고 초목성불(草木成佛), 무정설법(無情說法)과 같이 무정물에까지도 생명력을 부여하는 등 생태학적 사유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는 것.


서재영씨

이와 관련된 근거를 서 씨는 <능가사자기>를 비롯해 <경덕전등록> <조당집> <조주록> <백장록> 등의 선전(禪典)에서 찾아냈다. 선어록에는 선사들의 자연과 공존하며 소욕지족(所欲知足)하는 삶이 생생하게 녹아 있기 때문이다.

선사들 삶 속에서 동물들은 반려자로 인식되고, 법을 설하는 주체로서 절대적 존엄성을 갖는 존재로 간주된다. 영명연수 스님(永明延壽 · 904-975)이 하루 한 끼의 공양을 하며 60일만에 <법화경>을 암송하자 염소가 감동해 무릎을 꿇고 앉아 들었다는 이야기나, 현사사비 스님(玄沙師備 · 835-908)이 제비 새끼 우는 소리를 들으며 "실상을 깊이 논하고 법요를 훌륭하게 설명 하는구나"고 말한 이야기 등이 그 예.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문학적 수사 내지는 상징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 선어록의 설화를 근거 텍스트로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서 씨는 "선사의 행장 가운데 이 같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선종사유 속에 인간과 동물은 도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연에 절대적 존엄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개인의 설화가 아닌 선종의 인식체계로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서 씨는 선사상의 자연관을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라는 불이사상으로 요약하며 "대지와 자연의 모든 존재들은 인간과 동일한 법성을 지닌 존재라는 이 같은 인식은 자연파괴가 도덕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태철학에서는 실천의 문제가 중요한데 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해 아쉽다는 서 씨는 앞으로 옛 선사들이 보여준 소욕지족하는 삶을 재해석해서 현대인들이 구체적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전통사찰 건축의 변천사 한눈에 파악되네

한동수 교수 '불교건축' 포스터 제작

법주사 팔상전과 금산사 미륵전 가운데 어느 전각이 더 높을까? 국보 제11호 은해사거조암극락전과 같은 맞배지붕 양식의 전각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사찰 전각에 관심 있는 이라면 한번쯤 가져볼 만한 질문들이다. 이 같은 궁금증들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포스터가 최근 제작됐다.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 등 대표적인 불교 고건축물 입면도(불단을 향할 때 보이는 정면)를 정리해 도표화한 포스터 <한국의 전통건축-불교건축편>이 그것. 한양대 한동수 교수가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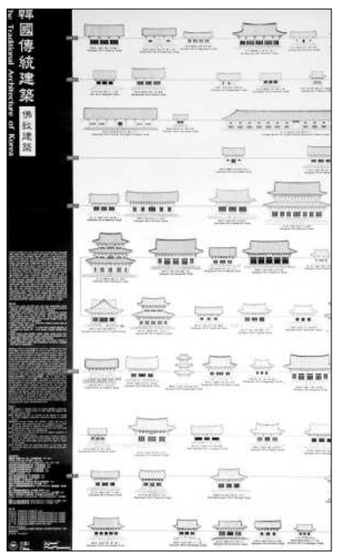
조계종성보문화재위원이기도 한 한 교수는 "1960년대 이후 많은 실측조사가 이뤄져 왔으나 이에 대한 정리는 미흡했다"고 판단, 일목요연하게 조망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포스터는 전지 사이즈 두 장으로 구성됐다. 한 장은 주요 전각 58점의 입면도를 연대순으로 배치해 건축양식 변천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했고, 다른 한 장은 지붕 양식 순으로 배열해 전각들 간의 지붕양식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동일한 척도(1/300)를 적용했기 때문에 입면도만으로 전각들의 실제 크기를 가늠하고, 서로 비교할 수도 있다.

시각 자료인 만큼 텍스트 중심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됐다.

포스터에 수록된 58개의 전각은 △창건 · 중창 연대가 명확할 것 △국보 또는 보물일 것 △신뢰성 있는 실측도면 확보가 가능할 것 등의 기준에 의거 선정됐다. 실측도면은 문화재청이나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을 통해 구했으며, CAD로 제작돼 있지 않은 도면은 일일이 스캔해서 수정작업을 거쳤다.

작업하는 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재정문제. 여러 곳에 도움을 청해봤지만, 해결책이 없어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달했다. 자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같은 작업을 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한 교수는 "고건축은 용어가 어려워 전문가나 돼야 이해하는 데다 일상생활과 유리된 건축물이다 보니 일반인이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점이 안타까워 만들게 됐다"며 "문화재 이해를 돕기 위한 이 같은 작업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02)2290-0319



한동수 교수가 펴낸 포스터 첫째 장. 주요 전각의 변천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박익순 기자

무형문화재 자료목록 간행
조계종 문화부 조사

불교 관련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불교무형문화재 자료목록>이 조계종 문화부에서 최근 발간됐다.

자료집에 따르면 불교관련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은 무용 분야에서 제27호 승무, 의식 분야에서 제50호 영산재, 제68호 밀양 백중놀이, 공예기술 분야에서 제48호 단청장, 제74호 대목장, 제108호 목조각장 등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전승자는 33명이며, 전수조교는 13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무형문화재 자료목록>은 문화재청이 발간한 <중요무형문화재현황>,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등을 참조해 작성됐으며 '불교관련 중요무형문화재 현황과 일람' '불교무형문화재 목록' '불교무형문화재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됐다.

조계종 문화부는 "지금까지 조계종이 불교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자료를 기초로 보다 많은 불교무형문화재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능보유자를 양성함으로써 불교 전통문화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

물의 과학과 다르마

영어사전에서 m자를 찾아보자. 수천 년 전,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살았던 셈족이 사용하던 물 흐르는 모양(한자의 水와 비슷)의 글자가 라틴어에서 m으로 변했다고 설명되고 있다. 조지훈 시인이 지은 <한국문화사 서설>은 우리말의 연원이 셈족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물과 관련 있는 단어 가운데 m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다. 예를 들어 우유를 milk, 포유동물이 mammal, 그리고 사람을 man이라고 하고, 금강경 12장 '존중정교분'에서 천인, 인간, 아수라 중 인간은 산스크리트어 manu를 한자로 번역한 말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 물, 마음, 엄마 또한 m발음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날 때부터, 이 m자와 함께 인생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어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단어가 mother며, 일본사람은 오마상, 독일 사람은 무터라고 한다. 바로 이 m자가 흐르는 물을 상징한다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몸은 66%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 현대과학은 물이야 말로 가장 오묘한 생명을 탄생시킨 장본인임을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고 있다. 물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성질은 물을 이루고 있는 분자, 즉 H_2O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컵의 물은 차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 공간이 많다. 물 분자는 수소결합이라는 힘 때문에 서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한다. 이러한 성질이 물이 가지는 온갖 오묘한 성질을 연출해 낸다.

예를 들어, 얼음이 되면 빈공간이 늘어나서 얼음이 뜨게 된다. 빙산이 물에 뜨지 않았다면, 아마 생명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다시 방사하지 못하게 되면, 지구는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 심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 또한 물의 오묘한 작용 때문임을 상상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신 장소가 주로 강가이며, 경전에는 강가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한다. 금강경에서도 남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덕을 강가의 모래를 비유한다. 또한 진리의 세계로 가는 법을 뗏목에 비유하고, 건넌 후는 뗏목 또한 버리라는 것 또한 자주 만나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강과 물 등이 불교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테마임을 알 수 있다.

물은 생명의 탄생과 보호에 절대적 존재
삼라만상 멈춤없이 흐르는 도리를 알자

다르마란 부처님 법을 나타낸다. 불자들이 항상 외우는 네 가지 서원에 '부처님 법에 귀의한다'의 '법'이 바로 다르마를 번역한 것이다. 인도말로 다르마에는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즉, 삼라만상의 성질이 어느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물과 같이 흐른다는 뜻이리라. 한자로 법(法) 또한 물이 흘러가는 모양을 딴 것이므로, 다르마를 법으로 번역한 옛 사람은 과연 천재라고 할 만하다.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 질 때, 관세음보살 진언인 '옴 마니 반메훔'을 외우자. 이 옴에 깃들여 있는 m자를 생각하면서, 잊었던 존재의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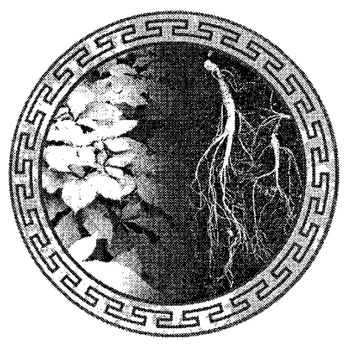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공주대학교 식물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2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사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 LTD.

말과 문자와 형상에 붙어있지 않고 대 자연에 감춰진 부처찾아 견성도통하는 법

을유년 입춘 대운맞이 경신대법회

지구촌지각이 변동되는 UR시대에 도통군자, 사명자 초능력자 되소서



앞서가는 도통군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2005년 UR시대에 도전 학력 · 경력 · 남녀노소, 연령 초월 유망직종 사명선사 진인 대법회

선천법도는 드러나지 않게 전했고 후천미륵달마도법으로시작되는 양 2月 4이 자시와 5일오시에 경신일이 들어 지구촌 모든 종교문화가 바뀌는 종교시대에 새로운 미륵달마 진법으로 천문도법인 초능력 도통비법을 경신일문한 공덕으로 평상시 수년을 수행한 공덕보다 더 큰 힘을 얻는 법회에 그대를 초대하오며 동참한 모든이들에게 특별 돈부 달마 선물을 드립니다. (부자되는 돈부달마)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 치매,중풍,관절,당뇨병,혈압,비만 질병으로 부터 자신도 구하고 가족도 구하는 의통능력 직강 전수

2005년 을유년 UR 지구촌 개벽시대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중생을 구할 자 누구인가? 바로 당신인 것이다.
그 주인공은 경신입문하여 진광의 빛으로 인가 받은 당신이 주인공이며 인간에게는 누구나 삼시구충이 있어 육신에 병을 만드는 것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진태양법으로 의통능력과 퇴치능력법만이 삼시구충을 제도하므로 육경신도통회로 모든 종교법이 모아지는 것임을 명심할 지어다. 이 법으로써 도를 통하여 중생도 구하고 각종 종교의 종주도 된 것이며 오늘날 중생도 제도하는 것이다.
말법시대에는 너나 없이 도인 아님이 없으며, 말과 글과 입으로 통한 자와 알지 못하고 스승인냥 도인인척 하는 자는 하늘의 도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 도통군자, 사명자만이 살아남을 것이요, 하늘빛 庚자와 귀신우두머리 申자에 귀의하여 중생들에게 기근에 맞는 경신도통으로 육신에 병, 정신에 병, 잡신에 병, 마음에 병을 제도하여 영가해탈법을 득도하여 새로운 윤리, 도덕창생, 윤리관으로 사명자, 도통군자로 승화하노라.

경신도통과 무극대도란 무엇인가, 운명을 조종하는 것이다

1)천안통 2)천이통 3)타심통 4)신족통 5)숙명통 6)누진통 등이고

경신이 돌아오는 것은 60일, 1년에 6회가 들었으며 기도수행으로 수마, 병마, 색마를 이긴 자리인 만큼 모든 종교를 초월 생명이 있고 번식할 수 있는 자리는 모든 종교들이 이 수행으로 오늘을 제도하고 있는 신출귀몰한 비법으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수마만이기면 득도하는 수행법이며, 이 기도는 천안통경없이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봐야 잠 안자는 잡신에 빙의되여 허송세월만하는 것이다. 이 기도는 일경 즉 천안통만 잘하면 전생, 금생, 내생을 넘나들 수 있으며,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이룬 恨을 풀어줄 수있는 기도중의 기도가 경신기도이며 자아완성은 물론 도통 신비의 기도 경신 수행인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신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것이다.

- 천도안된 조상들이나 잡신에 빙이된 영혼들이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해원상생 조화일어나 문수대통 성취

•무박 2일 침식무료 제공 •교제대 : 평생연구재료 일금 5만원

특별상담 일생대운, 직장, 운명 특별 상담

- 입제 : 양력 2005년 2월 4일 금요일 음.12. 26 (해시)
- 해제 : 양력 2005년 2월 5일 토요일 음.12. 27 (해시)

02)821-6622 / 821-7767 무박 2일
016)239-3110 / Fax 02)821-7768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출구 모자원고개 쪽 300m 동작구 약사회 골목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도통회
세계불교 달마중 총 본산

일주문



3천여 노인초청 경로잔치

법륜종 종정 정각 스님은 2월 3일 오후 2시 목포 KBS 스포츠 홀에서 목포지역 노인 3000여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개최한다.(061)276-1730



하와이 무량사 대법회 참가

서울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은 하와이 무량사에서 열리는 다도원 개원법회(14일), 요양원 건립법회(21일) 등에 참가하기 위해 1월 14일 출국했다.



<송광사 불화> 도록집 발간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최근 송광사 본말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화를 한데 묶은 도록집 <송광사 불화>를 발간했다.



초중등교원 연수 실시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1월 17~21일 경남도 교육감 지정 특수분야 연수기관인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초중등교원 문화연수'를 실시했다.



미얀마 성지순례

조계종 군불교위원장 성광 스님은 1월 20~27일 미얀마에서 우수 군법사 대상 성지 순례를 실시하기 위해 20일 출국했다.



박종철 열사 1주기 추모제

부산 동명불원 주지 도관 스님은 1월 13일 대웅전에서 가족들과 민주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박종철 열사 18주기 추모제를 개최했다.



총지종 총무부장에

총지종 선도원 전수는 1월 14일 단행된 2005년 종단 승직자 인사 개편에서 총지사 주교 겸 총무부장으로 임명됐다.



겨울워크숍 개최

불교학연구회 이중표 회장은 2월 12, 13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대승기신론과 원효사상'이란 주제로 겨울 워크숍을 연다.(011)625-5162



교사불자회 수련회 개최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임완숙 회장은 1월 18~20일 북제주군 불사리탑 등지에서 전국교사연합 수련회를 개최했다.



대불청 신임회장 취임식

대한불교청년회 김익석 회장은 1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회장 이·취임법회를 열고 제23대 대불청 회장에 취임했다.

"노인 인력개발로 포교불사"

대전 중구노인인력지원센터 개관 장곡 스님



"건강하게 땀 흘려야 할 분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노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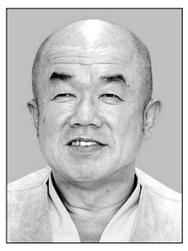
1월 14일 대전 중구노인인력지원센터를 개소한 장곡 스님(공주 갑사 주지·사진)은 "앞으로 지역노인 일자리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전서구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맡은 지난해 2월부터 노년층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노인인력지원기관을 설립을 통한 노인복지의 '불교적 활로'를 모색해온 장곡 스님. 스님은 "그동안 큰 소득 올린 도시락·밑반찬 제조와 유기농 채소재배·가공 등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어르신의 소득증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유성구에 6000여 평의 농지를 마련, 시설채소 재배 사업단도 꾸려갈 계획이다.

장곡 스님은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 인구비율 9.1%를 넘는 만큼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머지않다"며 "불교계에서 한발 앞선 노인인력 개발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인들에게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강진 기자

"이번엔 부르기 좋은 노래 공양"

법문가요 2집 낸 법만 스님



"1집이 듣기에 좋은 노래였다면, 2집은 부르기에 좋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늘 좋은 노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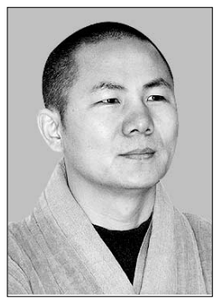
'법문가요 부르는 스님'으로 알려진 법만 스님(서울 중랑구 법만사 주지·사진)이 최근 법문가요 2집 '금빛 부처님'을 냈다. 3년 전 법문을 노랫말로 만든 '법문가요'를 선보인 스님은 이번에도 백봉(한국향토음악인협회 상임부회장)씨가 작곡한 노래에 가사를 붙여 직접 노래를 불렀다.

1집이 '참회'나 '수행' 등을 주제로 제작됐다면, 2집은 '발원'과 '깨달음'을 주요 테마로 삼아 금빛 부처님, 자비광명, 그리운 어머니 등 총 18곡을 수록했다.

스님은 "법문가요는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찬불가와 달리 신행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편"이라며 "법문가요를 통해 불심과 생활 속 기쁨을 함께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중국불교 변화에 한국 불교가 있죠"

연변 대각사 건립 추진하는 정암 스님



"1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내 스님의 위치는 거지나 바로 위였습니다. 또 불교는 미신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중국 연변에 대각사 건립을 추진 중인 정암 스님(사진)은 당시 중국 내 스님과 불교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스님은 "경제적 윤택을 강조했던 마오쩌뚱 시대가 지나가고 장쩌민 시대가 도래하자 이러한 시각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쩌민 前 주석이 1998년 베이징대(北京大) 10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 전통의 도덕적 회복을 언급하면서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칭화대(淸華大) 한 여교수가 오대산으로 출가한 것도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

"중국 유수대학교에 재직중이던 여 교수가 왜 미신으로 취급하던 불교에 귀의했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정암 스님은 중국 내 불교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 모든 종교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또 "대각사가 재가불자 양성의 요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가불자라도 수행력이 뛰어나면 스님도 그의 제자가 되는 중국불교의 풍토 때문이다.

화엄사가 본사인 정암 스님은 베이징대에서 중국철학을 전공했다. 스님은 2003년 〈유마경〉을 연구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연변대 방호범 교수와 함께 수월스님에 대한 논문을 집필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제44대 '골든벨' 뎅~

능인고 김희탁 군



조계종 종립학교인 능인고등학교 3학년 8반 김희탁 군(사진)이 KBS1 TV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에서 제44대 골든벨에 등극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능인고등학교 학생 100명이 참가한 '도전! 골든벨'은 류종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월 5일 능인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펼쳐졌다. 김희탁 군은 골든벨을 울린 부상으로 대학교 등록금과 유럽 배낭여행비 300만원을 받았다. 배지선 기자

총화종 신년하례법회 및 시무식



총화종(총무원장 남정) 신년하례식 및 시무식이 1월 13일 남양주 총무원(수진사)에서 열렸다. 종정 동광 스님을 비롯해 교구 종무원장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총화종은 5월 26일 경부터 4차례 금강산 성지순례, 10월 중순 수계산림법회 등 2005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유가사 일천원불전 낙성식



달성군 유가사가 1월 9일 시방루 일천원불전 낙성식을 거행했다.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이번 일천원불자 낙성을 통해 유가사는 달성군 불자뿐만 아니라 군민의 귀의처요, 복전의 되는 선불장이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치하의 말을 했다.

산악인련 신년하례법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김진관)는 1월 20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총회에서는 신탄진불교산악회의 신규회원 가입, 신년계획 등을 확정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손현수 초대총재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사하불교연합회 신년하례



부산 사하불교연합회(회장 남운)는 1월 14일 사파이어 호텔에서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사물놀이 풍물패 공연에 이어진 신년법회는 홍보국장 대영교임의 발원문 낭독, 승가와 재가의 신년하례, 수석부회장 보각 스님의 경과보고, 회장 인사, 대성 스님의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행사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불자회는 1월 19일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700회 특집에서 소개된 의정부 쌍암사에서 비인가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교통통신원 불자회는 불우 청소년 10명과 독거노인 3명에120만원 상당의 석유 6백 리터와 라면 30박스 등을 지급했다.

화촉 조영호(전 불교신문 업무국장)씨의 장남 의성 씨가 1월 29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상제리제 1층 웨딩홀에서 신부 조수인 씨와 화촉을 밝힌다.(02)824-7654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법화 정법회.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금강선원 해광(海光)스님 포교역정 생활불교 에세이]

속을 보이는 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분별심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 앉은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는 그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승찬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는 훗날 제4대조가 된 도신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中



• 해광스님 지음
열린출판사 / 값 9,000원

해광(海光)스님 처 시 불교비전의술서「불가비의」/ 실용 역학서「운명비결」/ 최초의 소설식 불교교리서「왕 초보 절에 가다」집필 중.

「운명비결」「속을 보이는 사람들」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교보,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리브로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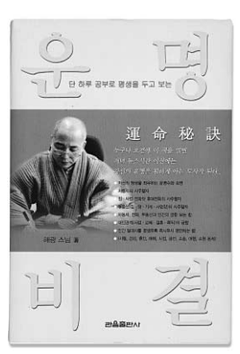
운명비결 전문가 과정 신청 접수

화제의 신간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해광스님 지음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정가 12,900원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수와 숙명
- 자동차의 사주팔자
- 집,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사주팔자
- 부동산(집, 땅, 가게, 사업장)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교제, 결혼,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금강선원 해광스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TEL 032)665-8472



불자 세상보기

황 진 수

한성대 교수 · 행정대학원장

공무원 사회의 '인사 바람'

공무원의 임용에서 퇴직까지의 과정을 인생에 비유하고자 한다. 공무원의 임용계획수립은 출산계획이고, 임명은 출생이며, 교육, 훈련은 학업과정이고, 승진은 인생에서의 상승적 전기(轉機)이며, 퇴임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사나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각종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학력기재란을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잘한 일이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 효과는 대단히 크지 않다. 다만 학벌위주사회풍토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보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실 공무원 임용시험은 객관식 시험 위주의 출제를 하고 컴퓨터로 채점한다. 객관식 시험 응시과정, 채점과정에서는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고시의 경우 2차 시험인 주관식 시험에서도 이름을 가리고 채점하기 때문에 누가 응시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고시 3차 면접시험과정에서만 개인신상이 드러나는데 면접고사는 한 사람이 결정한다기 보다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의 여러 면접 과정이 있고, 질문도 수험생의 인격, 근무자세, 가치관, 도덕성의 기준 등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공무원 응시원서의 학력기재란 철폐는 잘한 일이긴 하지만 그 효과가 대단하다고 볼 수 없다.

최근에 공무원 사회가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과거의 평가 방식이 상당한 진화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든다면,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입으로 승진 · 보수에 개인의 실적과 성과를 반영시키고 있다. 근무성적평가도 과거 상관의 일방적인 평가에서 탈피하여 다면평가제라 하여 동료, 부하 등의 평가 제도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고시임용이라는 경직된 제도를 보완시키기 위해 개방형 직위제, 직위공모제 도입 등으로 내부승진만으로 이루어지던 관행을 흔들고 있다.

정부의 인사제도 개혁은 정부조직내의 행정문화를 변화시킨다. 정부의 행정문화는 민간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굳어진 학력 평가 인식을 시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학력철폐조치, 메리트 시스템에 의한 인사관리 등을 해도 역시 결과는 이런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의 학력기재란을 철폐한 것은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학력 맹신신조를 시정하고자 하고 고육지책으로 인식하면서 앞으로 공직사회의 능률성, 민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전정부적(全政府的) 인적자원 · 활용의 극대화이다. 부처간의 경계를 넘어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고위공무원의 이동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개방화시켜야 한다.

둘째, 직무특성이나 전문성을 기초로 한 인력관리를 해야 한다. 아마추어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프로에 의한 행정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대학시절 우수했던 사람이 공무원에 들어가 20년 이상 근무한 후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사고가 경직되고 가치관이 낡아있는지 모르겠다는 어느 친구의 푸념을 귀담아주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행정 공무원 제도가 잘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공무원도 새로운 가치관과 의식개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도하는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현대사회가 행정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의식이 필요하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새만금에 쏟아붓는 혈세

'새만금 간척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이 '간척 사업의 용도와 개발 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 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내 놓은 것이다. 1991년 11월 착공 이래 14년 세월과 1조7483억원이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얻은 결과란 게 '곰곰이 잘 따져보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혈세를 바다에 버린 꼴이 됐다. 어처구니없을 만큼 허탈한 결과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사실상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국책 사업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들린다.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처음부터 '농지'라고 명시해 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용도 특정'이냐며 불만을 드러낸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문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쌀이 남아돌아 현재 110만ha의 논 면적을 80만ha까지 줄여도 상관없고, 더군다나 국제 무역환경은 의무적으로 쌀 수입을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림부는 '식량안보' 운운하며 농지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설득력은 커 보이지 않는다. 진정 식량안보가 걱정스러우면 농촌살리기와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부터 내 놓아야 한다. 농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이보다 더 절실한 '식량위기'가 어디 있는가.

다음으로 따져볼 문제는 국책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문제이다. 국책사업이란 무엇인가. 사업의 이익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될 때 비로소 '국책'으로서의 정당성을 얻게 된다. '갯벌 보전'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갯벌 보전'과 '전북 경제 활성화'가 상충되지 않는,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농지보다 더 생산적인 용도'를 찾아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단체의 '부분개발안'은 상당히 현실적이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혈세 낭비 문제다. 정부와 개발론자들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라는 논리를 펴지만, 본전이 아까워 수렁에 빠지고 마는 도박중독자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세금을 아끼는 길은 현상태에서 간척지를 축소하고 갯벌을 살리는 길이다. 방조제 공사 외 내부 간척공사까지 고려하면 공정 진행률은 50%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시화호'의 교훈은 한번으로 족하다. ■ 윤제학(본지 논설위원)

이렇게 들었다 부실 도시락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법구경〉

부실 도시락 파동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 결식아동에게 부실 도시락이 제공돼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이후 담당자들은 보직해임이 되는가 하면 경찰들은 급식비 착복여부를 수사하고 있고, 보급망 미비로 도시락 대신 상품권을 지급한 곳이 나오는 등 연일 신문지상이 시끄럽다. 보건복지부는 부랴부랴 도시락 질을 높인다며 종전 2500원에 책정했던 도시락 가격을 4000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들은 "이제 와서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고 도시락 질이 개선되는가"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도시락 파동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자는 취지에서 준비된 도시락에 '정성'이 없었다는 데 있다. 아이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혜자'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이루어진 '탁상행정'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더 큰 상처만 줬다는 지적이다.

메추리알 4개, 단무지 2쪽과 모닝빵 1개로 이루어진 점심식사. 과연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작금의 상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현실이다. 우리 주변의 결식아동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도시락'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따뜻한 관심'이었을 것이다.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아끼듯, 내 이웃에게 자비심을 베풀었으면 결식아동들이 겨우 몇 쪽의 단무지로 배를 채우는 것을 좀 더 빨리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행정당국의 무책임함도 크지만 우리 모두의 무관심함도 못지않다. 마치 내 자식을 돌보듯 우리 이웃을 돌아보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심을 실천하여 더 이상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 이은비(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거목 뒤 송이가 보이지 않음에

인도네시아 남 수마트라의 팔렘방이라는 곳에서 식품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해일로 피해를 본 인도네시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그곳에 가서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러 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껏 많은 지원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금도, 봉사도, 지원도 그 곳 뉴스에 한번도 클로즈업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다. 봉사하는 거목에 가려진 '송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지 주지사인 샤리엘 오스만씨에게 내 심정을 털어놓기까지 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돕는 점은 알리나 알리지 않으나 같으나 한국을 드러내는 그런 도움도 필요한 것 같다.

김영대(붓다뉴스)

박경원씨 기사를 읽고

현대불교 508호 삶 · 사람에 보도된 박경원 거사님의 장인정신에 경의를 표한다. 누구나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다보면 정상에 서게 된다. 나도 40년간을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다.

나름대로 성공도 했다. 이제 회향의 차원에서 포교사가 되어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쇠와 마음은 돌이 아닌 하나라는 법문은 훌륭한 법문이다.

김광식(붓다뉴스)

주지 스님의 리더십

최근 불교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동국대 대학원에서 나왔다. 주로 도심신흥사찰에서의 조사가 바탕이지만 이 논문을 보면서 사찰은 기업이고 주지스님은 CEO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사찰CEO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 불사일까? 이 논문의 내용에는 주지스님이 불사에 헌신하면 사찰의 양적 성장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신도들의 질적 향상에는 무관하거나 부정적이라고 나왔다. 대웅전 · 일주문 등 건축불사를 거창하게 하는 것으로 주지스님의 사찰 운영 능력을 재는 신도들은 이제 없다.

주지스님의 법문이나 법력으로 사찰을 선택하는 신도들의 심리는 좀더 훌륭한 스승, 본보기가 되는 성직자의 모습을 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비전제시, 역할모델링, 불사헌신, 설법교화력, 개인적 배려 등으로 주지스님의 카리스마적 행동범주를 나누고 그 결과를 살피고 있는 이 논문은 주지스님이 사찰에서 해야 할 역할을 잘 짚고 있는 것 같아서 공감이 된다.

노용진(충북 진천군)

조계종 신도증 이대로 안된다

조계종 신도증이 생긴다고 해 초창기에 스님의 권유로 신도증을 만들었다. 매년 교무금을 내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도증을 만들었던 것 조차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다.

가톨릭에서는 신도들이 이사를 갈 때 신도기록을 가지고 간다. 지역별로 정점이 되는 성당이 있고 기록을 그쪽으로 옮겨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불교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조계종 역시 전국에 교구별로 본사가 있고 그 본사 아래에 여러 말사들이 있는 구조이기에 충분히 가톨릭처럼 신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불자들은 전국의 좋다는 절은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의 방식이 맞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맞는 대안은 있지 않을까. 조계종에서 좀더 고민해서 신도증 및 신도 관리 체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도증이 더 이상 애물단지로 서랍 안에서 굴러다니지 않고 그야말로 '불자'의 자존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날이 멀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수행심(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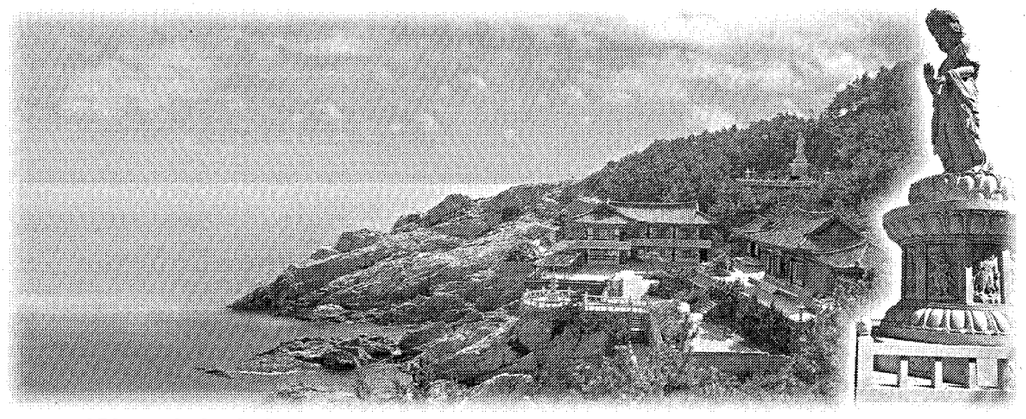
'현대' 만평 심 민 섭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乙酉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남아시아 돕기 성금 줄이어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 자비를…

본사 2억3천여만원 모금…조계종에 전달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와 관련 본사에 성금접수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본사는 1월 19일까지 성금 2억3천80만원을 모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전달했다.

12월 26일 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 이후 본사에 모아진 성금은 안국선원(선원장 수불) 여여선원(선원장 정여) 한국불교승가회(회장 무공)에 이어 최근에 한마음선원(원장 대행) 2억원, 금강경독송회(회장 김재웅) 1000만원, (사)자비봉사회(이사장 이강령) 자비원(이사장 부동) 150만원, 미얀마선원(원장 산디마) 50만원, 다르마법우회(회장 이만덕) 110만원등이다.

특히 본사에 성금을 기탁한 (사)자비봉사회 자비원, 미얀마선원은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곳이다. 미얀마선원 원장 산디마 스님은 "미얀마 선원도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남아시아 불자들의 초지를 외면할 수 없어 법회에서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모임인 '붓다와 떠나는 책여행'과 '법현 스님의 열린 절'에서 70만원과 100만원의 성금을 보내왔다.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과 '법현 스님의 열린 절' 회원들은 인터넷 카페에 개설한 성금 계좌와 직접 모금함을 이용해 조성했다.


본사 김광삼 사장(사진 왼쪽)이 1월1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1월 19일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구호지원 성금 1천만원과 옷 등 구호품 50박스를 본사에 기탁한 김재웅 법사는 "금강경을 읽고 수행하는 불자로서 동남아시아 난민들을 돕는 마음과 정성을 모으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김원우 · 김강진 기자

지진 · 해일 구호성금 보내주신분(1월 12~19일)

해인사현진 10만원 보문정사유치원 100만원 청주탄공정사 30만원 청주월명사 20만원 청주복천암 30만원 김화일 7만6400원 대원사보륜 10만원 김화일 4만9500원 권재연 1만5000원 동해대원사 200만7000원 구암사경오 30만원 최병헌 10만원 박해숙 10만원 조임순 1만원 길경자 10만원 김혜영 2만원 원효사 100만원 박병희 10만원 김량희 2만원 삼선포교원 150만원 김지연 10만원 신효인 10만원 학도암 100만원 김경옥 10만원 김기평 20만원 천안사담면스님 10만원 류두희 2만원 유정록 5만원 서말조 5만원 박은희 1만원 배주은 3만원 수원포교당 700만원 개운사각연스님 100만원 개운사신도일동 32만5000원 자비의탁발(중앙) 2864만1095원 장정완 5만원 오양모 2만원 박정숙 20만원 서혜숙 30만원 횡성보광사 100만원 김포금정사 35만2000원 법정사 6만원 교동화개사 25만1000원 차봉기 20만원 이춘영 5만원 조정숙 10만원 김순희 50만원 박영국 3만원 이정은 5만원 황후기 1만원 최종열 1만원 최옥임 10만원 정명신 10만원 양기순 10만원 진선 · 하진 · 재범 6만원 법주사총지선원대중 146만2000원 월은사 10만원 우룡스님 200만원 익성암 50만원 오상숙 1만원 변상옥 1만원 고영숙 1만원 부산정원사 10만원 최영아 3만원 운문사사진반 13만원 남한산성장경사 100만원 동춘스님 1000만원 포교원장도영스님 100만원 교육원장청화스님 100만원 청담복지관 직원 23만6920원 이봉석 9만원 천은사 30만원 허미애 20만원 치악산상원사 30만원 김명종 5만원 대구반야정사 20만원 서정숙 5만원 대원 100만원 이상달 11만원 원종명 10만원 이재도 3만원 이기원 5만원 범화 5만원 정재화 5만원 석권영 5만원 목동법안정사 김중인 200만원 박양규 5만원 도봉산천축사 101만2000원 신용경 20만원 김석영 5만원 소림사 강혜윤 100만원 불교사회봉사회 100만원 영주에서 10만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104만7000원 망우산극락사 10만원 송덕사 5만원 굴산사 10만원 불교어머니회 11만원 이천내원사현종스님 100만원 이경주 10만원 신효성 30만원 안성청룡사 71만2000원 율곡사 20만원 손연옥 10만원 용화굴 50만원 해제용덕사 10만원 대전성현사정은스님 50만원 장봉숙 1만3000원 김석영 5만원 낙가사 30만원 구룡사 153만원 양영순 9만원 박소현 12만원 성곡사20만원 진명숙 5만원 부산전법사 20만원 문경성불사 20만원 무학사학봉스님 100만원 은선사 10만원 이미향 3만원 삼척감로사 27만6200원 방미애 5만원 미산스님 100만6780원 대전비구니청림회 636만9100원 진여스님 50만원 박서래 60만원 진관사진관스님 1017만3000원 김인자 4만원 이은정 1만원 하연자 5만원 신륵사신도회 322만7320원 전규완 5만원 임옥숙 10만원 김동득 5만원 덕산사혜현스님 10만원 이광선 3만원 정토사 대광 100만원 황명애 5만원 손태원 5만원 이하야나 10만원 유인호 1만원 정찬준 2만원 인연지기홈피 20만원 귀명례 2만원 김옥임 1만원 부여비로사 100만원 내성사 50만원 변순옥 5만원 장안정사지운 100만원 한건희 30만원 자비사 13만4000원 한순단(금강암) 300만원 주상숙 10만원 보현사태연스님 50만원 윤옥현 20만원 안양지장선원 200만원 성심사 200만원 한마음선원(원장대행)전국지원 2억원 안국선원(선원장 수불) 1000만원 금강경독송회(회장 김재웅) 1000만원 여여선원(선원장 정여) 300만원 한국불교승가회(회장 무공) 100만원 (사)자비봉사회(이사장 이강령)자비원(이사장 부동) 150만원 미얀마선원(원장 산디마) 50만원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회장 이만덕)34기/35기 110만원 네이버책읽기모임카페' 붓다와 떠나는책여행' 70만원 다음카페'법현스님의열린절' 100만원 현대불교신문(사장 김광삼) 200만원 이정옥 50만원 **(총 351,276,315원)**

누적금액 470,333,025원

지진 · 해일 피해로 통곡하는 남아시아에 자비를

현대불교신문사는 조계종과 함께 남아시아 지진 및 해일 피해 돕기를 위한 성금모금을 전개합니다. 접수된 성금은 각국 대사관을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지진 · 해일 피해 돕기 성금 동참 안내
동참문의 : (02)2011-1824~5
동참계좌 : 국민은행 023-25-0011-991
예금주 : (재) 불교중앙교원
농협 053-01-239894 예금주 : (재) 불교중앙교원

대한불교조계종 · 현대불교신문

"할머니 상쾌하시죠?"

나눔단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회 선재팀

매주 한번 복지관찾아 치매어르신 목욕봉사

"이거 놔! 나를 어디로 데려가!"

"아유, 할머니. 오늘 아드님도 오는데 깨끗하게 씻으셔야죠."

매주 화요일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4층 치매단기보호센터 목욕실 앞에서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회 선재팀과 몇몇 할머니간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는다. 1월 18일에도 선재팀은 이미 10여명의 '얌전한' 할머니들을 목욕시킨 후 '떼쟁이' 김봉순(가명 · 72) 할머니를 데려가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선재팀은 매주 화요일마다 광진치매단기보호센터 할머니들의 목욕을 책임지고 있다.

'욕먹는 것 정도는 괜찮다'며 박정순(52) 팀장이 팔을 걷자 할머니들이 목욕할 때 할퀴고 깨물어 만든 흉터가 드러났다. 2003년 11월부터 시작된 목욕봉사활동의 상처다.

선재팀이 그렇게까지 해서 할머니들의 하얗게 센 머리를 감기고 몸을 씻겨드리는 것은 할머니들의 건강과 '웃는 얼굴'때문이다. 정신은 조금 놓았지만 씻은 후의 상쾌함까지 잊지는 않은 것이다.

우이동 도선사(주지 혜자)에서 기도와 전법을 함께하는 6명의 도반으로 만나 '봉사활동'의 뜻을 뭉쳤다는 선재팀. 그렇게 매주 할머니들을 목욕시킬 때마다 힘이 들고, 물 · 땀범벅이 되지만 부모 같은 분들을 돌봐드렸다는데서 느끼는 애틋함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정자(54)씨가 목욕을 끝낸 이말순(가명 · 75) 할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선재팀은 바로 이런 순간 때문에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봉사는 해봐야 알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행복, 절대로 모른다니까요."

김강진 기자

새봄이 언니 힘내세요

청주 보문정사 유치원생 250여만원 전달

고사리손으로 푼푼이 모은 용돈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여고생에게 전달돼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는 1월 11일 충북 청주 보문정사부설유치원(원장 덕주)에서 원아들이 저금통모으기를 통해 마련한 기금 2백52만9250원을 포함, 총 7백85만7490원을 이새봄(16, 본지 503호 나눔의 손잡기면 보도)양에게 전달했다.

이새봄양은 골수조혈모세포의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후천적 혈액질환인 '골수이형증'으로 지난해 12월 2일 골수이식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냈지만 피부에 숙주가 생겨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새봄양은 현재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김강진 기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친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한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보도한다. 후원을 할 불자들은 단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을 별도로 소개한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된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는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생명나눔 실천회의 골수기증 및 혈소판 모으기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사업을 전개한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해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소개한다.

♥ 나눔장학금 전달 2005년 하반기에는 지방에 소재한 12개 종립학교 학생 72명에게 사찰체험을 시켜주고 장학금을 전달한다.

♥ 김창배 화백 지상 선묵화전 담원 김창배 화백이 보시한 선묵화 30점의 지상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인터넷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나눔의 저금통 수거합니다

'나눔의 저금통'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을유년 설맞이 건강용품 특별기획전

희담보료 구매고객에게 희담석 좌복 무료증정 (2월28일까지)


▮ 희담석 허리팩 + 어깨팩 세트 초특가 판매
· 정가 110,000원 → 88,000원


▮ 희담석 방석
· 198,000원 → 178,200원
· 크기 : 385mm X 355mm
· 색상 : 회색, 살구색


▮ 희담석 찜질팩(신형)
39,800원 → 38000원
· 기존제품의 두배반 이상의희담석원료 사용


▮ 희담석 지키미 20,000원
· 크기 : 65 X 65 X 10mm


▮ 희담석 좌복
· 360,000원 → 298,000원
· 크기 : 720mm X 390mm
· 색상 : 회색, 살구색
· 희담석의 뛰어난 생체 활성 메커니즘을일상생활에서 느껴보세요.

희담석 보료 한정 할인판매 (딱 1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 스님용 희담 보료(보급형)


· 2,800,000 → 1,980,000

희담 원석 중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한 후, 수면시 자연스럽게 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각종 지병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스님용 보료는 아담한 사이즈로 스님들의 좁은 수행처에 설치하기 적합합니다. 좌선등으로 활동 시간이 적어 신체대사가 원활치 못한 스님들의 신체 활성화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보료사이즈 : (900mm x 1,900mm x 100mm)
▶ 희담석사이즈 : (600mm x 1,500mm) → (300mm x 300mm x 16mm)
⇒ 10개 원석의 두께 : 1.6cm
▶ 보료의 외피 : 샤무드 (고급 인조가죽)
▶ 온도조절기 : 특수 내장형 슬라이드 방식으로 보료 윗면의 전자파 완전 차단

▮ 희담 보료(싱글)

· 4,000,000 → 3,200,000

희담 침대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에너지 파장의 방사능력인데, 옥(玉)등 타 제품의 경우 상온(常溫)에서의 파장은 극히 미미한데 비해, 희담석은 파장의 투과력이 높아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그대로 투과하므로 상온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40°C ~ 60°C의 온도로 찜질도 할 수 있습니다.

▶ 보료사이즈 : (1,000mm x 2,200mm x 100mm)
▶ 희담석사이즈 : (700mm x 1,800mm)
원석의 두께 : 3cm(300mm x 300mm x 30mm) ⇒ 12개
(100mm x 300mm x 30mm) ⇒ 6개
▶ 보료의 외피 : 이태리 천연가죽
▶ 온도조절기 : 특수 내장형 슬라이드 방식으로 보료 윗면의 전자파 완전 차단

★ 행사기간동안 서울, 경인지역 설치비 무료, 그외 지역 10만원

마하몰에서 알뜰 쇼핑하세요!

1. 인터넷 마하몰에서 삼성,신한카드로 5만원이상 결제시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2004. 2월 28일까지)
2. 5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불자달력을 드립니다. 1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불보살 캐릭터 액자를 드립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대청호 환경 지킴이 김기동씨

물이 맑아야 사람도 맑아집니다

20년간 매년 쓰레기 1천가마 수거



김기동씨가 수거한 쓰레기들을 대청댐 어귀 쓰레기 집하장으로 옮기고 있다.

재활용 쓰레기 모아 판매, 불우 노인들 도와
예불드리며 효도할 수있는 실버타운 '꿈'

1980년,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양손을 모아 직접 물을 떠마시던 추억을 댐에게 빼앗겼다. 물 속에 있는 고향이 그리워 배를 타고 주변을 맴돌다 어지럽게 떠다니는 쓰레기를 보니 고향을 영영 잃어버린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화가 치밀었다. "그래 고향을 다시 찾자. 모깃불 지피며 평상에 앉아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던 그 시절의 고향집 앞마당은 다시 볼 수 없어도 냄새나는 오물로 고향이 더렵혀지는 것만은 막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며 20여 년 동안 대청호의 쓰레기를 치워 온 대청호 파수꾼 김기동씨(53).



김기동씨가 보트를 타고 대청댐의 환경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하루 종일 쓰레기와 씨름하다 보니 온 몸은 악취와 얼룩으로 뒤범벅이 되고 발바닥과 손은 유리에 찔리고 긁혀 성한 곳이 없었다. 홍수에 휩쓸려 내려온 돼지며 닭들의 시체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 준적도 많았다.

"쓰레기나 치우는 아빠가 정말 창피해요. 친구들이 '네 아빠 청소부지'라며 놀린단 말예요." "여보. 이제 돈 안 되는 일은 그만하고 우리도 도시로 나가 살아요." 이렇게 자식과 아내의 원망과 성화를 쓰레기 더미와 함께 묻은 것이 벌써 20년을 훌쩍 넘겼다.

이제는 평생의 업(業)으로 생각한다는 김씨. "돈을 생각하면 절대 못하죠.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하루 세끼 더운밥은 먹으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들 둘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 그것도 고맙고요. 이제는 두 아들 녀석과 아내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니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대청호는 해마다 홍역을 앓는다. 장마와 태풍으로 시뻘건 황톳물에 쓸려 내려오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페트병, 스티로폼, 깡통, 냉장고, 통나무 등등)로. 어디 이뿐이랴. 월척이 많아 주말이면 수 백 명의 낚시꾼들이 몰려드는데 이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만만치 않다. 자칫 방치했다가는 충청권 주민 200만 명이 마시는 상수원이 악취 풍기는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말 정도로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다.

김씨가 대청호에서 건져내는 쓰레기는 1년에 1천 가마. 4톤 트럭으로 250대 분량이 넘는다. 이런 그의 선행이 입 소문을 타고 대청댐 관리사무소에 전해져 1989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그를 '대청호 수질감시원'으로 공식 위촉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생업까지 팽개치고 매일 쓰레기와 전쟁을 벌여야 한다면 누구라도 쉽게 나서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대청호에 쌓이는 쓰레기를 김씨 혼자서 치우기에는 너무 많다.

1984년 맨 처음 남편이 이 일을 시작할 때 부인 한명옥씨(49)는 돈도 되지 않는 일에 매달리는 남편을 극구 말렸다. 그렇게 한가하면 어디 가서 품앗이라도 해서 돈을 버는 게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기 돈까지 써가며 쓰레기를 치우는 김씨를 비웃기만 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런 주위의 눈총에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쓰레기 수거 작업에만 몰두했다. 쓰레기를 담을 포대와 쓰레기를 긁어 모으는데 필요한 갈퀴 등 필요한 용품을 사는데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었다.

"자기 집 안방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면 아마 누구라도 그것을 치울 거예요. 바로 제집 즉 고향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것 뿐 입니다. 남들이 저에게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혀를 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을 <천수경> 염송으로 이겨냈다. 주위에서 노골적으로 비웃을 때마다 그의 <천수경> 소리는 높아만 갔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들을 '팔부(부처님한테 팔았다는 뜻)'라고 불렀을 정도로 그는 어릴 적부터 절에서 염불하기를 좋아했다.

"특히 <천수경>을 좋아 합니다. 아마 제가 대청호 쓰레기 줍는 일과 인연을 맺은 것도 이웃을 위해 자연을 내 몸과 같이 보살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묵묵히 <천수경>을 외우며 대청호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한지 몇 년쯤 지났을까. 가족과 이웃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고 부인과 자식들도 팔을 걷어 붙였다. 남편 혼자 배를 띄워 나가는 것이 불안하고 농약병, 비닐 등 점점 늘어나는 쓰레기를 혼자 치우는 것을 안쓰럽게 여긴 부인은 1992년부터 손을 보태기 시작해 그 역시 전국에서 첫 여성 수질감시원으로 위촉됐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자원재생공사에 위탁, 처리해 얻은 수익금으로 10년 전부터 조촐하나마 불우한 노인들을 돕고 있다. 또 1주일에 서 너 번씩 틈나는 대로 보은군 읍내에 위치한 성심양로원을 찾아가 자원봉사도 한다. 양로원 가족들의 빨래며 화장실 청소는 모두다 그의 몫이다. 김씨는 성심양로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천수경 거사'로 통한다. 몸도 마음도 의지할 곳 없는 어르신들에게 구성진 목소리로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하며 <천수경>을 소리내 외워주면 양로원은 어느새 법당이 된 듯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 경건하게 변한다. 성심양로원의 김말연(75)할머니는 "김 거사님 오기만 하루 종일 손꼽아 기다리는 구만유. 재미난 입담하며, 안마도 잘해 주고 거기다가 <천수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스님해도 되 것시유. 참말로 아들보다 낫당 께라"며 연신 김씨 칭찬에 침이 마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사비를 털어 낚시터 주변 다섯 곳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또 해마다 자연보호의 날에는 폐품을 팔아 모은 돈으로 인근 각 면에서 활동하는 자연보호협회원들에게 조끼와 모자를 구입해 전달하기도 한다.

이런 숨은 선행과 봉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김기동 씨는 지난 1992년 환경부 장관 표창 등 각계 단체들이 주는 20여 개의 표창을 받았으며 2001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의 편지도 받았다. 부인 한명옥 씨 역시 1994년 SBS자원봉사대상 등 수많은 환경 관련 표창을 받았다.

김씨 부부에겐 소원이 하나 있다. 바로 10년 안에 부지런히 돈을 모아 20명 정도의 인원이 살 수 있는 무료실버타운을 세우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은중경>의 말씀을 되새겨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한다면 그곳이 바로 불국정토가 아닐까요?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 드리며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오랜 꿈입니다. 반드시 10년 안에 이룰 생각입니다."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는 김기동 씨.

지금까지 그가 주웠던 것은 대청호의 냄새나는 쓰레기가 아니었다. 김기동 씨는 <천수경>을 벗 삼아 오늘도 대청호에서 맑고 향기로운 행복을 건져 올리고 있다. 쓰레기 없는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글=노병철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여시아문

모든 감정을 탁 놔버려라!

올 초 조계사에서 3개월간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서 11명의 선사들이 펼친 법문을 모았다. 선의 본질과 의미, 화두 두는 법, 선 수행의 요체 등을 주제로 선의 정수와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 중앙일보

'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 라는 공통된 메시지로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추상 같은 엄격함으로 자신들의 수십 년 수행 경험을 청중들에게 전했던 지난봄 조계사 선원장 대법회 법문 내용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 조선일보

■ 고우 스님-선의 본질과 의미 ■ 무여 스님-화두 드는 법 ■ 대원 스님-선과 깨달음 ■ 함주 스님-마음은 무엇인가 ■ 현산 스님-비우고 쉬는 공부가 선 ■ 영진 스님-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 지환 스님-선 수행의 요체 ■ 혜국 스님-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 현응 스님-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 도현 스님-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 ■ 설정 스님-단박 깨침이란 무엇인가 ■ 특별법문·법장 스님-경허 · 만공 선사의 가르침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禪 너는 누구나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여시아문 3주 연속 베스트셀러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최제의 책

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
선어삼백칙
(禪語三百則)

신국판 / 420쪽 / 차차석 譯解 값 10,000원 / 여시아문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다

'선어삼백칙 – 주제가 있는 선 이야기 삼백 가지'는 역대 선지식들의 수행담과 득도를 향한 열정이 담긴 핵심적인 어록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스스로 불성을 지니고 있다', '문득 깨달아 부처가 된다', '한 올도 걸리지 않는다' 등 주제별로 선수행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 무조건 '어렵다' 고만 느껴온 선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여시아문

나의 수행법

전근홍



초등학교시절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앓다가 죽었다.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을 접하자,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어찌된 일인지 그날 이후부터 죽는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이후, 난 끊임없이 '죽으면 어찌될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무엇을 하던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던 중 대학 시절 보림선원에서 만난 백봉 김기추 선생님이 "이 몸뚱이가 있다 할지라도 성품이 없어. 내가 보고 듣는 것은 눈이나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 보고 듣는 것이야.

다시 말해서 허공으로서 내가 하는 것"라는 설법을 듣는 순간, 이제껏 나는 이 몸뚱이로서의 나로만 단지 생각해왔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날 이후 나는 매일 저녁과 토요일마다 철야정진에 계속 참석했다. 몇 개월이 지난 그해 여름, 선원대중들이 용인 동두사에서 1주일 철야정진을 했다. 그간 참선을 해 본적이 없는 나로서는 화두를 들어보아도 어찌나 잡이 오는지 나중에는 화두가 들리기는커녕 지금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 상태가 계속 됐다. 또 계속 며칠동안 한번도 눕지를 못하니 허리는 끊어지게 아팠다.

그러나 3~4일이 지나자 조금씩 정신이 차려지고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정신도 조금씩 맑아지고 몸도 차차 나아지자 어느 틈에 일주일 철야정진이 지나 가버렸다. 그렇게 1주일 철야정진을 마치고, 도반들과 절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 뱃놀이를 가게 됐다. 얼마간 노를 저어갔을 때, 문득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배가 가고오고 한다'는 생각이 확 느껴졌다. 1주일 철야정진이 내게 상당히 도움이 됐다.

친구 갑자기 죽은후 '죽음' 깊이 고민
김기추 선생 만나 화두끊긴 자리 맛봐

그날 이후 4~5년을 토요일 철야정진과 1주일 철야정진을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러다 어느 1주일 철야정진 중이었다. 그때는 앉기만 앉으면 화두가 잘 들렸다. 그 당시 백봉 선생님에게 받은 '동산수상행(東山水上行)'이란 화두를 가지고 참구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앉기만 앉으면 금세 몸을 잊어버리고 오직 화두만 들렸다.

그러자 어느 순간 화두가 딱 끊어지면서 어떠한 실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때에 심경을 비유해본다면, 포항제철 같은 커다란 공장에서 엄청나게 큰 기계들이 돌아가고, 그 소음에 사람말소리 조차들을 수 없다가 정전으로 갑자기 기계가 딱 멈췄을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적적함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그리고 나자 자신감이 딱 생겨 화두에 대한 "예리한 칼을 들고 쫓고 쫓을 새 갈 곳 없는 '동산수상행'이 내 집안 소식을 토하는구나. 산은 푸르고 물은 맑은데 할 일도 많았던 내 집안일이 하나도 할 일없는 그대로구나"라는 답을 달아 선생님에게 보여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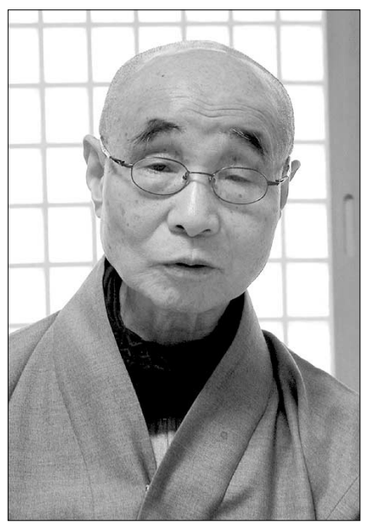
그 글을 보시자 선생님께서는 "그렇다. 이제부터 너는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하시고 대중 앞에 공표를 하셨다. 그날 그 실감을 경험한 이후, 지금까지도 토요일과 1주일철야정진은 내 불교공부의 훌륭한 방편이 되고 있다.

■ 보림회 총무

지유 스님이 말하는 선수행법

간화선과 묵조선, 같은가 다른가?

간화냐 묵조냐 분별 버리고 나를 돌이켜 보라



지유 스님.

조계종을 대표하는 수행법 간화선(看話禪). '화두일념'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선수행법이다. 중국 남송대 대혜종고(1089~1163) 선사가 체계화했고, 지금은 대표적인 선불교의 수행법으로 자리매김했다. '묵조선(默照禪)'은 대혜종고와 동시대를 살았던 굉지정각(1091~1157) 선사에 의해 체계화된 선수행법이다. 연원은 인도의 관법(위빠사나)과 달마와 혜능 선사의 좌선관 및 선수행과 직결돼 있다.

그럼, 선수행법의 양대 산맥을 이룬 간화선과 묵조선은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1949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전국의 제방 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하고 남양주 화개선원(선원장 상광)에서 재가불자에게 선수행법을 17년째 지도하고 있는 지유 스님(범어사 조실)에게 1월 16일, 대중법문에 앞서 여쭸다.

▲간화에서는 묵조를 '삿된 선(邪禪)'이라 하고, 묵조에서는 간화를 '깨달음을 기다리는 선(待悟禪)'이라 비판합니다. 간화선과 묵조선은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 두 개 다 맞기도 틀리기도 하다. 간화의 입장에서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반박도 맞다. 또 '본래부터 깨달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데(照), 고요히 좌선수행으로 일관하면 된다(默)'

'화두일념 · 현성공안'은 수행방편

는 묵조의 말도 맞다. 일장일단이 있다. 다만 같은 것은 깨달음의 영역이다. 수행방편이 다를 뿐이다. 간화는 화두일념으로, 묵조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공안이라는 '현성공안(現成公案)'으로 선을 알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간화든 묵조든 그 자체는 선이 아니다. 때문에 어떤 것이 맞고 틀리지 않다.

▲간화선은 '화두일념'을 강조합니다. 반면 묵조선에서는 '현성공안'을 중시합니다. 그럼 공안관(公案觀)에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옛 선사들은 공안이라고 하지 않았다. 모를 때 정답을 일러줬다. 듣는 사람이 정답에 이르지 못했을 때, 선사가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공안을 줬다. 누가 오든 차별하지 않고 자기가 깨친 바 있는 그대로의 공안을 보여 준 것이다. 다만 듣는 사람이 일러주는 사람과 마음이 같지 않아서 의심이 붙었다. 그래서 묻는 사람이 자기 혼자서 가만히 무슨 뜻이 있는가를 깊이 파고든 것이다. 이를 사량분별해서는 안 된다. 끝도 없이 의심하다보면, 생각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화두공부다. 그래서 묵조의 현성공안이든 간화의 화두일념이든 어떤 공안이 낫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간화든 묵조든 '본래성불'이란 측면에서 '깨달음의 내용'이 같다는 의미인데, 그럼 수행방편의 차이 때문에 묵조와 간화가 다른 것입니까?

-지금은 간화다 묵조다 해서 가지가 갈라져 있다. 불법은 자기가 자기를 찾는 것인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간화다 묵조다 따질 필요가 없다. 깨달음은 심시불(心是佛)을 아는 것이다. 즉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런데 사량분별로 이를 알려고 한다. 이 사량분별은 '유지(有知)의 지(知)'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머릿속에서 알고 있을 뿐이다. 깨달음이 사량분별에 가려 있어, 이를 끊게 하는 것이 화두공안이다. 알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유지의 지를 '무지(無知)의 지(知)'로 바꿨을 때, 자기 앞에서 전개되는 우주만물이 진리 아닌 것이 없고, 법문이 아닌 것이 없게 계합된다. 이것이 묵조선의 현성공안이다. 반면 간화는 화두일념이라는 방편으로 본래성불을 이루려는 수행법이다. 때문에 간화로 해야 할지 묵조로 해야 할지 고민의 문제가 나온다. 깨달음을 위한 방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명답이 있다. 자기 마음이다. 선은 내가 내 자신을 알아차리면 끝이다. 중요한 것은, 성불의

의심없이 앉아있으면 못 깨우쳐

원력은 바로 직지인심에 있다. 또 이를 통한 견성성불에 있다. 다른 방법이 필요 없다. 단지 방편에 따라 묵조가 필요하면 묵조를, 간화가 필요하면 간화를 할 뿐이다.

▲묵조선에서는 '회광반조'를 중시합니다. 묵조선의 수행요체는 무엇입니까?

-욕심을 부려 싸움을 했다고 하자. 하나는 악으로 하나는 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근본은 똑 같다. 하나는 서두르고, 하나는 거칠 뿐이다. 싸움을 하다가도 '이것이 아니다. 또 무엇 때문에 이러는가'를 돌이켜 깨치면 그것이 회광반조(廻光返照)다. 아무리 간절하게 간화선을 하더라도 그것의 근본을 돌이켜 보지 못하면, 천년만년이 가도 무명(無明)에 살 뿐이다. 눈이든 귀든 묵묵히 마음을 관조하면서 돌이키면, 모두가 자기라는 것을 깨치게 된다. 근본을 살펴보는 것이 회광반조다.

▲묵조선은 좌선을 강조합니다. 그럼 일할 때 걸을 때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합니까?

-거울은 항상 깨끗한 색깔만 비추지 않는다. 색깔이 더럽든 그렇지 않든 관계가 없다. 거울은 온갖 물건과 색깔을 비추지만, 그 속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는 마음을 비우는 것과 같다. 마음을 확인하려면, 서있든 앉아

깨달음의 내용은 본래성불

있든 선 아닌 것이 없다. 즉 거울 그 자체는 좋고 나쁜 것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를 비춘다.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처럼, 일할 때는 일하는 그 뿐이고, 걸을 때는 걷을 뿐이다.

▲요즘 들어 형식화 · 공식화된 공안들이 정작 재가불자들에게는 간절한 의심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좌선중심의 묵조선을 비판했던 간화선이 오히려 좌선주의에 빠졌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좌선은 묵조해야 할 모습을 들여다보는 행법이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습은 없다. 일할 때는 바로 일을, 놀 때는 노는 모습을, 울 때는 우는 모습을 들여다 볼 뿐이다. 마치 거울이 그렇다. 거울은 특정 색깔에만 비추지 않고 모든 색깔을 비춘다. 거울 자체의 작용을 알아차려야 한다.

간화라는 것이 결국 의심이다. 의심이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간화의 입장에서 묵조를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묵조에서는 화두를 들면 골치만 아프지 정작 깨달을 사람이 없다고 비판한다. 때문에 묵조는 좌선을 안정된 공부라고 주장한다. 서로에게 장단점이 있다. 어떤 것이 맞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본인 각자에게 있다. 깨달음은 워낙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실제로 눈앞에 있지만, 이를 믿지 않기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크게 의심해야 크게 깨닫는다는 말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

▲그럼 묵조선이 신심, 분심, 의심 등 3심이 부족한 재가불자에게 현실적인 선수행법으로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묵조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일본 조동종의 묵조선에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 했다. 즉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 했다. 1시간 앉아 있으면 1시간 부처님이고, 10시간 앉아 있으면 10시간 부처님이 된다고 했다. 이를 '지관타좌(只管打坐)'라 했다. 깨달음이니 뭐니 일체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다. 도원 선사는 깨달음의 심정을 '실제 보니 있는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귀를 못 알아서 문제다. 실제 깨닫고 보면, 구하지 말라는 그 말은 딱 맞는 가르침이다. 그러니 재가불자들은 본인이 확실히 알고 골똘히 깊이깊이 알면, 서산대사가 홀연히 닭 우는 소리에 문득 깨치게 된 것처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때문에 직접 실참을 해야 한다. 직접 구름을 해치고 푸른빛을 열어봐야 한다. 열어보기 전에 구름 밖에 빛이 푸르고 맑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열어보지 않으면 어둑 캄캄한 구름 밑에서 빛을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무엇보다도 간화선이든 묵조선이든 깨달음의 내용은 본래성불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스님은 "묵조니 간화니 하는 분별심을 버리고 회광반조하라"라고 강조했다. 묵조선이든 간화선이든 '본래성불'을 깨닫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묵조니 간화니 하며 수행법의 우열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내 마음이 부처' 알아차리면 끝나

특히 스님은 선수행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요체가 있다고 설했다. 선은 내가 내 자신 속의 불성을 알아차리게 하면 그 뿐이라는 설명이다. 즉 선은 본래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속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묵조든 간화든 수행법은 마음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인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이 '해도 한 바가 없이' 물들지 않고 생활하라고 당부했다.

남양주=김철우 기자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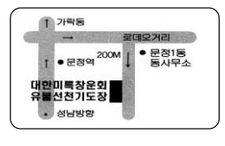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탐방 연등국제불교회관 '티베트 명상 강좌'


티베트 명상강좌에 참여한 외국인과 국제포교사들. 그들은 한결같이 "명상은 지금-여기를 온전히 살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고통 들이마시고 사랑의 숨결 후~

1월 8일 오전 11시가 가까워오자 파란 눈, 노란 머리 외국인들이 하나둘 연등국제불교회관 선방으로 모여든다. 자리를 잡고 가부좌를 튼 사람들은 고요히 명상에 젖어든 명상지도자를 따라 눈을 감는다. 어떤 소리도, 어떤 움직임도 없다. 단지 코끝을 오가는 얕은 숨결만 느껴질 뿐. 이때 명상지도사 리베스트 마크(Rivest Marc)씨가 적막을 깨고 입을 열었다.

"Just feel. And whatever happens in the room, follow me(단지 느껴라. 그리고 방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를 따라오라)."

올해 들어 처음 시작한 연등국제불교회관의 티베트 명상수업은 그렇게 시작됐다. '티베트 명상'을 배우고자 모인 외국인들을 위해 티베트명상 지도자 마크씨가 무료로 마련한 수업. 그 수업의 첫 과정은 커다란 물

■큰 물음표 안고 자기마음 살피기

음표를 가진 채로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 즉 위빠사나 명상이었다.

마크 씨는 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의식을 자극한다 해도,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라 했다. 모든 문제는 '흘러가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것에 집착할 때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새롭게 살지 못한다. 강둑에 앉아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듯, 우리는 그냥 마음을 그대로 살피면 되는 것이다.

티베트 명상 지도자 마크씨는 초지일관 차분하고 능숙한 안내로 10여명의 사람들의 고요와 평정을 이끌었다. 간간히 전화벨이 울리기도 하고 수업에 늦은 참가자들이 미닫이문을 여닫아 '잡음'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움직이는 마음을 관하는 시선은 마음 밖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렇게 40여분이 흘렀을까. 참가자들은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위빠사나 명상을 끝내고 '지금-여기'에서 명상하는 의미에 대한 생각들을 펼치기 시작했다. "지구 한켠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는데, 여기에 앉아 마음의 평안을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언젠가는 죽을 운명인데 심신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명상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과연 정당하고 의미있는 순간이란 언제란 말인가.

■'명상의 의미는 뭔가' 질문 쏟아져

결국 논의는 삼사라(Samsara · 윤회)로 이어지고, 서로의 생각을 보태고 다듬던 이들은 명상의 본디 의미를 새기며 의견을 모았다. "결국 명상이란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며, 자신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되면 고통 또한 끌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라고.

■나를 알고 타인을 이해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티베트 고유의 명상수행법 '통렌' 수련이 제시됐다. 통렌은 주고받음의 수행으로, 어둡고 나쁜 것을 들이마시고 밝고 좋은 것을 내뱉는 수행법이다. 티베트불교에 따르면 사람들 가슴 한가운데에는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즉 자기애가 형상화된 '진주'가 자리잡고 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 등을 들이마시게 되면 고통이 진주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진주를 닮은 선한 날숨으로 변하게 된다. 이 빛나는 날숨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즉시 흡수되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다.

이 같은 '고통을 흡수하고 사랑을 내어주는' 자비의 수행법을 진행하는 동안 이 자리에서 명상을 처음 접한 외국인은 그만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내 마음속 진주의 견고함에 놀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던 것.

그러나 그는 자신의 숨으로 그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빛나는 숨을 무한히 가꾸는 '공기청정기'가 되기로 했다. 맑고 밝은 치유의 숨을 내보내려는 '티베트 명상강좌' 참가자들의 시도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이어진다. (02)762-5347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3> 禪-敎 대표인물 가섭과 아난

현재 우리가 알고 접하고 있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는 부처님 당시 두 사람의 본래색깔이라기 보다는 후대 선종이라는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투영된 모습이라 할 것이다.

초창기 교종의 득세 속에서 선종은 율종사찰에 당우 한 칸을 얻어 더부살이를 하는 처지였지만 수행에만 전념했다. 두타행을 자청하고 고행에 익숙한 그들의 눈에 교가(敎家)란 부처님 말씀을 앵무새마냥 외우는 그런 부류로 비쳐졌을 것이다. 마음의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똥 닦개 같은 대장경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눈 어두운 무리들로 치부했다. 이런 저변의 기류는 나중에 가섭존자가 주관하는 결집에 아난존자는 부처님말씀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그래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집장소 대문 밖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감수해야만 했다.

가섭이 주관한 결집에서 쫓겨난 아난 선가의 사상·수행적 우월감 반영한 것

가섭존자는 두타행자로서 가장 선종적인 이상적 인간상에 근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삼처전심의 주인공이다. 부처님께서 꽃을 드시니 가섭만이 웃었다는 그 유명한 '염화미소'를 비롯해 늦게 온 가섭존자를 위해 부처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다자탑전 반분좌'와 열반하신 부처님께서 늦게 도착한 가섭을 위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셨다는 '곽시쌍부'를 통해 부처님의 심인(心印)을 바로 전수받은 선종 2대 조사의 모습으로 정착시켰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가의 대표적 인물인 아난까지도 가섭에게 "세존께서 금란가사를 전해주신 이외에 무슨 법을 전해 주셨습니까?(선문염송 81칙)"라고 되묻는 것으로 '선종적 매듭'을 짓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부처님의 말씀도 '선어록'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했다. 최초의 선종전등 역사서라고 알려져 있는 <보림전>에는 <사십이장경>의 전문(全文)이 실려있다. 경전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것이야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전문을 최초의 선종사서에다가 일부러 싣고있는 것은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중국인들에게 최초로 전해진 경전이 <사십이장경>이었다. 그래서 <보림전>이 편찬될 무렵 이 책은 이미 중국인에게 불교개론서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중화되어갔다. 선가에서는 이를 선종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보림전>이라는 전등사서 속에 편입시켰다. 이는 <사십이장경>을 선종의 초조인 '부처님 어록'이라는 지위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정지작업이었다. 우리들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음에 가장 부합된 수행자라는 사실을 내외에 과시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선가의 사상적 수행적 우월감과 자신감의 반영이라 하겠다. 이렇게 하여 <보림전본 사십이장경>을 '최초어록'으로 규정했다. 이는 뒷날 깨침의 언어인 선어록을 경전과 동등한 위치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마련이 그 목적이다. 그리하여 <사십이장경>×<유교경(遺敎經)>과 함께 위산선사의 어록<위산경책(潙山警策)>까지 합하여 '불조삼경(佛祖三經)'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선종의 필독서로 권장되면서 어록과 경전을 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었던 것이다.

어차피 역사란 근본적으로 현재의 역사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선종이 중국의 불교계 뿐만 아니라 사상계를 완전히 평정하면서 기존의 종파불교까지 완전히 흡수·소화시킨 새로운 수행불교의 완성을 의미한다. 즉 불교의 역사 역시 선가의 관점에서 다시 선종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시각 역시 당송(唐宋)시대의 선종전성기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요가학과 차별화 나섰다

원서강독회·웹진 발간 등 각 대학 특성살리기 힘써

각 대학 요가학과들의 특성화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요가학과(학과장 김순금)는 국내 요가학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판단 하에 요가학 연구에 매진하기로 했다. 요가 수련 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가학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한국 요가학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1월 20일부터 한달에 한번씩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원서강독회를 추진하며 결과물을 책으로 엮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에 나섰다.

춘해대 요가과(학과장 곽미자)는 '실용 요가'를 표방하며 생활 속에서 응용가능한 요가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3월중으로 웹진 <요가저널>을 발간해 생리학, 심리학, 철학 등의 학문과 요가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한 학과 차원에서 채식동호회를 운영하며 불살생을 강조하는 요가계율 등을 일반에 알리고, 1달에 한번씩 채식의 날을 선정해 요가수행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요가치료학과(학과장 조옥경)는 요가를 치료에 도입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을 요가로 진정·치료하는 것은 물론, 부모자식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어린이 요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등 요가치료 관련실습 및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강신재 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법사의 삶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 통신 법사학인 수강생 모집
13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불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5학년도 제14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사)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종단 · 법인등록 포함)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교육방법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학습도량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5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팩스 접수 가능)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팩스737-5305

Sale! 과일의 왕 두리안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6.5KG이상 55,000 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 원
후식으로 망고스틴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www.durianshop.com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29)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연기법(緣起法) 혹은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

지진과 해일로 수십만명이 쓸려 나간 그 아수라장의 바다를 황황히 뒤지다 지친 50대 여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기 더 계셔도 찾을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물음에 그 여인의 단호한 말이 카메라 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죽여 놓고, 시신도 못 찾고 내가 어떻게 돌아가요?" 저는 그 '죽여 놓고'라는 말에 더 큰 슬픔과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놀란 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식을 삼킨 것은 지진과 해일인데, 그 어머니는 왜 '자신이 죽였다'면서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국인 여성이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정인즉, 미군 지아이(G.I.)와 이혼한 이 여성은, 보모를 구할 형편이 못되어서, 아이를 집 안에 혼자 두고 직장에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에 불이 났고, 아이는 잠긴 문을 열지 못해 빠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 여성은 불난 집 앞에서 망연자실, "내가 애를 죽였다!"면서 꺽꺽 울었는데, 이 말을 들은 미국 경찰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 여성을 '살인죄'로 기소했던 것입니다. 한국인 변호사들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설득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한국인들은 사태를 '연기적(緣起的)'으로 이해합니다. 즉 하나의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단 '하나'에 돌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연 어떤 일의 '원인'을 주체적 행위자 당사자에게만 귀속시킬 수 있을까요. 사건이나 사태에 대한 원인과 조건들은 무수하고 다양하며, 그리고 그 원인과 조건은 직접적이고 인접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겉으로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간접적이고 격리된 것들까지 사슬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곧, 하나의 사태에 우주의 전 요소들이 간여하고 있다는 화엄(華嚴)의 근본 이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체적 연관 속에서 모든 '부분'들은 자기도 알 수 없는 일에 연루되어 있고,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소식입니다. "하나(一)는 전체(多)에 연루되어 있고, 전체는 하나 속에 침투하고 있다."

이 총체성 속에서 '나'는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유기적으로 간여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드라망(Indra 網)의 발상에 생래적으로 젖어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진과 해일이 자식을 죽여도 그 책임은 내게 있고, 불이 나서 아이가 죽어도 그 책임은 결국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닷가의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날 결혼을 시키지 않고,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을…." 아이를 방에 두고 문을 잠근 어머니 또한 과실과 의도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태의 구성에 있어 자신의 행동이 수많은 인연 가운데 결정적 하나로 기여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어디 그 분들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부임한 날 터진 비리에 대해서도 신임 장관은 땀을 흘리며 변명을 해야 하고, 이름도 모르는 말단 사병의 탈영에도 사단장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이 나라의 번영과 안정에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기(緣起)의 사고입니다.

그 이치를 모르고, 대통령이 "그걸 왜 내가 전부 책임져야 돼?"할 때는 모두의 억장이 턱 막힙니다. 억울하기도 하겠지요. 경제난이나 비리, 쌓인 국가적 아젠다 등은 취임 이전에 만들어진 공업(共業)의 결과물이고, 그걸 대통령이 혼자 감당하거나, 하루아침에 어찌할 수도 없는 일인데, 왜들 자신만 들볶느냐고 하소연하겠지만, 그러나 지도자가 '가슴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느끼고, 그 진정이 전달될 때, 사람들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 '하나 된 마음'이 모든 것을 기적처럼 한꺼번에 바꿉니다.

천둥소리에 화들짝 놀라 핀 노란 국화



인과율적 사고와 연기법적 사고

동양인들은 대체로 사태를 이렇게 유기적이고 전체적으로, 즉 '인연법적으로' 사고합니다. 이는 서양인들이 사태를 인과율적(causalistic)으로 생각하는 것과 극히 대조적입니다.

인과율적 사고란 하나의 단일하고 주요한 '원인'이 있어, 이 원인이 특정한, 거역할 수 없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산출한다고 믿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발상에서 서양인들은 주체적 의지를 갖는 자유로운 '개인'을 중심에 두는데 비해, 동양인들은 그보다는 하나의 사태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소들, 즉 동시구기(同時俱起)의 상황과 계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 자아 혹은 의지는 그런 다양한 계기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양철학의 오래된 주제인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논란이 동양에서는 심각한 문젯거리로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불교식으로 하자면, 자유의지는 인간의 의지를 지나치게 뻥튀기한 상견(常見)이고, 결정론은 인간의 발심과 역할을 하찮게 여긴 단견(斷見)에 해당할 것입니다.

동서양의 이 구분이 너무 단순한 일반화가 아니냐고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 리처드 니스벳이 쓴 <생각의 지도>는 이 구분이 유의미하고 실증적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 대학의 어느 공학도가 기대한 성적을 받지 못해 장학금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교수에게 항의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바탕 총기 난동을 부리고 자신도 자살하고 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문들은 이 사태의 '원인'으로 그 학생의 성격이나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 같은 사건을 중국의 신문에서는 그를 그 지경으로 몰고 간 상황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신문은 한두 가지 '인연(因緣)'만 바뀌었더라면 그 안타까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쓰고 있었는데 비해, 미국의 신문들은 한두 가지 계기가 달라졌더라도 그 중국계 학생의 '성격'은 결국 총기 사건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황에 오히려 늘어난 기부금

인연법적 사고는 죄의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전적으로 덮씌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죄를 지은 자에게는 관용과 연민을 내보이고, 또 한편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둘러 선 구경꾼들에게는 "네게 죄가 없다 하느냐"고 아프게 묻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한 본능적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자 자선냄비와 기부금은 30%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대한 미안함에다, 자신의 부와 자산이 '자기능력' 플러스, 수많은 인연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타기성(依他起性)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인지한 결과가 아닐까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자따라… ㊷ 승찬 스님의 '죄'

조태호



승찬 스님(출생미상~606): 중국 선종의 3조. 563년 2조 혜가 스님에게 계를 받고 달마의 법을 이었다. 저서로 <신심명>이 전한다.

네티즌 교리문답

주력과 염불의 차이는?

문 주력과 염불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주력은 밀교에서 진언이나 다라니를 외는 것이고,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며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IP 불학자)

답1 : 주력의 주(呪)는 밀교의 진언이나 다라니를 뜻하는 것으로, 힘을 다해 주문을 외는 수행법을 말합니다. 염불은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행법이다. 이름과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결국 하나의 궁극적으로 가는 그 중간과정이 조금씩 달라, 이름을 각각 다르게 붙인 것입니다.

가령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기도를 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는 것을 놓치지 말고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불행자)

답2 : 배가 고플 때 보리밥을 먹는 것과 고기를 먹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배가 부르다면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을 것이며, 몇 날을 굶어서 죽을 지경이면 보리밥 한 숟가락이라도 얻어먹는 다면 그 맛이 꿀맛일 겁니다.

주력과 염불 또한 이와 같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린다면, 어느 것이나 다 바라밀다의 세계에 도달할 것이며, 배부른 자가 밥 먹듯이 한다면 천년이 다가도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qjqtj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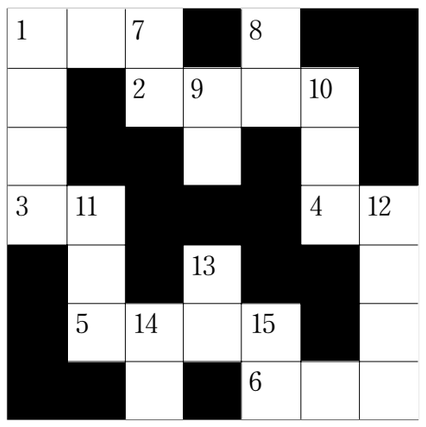
답3 : 염불 수행의 경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나무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염불(稱名念佛)'과 정토의 경계를 관하는 '관상염불(觀相念佛)'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상염불은 지관(止觀)의 수행입니다. 이를 통해 정토의 경계에 대한 신해(信解)가 깊어지면 이 땅에서도 깨달음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염불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수행은 천수주력, 옴마니반메훔 주력, 능엄주력 등 다양합니다.

주력 수행은 염불수행을 해서 염불삼매에 들 듯이 다라니를 외 삼매에 들어가 깨달음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주력수행입니다.

결국 염불이든 주력이든 좁은 의식세계를 넓고 깊게 펼쳐서 긍정적인 자세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마음 수행법입니다. (노거사)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인공으로 '욘사마'라 불림 2. 성룡과 알란 탐이 출연한 1986년 홍콩 영화 3. 도표식으로 나타낸 종족의 계보, 보첩이라고도 함 4. '○○삼거리 흥흥~'이렇게 시작하는 민요 5.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둔 곳(사적 제56호) 6. 임금의 음식에 독이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숟가락.

세로 1. 우리민족을 일컬어 흔히 '배○민○'이라 한다 7. 준거하여 적용함 8. 뛰어난 문학가를 일컬음 9.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일을 맡은 경찰 10. 도리천의 왕 11.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행동 12. 이상은 높지만 실력이 따라주지 않음을 일컫는 사자성어 13. 규소와 산소 · 수소의 화합물 14. 과거 주막에서 술을 팔던 여인 15. 임금의 은혜, ○○이 망극하나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 없으면 혁명도 없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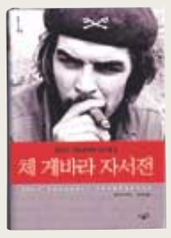
● **체 게바라는**

1928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전공, 1951년 23살의 체 게바라는 친구 알베르토 그라나도와 함께 8개월간의 긴 여행길에 오른다.
1954년 과테말라 혁명에 참가했다가 탈출한 체 게바라는 멕시코로 망명한 후 1955년 카스트로를 만나 쿠바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반군사령관으로서 게릴라 투쟁을 이끈다.
1965년 4월 어느날, '나는 정치가가 아니라 혁명가이다. 쿠바에서 내가 할 일은 모두 끝났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1967년 10월 8일 부상을 입은 체 게바라는 미국이 지휘하는 볼리비아 반군추격대에 생포돼 총살됐다. 그의 유해는 30년이 지난 1997년 발견돼 쿠바로 돌아왔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출판계에 불어닥친 열풍 중 하나는 체 게바라(1928~1967) 관련 서적의 출간 러시였다. 현재 국내에 번역된 체 게바라 관련 책만 해도 20권이 넘는다. 특히 장 코르미에 프랑스 파리지앵잡지 기자가 쓴 <체 게바라 평전>은 이미 오래전에 출간됐지만 현재까지도 시내 유명 서적의 베스트 판매 순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 얼마전에는 체 게바라가 젊은 시절 남미 대륙을 종단하면서 현실에 눈을 떠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가 국내에 개봉돼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의 젊은 혁명가인 체 게바라에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젊은이들이 주목하고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에 새로 출간된 <체 게바라 자서전>을 꼼꼼히 읽다보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풀린다. 검은 베레모에 손질하지 않은 긴 머리칼, 텁수룩한 턱수염, 정열적인 눈빛, 굳게 다문 입술…. 아르헨티나의 촉망받는 의사출신으로 인간을 옭아매는 모든 독재에 대항하기 위해 전세계 전쟁터를 뛰어다닌 1960년대 저항운동의 상징 체 게바라.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우리 세기에서 가장 성숙한 인간"이라고 칭송했던 체 게바라의 일대기를 다룬 이 책은 자서전이지만 체 게바라가 직접 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 어느 때라도 자기 분신처럼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며 광적일 정도로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이 책은 바로 그가 직접 쓴 여행기, 일기, 에세이, 연설, 문학비평, 논문, 독후감 메모 같은 글과 가족에게 보낸 편지, 인터뷰 기사, 직접 찍은 사진 등 그가 남긴 수많은 육필 기록들을 연대기적으로 편집한 것이다. 그래서 불꽃같은 혁명가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시집을 끼고 다닌 로맨티스트이자 따뜻한 휴머니스트로서 체 게바라의 매력 넘치는 모습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바로 체 게바라의 이런 인간적이고 소박한 모습때문에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에게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있다.



체 게바라 자서전
체 게바라 지음
박지민 옮김
황맨 펴냄
1만3천원

그의 진솔한 매력은 언젠가 그가 기자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자네가 쓴 기사를 읽었네. 나를 좋게 묘사해 주어서 고맙다고 해야겠군. 그렇지만 너무 좋게 묘사했군. 역사를 기록해야 하는 혁명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손가락에 꼭 맞는 장갑을 끼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고수해야 한다는 점이네. 기사를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자네가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모든 부분을 빼게.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것에는 각별히 주의하길 바라네" 라고 자신을 위해 좋게 기사를 쓴 친구에게 충고의 편지를 보냈다.


1959년 아르헨티나의 <라디오 리바다비아>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체 게바라(사진 맨 오른쪽).

혁명동지들로부터 '체(기쁨 슬픔 놀람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나의'라는 뜻을 지닌 인디언 토속어)로 불린 게바라는 58년 산타클라라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59년 1월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입성한다. 쿠바 혁명정부에서 국립은행 총재, 공업장관 등을 역임한 그는 남미 각국을 돌며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외교활동을 벌인다. 그 뒤 쿠바에서 2인자 자리를 미련없이 버린 그는 65년 내전중이던 콩고로 날아갔고 이듬해엔 볼리비아 산악지대에서 혁명을 위한 게릴라전을 감행한다. 그러나 대오를 이탈한 부하의 배신으로 그는 사선(死線)에 내몰린다. 그 최후의 결전에서 17명의 대원들과 함께 미국이 지원하는 327명의 레인저부대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운명의 신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적의 총알이 장딴지를 꿰뚫는 처절한 교전 끝에 게바라는 결국 체포됐다. 그의 유언은 짤막했다. "카스트로에게 전해주오. 이 실패가 혁명의 종말은 아니라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없이는 혁명도 없다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남자의 후반생
모리야 히로시 지음 | 양억관 옮김
푸른숲 | 1만1천원

한 사람의 인생에서 후반부의 삶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은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중국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스물 두 명을 선정해 그들의 후반생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언제 어떤 형태로 삶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책은 스물 두 명의 후반생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하고 말았을 나이에 인생의 꽃을 뒤늦게 피운 사람들, 인생의 절반을 산 다음 변신을 꾀해 성공한 사람들, 좌절과 굴욕을 딛고 일어서 후반생을 개척한 사람들, 일생 일대의 승부수를 던져 삶을 전환한 사람들, 평생 도전 정신을 불태우며 자신의 뜻을 실현한 사람들, 세속을 멀리하고 공명을 물리친 사람들 등이다.

일찍이 정치에 뜻을 두었지만 쉰이 넘어서야 노나라에 등용된 공자같은 이는 '인생을 늦게 꽃피운 사람들'에 속한다. 이름난 책사에서 천하의 거부로 이름을 날린 범려, 날카로운 책사에서 후덕한 재상이 된 진평 같은 경우는 '산뜻하게 삶을 바꾼 사람들'이다. 또 궁형을 자처해 사형을 면하고 불후의 명작 <사기>를 남

인생 역전 꿈꾸는 40대에게

긴 사마천은 '좌절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들중 특히 돼지를 키우며 마흔이 넘어 공부를 시작해 여든 가까운 나이에 승상이 된 제나라 사람 공손홍의 이야기는 감명깊게 전해진다. 그는 젊은 시절 지역의 옥리였으나 죄를 짓고 관직에서 물러난 뒤로 돼지를 길러 생계를 꾸렸다. 그러다 마흔이 넘어서부터 '춘추의 잡설'을 공부해 조정 박사로 임명됐다. 학문에 뜻을 둔지 20년이 지나서다. 그러나 무제의 미움을 사 낙향하고, 또 다시 인고의 세월을 10여년 보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한 그는 마침내 문관의 최고위직인 승상에 올랐다. 평생 도전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성공할 수 밖에 없다. 동진의 명장 도간이 두드러진 예다. 지방출신으로 중앙관리가 된 도간은 모함을 받아 좌천되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더욱 분발해 미래의 길을 열어간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100장의 기와를 날라 지붕에 올렸다.

"왜 일부러 이런 힘든 일을 하십니까?"라고 부하들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언젠가 다시 중앙으로 불려갔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산 그는 이처럼 성실하고 도전적인 삶을 살았기에 훗날 '동진의 기둥'이라 불릴 수 있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황혼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첫새벽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인생의 지도를 그려간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고난과 좌절을 딛고 역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갔다. 이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후반부를 멋지게 살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김지훈(강원대 중국학과 강사)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조립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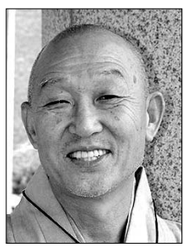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잡설 속에 송곳이… 종림 스님의 넋두리



종림 스님의 첫 산문집 <망량의 노래>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종림 스님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탈한 웃음을 지으며 약간 어눌한 경상도 사투리로 '그냥 잡설이지 뭐'라고 흘리듯 얘기하는 모습에 속아(?)서는 안된다. 팔만대장경을 전산화하는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수장(守長)이자 해인사 도서관장을 역임한, 불교계의 유명한 독서광인 스님의 20여년 사색의 예리한 송곳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망량(魍魎)은 이매망량의 준말로 산과 물, 나무와 돌 따위의 정령 도깨비들을 말한다. 이 책의 글들이 떠도는 도깨비들의 웅얼거림일 뿐이라는 뜻에서 붙인 제목이다."

책의 후기로 쓴 글에서 스님은 자신의 글을 '잡설'이나 '넋두리'로 치부하려 한다. "대개가 문제 제기로 그친 어설픈 글"이고 "옳고 그름을 떠나 구경자로서 내가 지나온 흔적일 뿐"이라는 변명 역시 글에 담긴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들을 숨기려는 의도로 읽힌다.

책을 펼쳐보자. 첫 번째 묶음의 '유토피아 꿈꾸기' '이데올로기라는 환상' '초탈의 이상' '도피의 메커니즘'은 인간이 지향하는 '이상향'과 그 한계를 보여준다. 유토피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이상향이 추구하는 바와 그 한계를 짚어본다. 더불어 스님이 왜 출가를 하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도 숨겨져 있다.

"나는 나 같은, 고뇌하는 인간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는지도 모른다. 엉터리 같은 고통과 고뇌를 내 선에서 끝내기를 바랐을 뿐이다."

두 번째 묶음은 지은이 자신이 삶의 탈출구로 삼은 불교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선(禪)적인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한 자답(自答)이다.

"선적인 방법은 객관화하는 일체의 대상이나 관념을 부정함으로써 대상의 우상화나 관념적인 내용의 절대화가 낳는 병폐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범신론적인 실재론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다."

화려한 수식이나 꾸밈을 배제한, 담백하고도 직설적인 문체가 우리 사회와 불교에 대한 애정어린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여수령 기자**



망량의 노래
종림 스님 지음
호미 | 1만원

문화재 용어 한글과 영어로 풀이



한국문화재용어사전 김광언 외 지음 | 1만8천원

'건칠불이 무슨 뜻이지? 반가사유상은 영어로 어떻게 설명할까?'

누구나 한두 번쯤 사찰이나 박물관의 문화재 안내판을 들려보며 들었을 법한 의문이다. 최근에는 쉬운 우리말로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안내문에는 어려운 전문용어가 가득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은 문화재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은 최근 문화재 용어를 우리말과 영어로 각각 풀이한 <한국문화재용어사전>(Dictionary of Korean Art and Archaeology)을 출간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나 고미술 관련 용어의 영문 표기와 해설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이 사전은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편,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긴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전문학자 17명 집필 · 감수 · 자문
고고학 · 미술사 관련 용어 2800여개 뽑아
한자 · 영문 표기에 한 · 영 해설까지 덧붙여

사전에는 문화재 관련 일반도서나 안내문 등에 자주 등장하는 건축학 · 고고학 · 미술사 · 민속학 관련 용어 2,824개가 담겨 있다. 각각의 표제어는 한자표기, 로마자 표기, 국문해설, 영문표기, 영문해설의 순으로 풀이되어 있다.

예컨대 '대좌'라는 항목을 펼쳐보면 '臺座'라는 한자어와 우리말 발음을 영문으로 표기한 'daejwa', '불상이나 보살상 등을 안치하는 받침'이라는 설명이 함께 나오는 식이다. 또한 대좌의 영어 표현인 'pedestal'과 그것을 영어로 풀이한 'a decorated pedestal where statues of Buddha or bodhisattvas are placed'가 수록되어 있다. 표제어와 관련된 풍부한 사진도 이해를 돕는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펴낸 <한국문화재용어사전>은 우리 문화재 용어를 한글과 영어로 쉽게 풀이한 책이다.

한 손에 잡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책이지만, 그 내용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기획에서 출판까지 3년이 소요됐고 국내외 전문학자 17명이 집필과 감수 · 자문을 맡았다. 유홍준 문화재청장(회화)과 김광언 교수(인하대, 민속학) 이청규 교수(영남대, 고고학) 윤용이 교수(명지대, 도자사) 이강근 교수(경주대, 건축학) 조은정 교수(한남대, 조각 공예)가 각각 자신의 전문분야를 맡아 집필했다. 총괄 감수와 자문은 영국 런던대 도야 · 아프리카대학 로데릭 위트필드(Roderick Whitfield) 교수가 했다.

대표집필을 맡은 김광언 교수는 "문화는 국제 사회에서 교류의 축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수단인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의 문화재와 고미술 용어를 종합하여 영어로 엮는 최초의 시도"라고 출간 의의를 밝히고 있다.

책을 펴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국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 재단은 앞으로 사찰과 불상, 서원, 전통회회 등의 시리즈물을 발행해 우리문화 알리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인도불교는 왜 힌두이즘에 녹아들었을까



인도불교사상사
정순일 지음
운주사 | 2만5천원

아비담마, 불파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 밀교, 선종….

오늘날 우리는 한 가지에서 나왔다고 하기엔 너무도 다른 모습의 불교를 만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어렵다'고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불교가 각 시대나 나라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불교의 숱한 갈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먼저 알아야 한다.

불교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불교의 탄생지인 인도를 알아야 하고, 인도를 알기 위해서는 인도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지리조건과 기후, 인종, 언어, 종교, 풍습에 있어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다양함을 간직하고 있는 인도가 바로 불교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정순일 교수(원광대)는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현학적인 철학 혹은 기복신앙으로 치부하거나 특정한 수행방편에 치우쳐 불교수행의 큰 흐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의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는 <인도불교사상사>를 펴냈다.

그렇다면 왜 책의 제목은 '인도불교사'가 아닌 '인도불교사상사'일까? 단순한 역사적 흐름만을 짚어보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태동하고 발전하다 소멸하는 역사적 과정을 따라 형성되는 교학(敎學)의 핵심을 짚어보는데 이 책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정 교수는 말한다.

정 교수는 불교가 다양한 모습으로 각 나라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달음을 중시하는 합리성과 이에 바탕을 둔 포용성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포용력으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사상을 꽃피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의 적응력과 포용력은 불교가 힌두이즘에 녹아들 수 있는 여지가 되었고, 자신의 출발점을 상실하고 힌두의 늪에 빠져들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어 인도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정 교수는 주장한다.

불교의 형성과 발전, 쇠퇴라는 일련의 과정을 책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11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지만 고대 인도의 종교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 그 사상의 변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아 불교의 흐름과 기본 이념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새로나온 책



■ **<깨달음에 이르는 고귀한 길 불교>**(줄리앙 리에스 지음, 이종인 옮김, 동아일보사, 1만원)=동아일보사가 펴내는 '세계의 종교' 시리즈. 벨기에 루뱅-라-뇌브 대학 교수인 지은이는 불교의 핵심 교리와 역사, 중국과 티베트 · 한국 · 일본의 불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 **<붓다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 88>**(히로 사치야 지음, 김향 옮김, 가람기획, 9천8백원)=사회가 점점 더 조직화되고 첨단으로 내달릴수록 우리는 '정신적인 여유'를 갈망하게 된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나눠주실까? 일본 기쇼(氣象) 대학의 히로 사치야 교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주제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알려준다. 이웃에게 던지는 따뜻한 말 한 마디가 그 어떤 보시보다 소중하고, 무조건 계를 지키는 것보단 계를 어겼을 때 그것을 반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읽을 수 있다.



■ **<상락향 이야기>**(한정섭 · 정을수 지음, 불교정신문화원, 1만2천원)=경기도 가평군에 상락향기 도원을 짓고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한정섭, 정을수 법사의 생활불교 체험담. 상락향 터를 사게 된 사연과 그곳에 상락향 기도원을 지으며 겪었던 사연들이 소개되어 있다. 효봉 스님과 탄허 스님 등 선지식들과의 인연담도 담겨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오체투지	한 경 혜	반디미디어
3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 시 아 문
4	입보리행론	샨티데바	하 얀 연 꽃
5	도심 속의 도인 석주 큰스님	김 현 준	효 림
6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 터
7	한국의 선사들	김신곤 외	우리출판사
8	물 속을 걸어가는 달	김 진 태	학 고 재
9	왜 사는가	무량 스님	열 림 원
10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소운 스님	도 솔

도서 안내 : (02)737-0695


바로보인 환단고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히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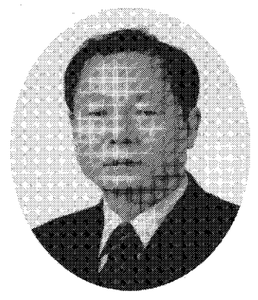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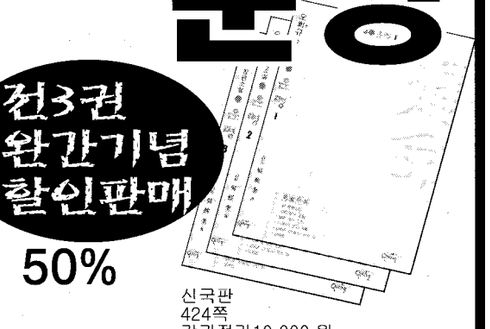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해광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 정가 12,900원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숙명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집 ·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부동산(집 · 땅 · 가게 · 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대인관계(사업 · 교제 · 결혼 · 취직)의 궁합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판단하는 법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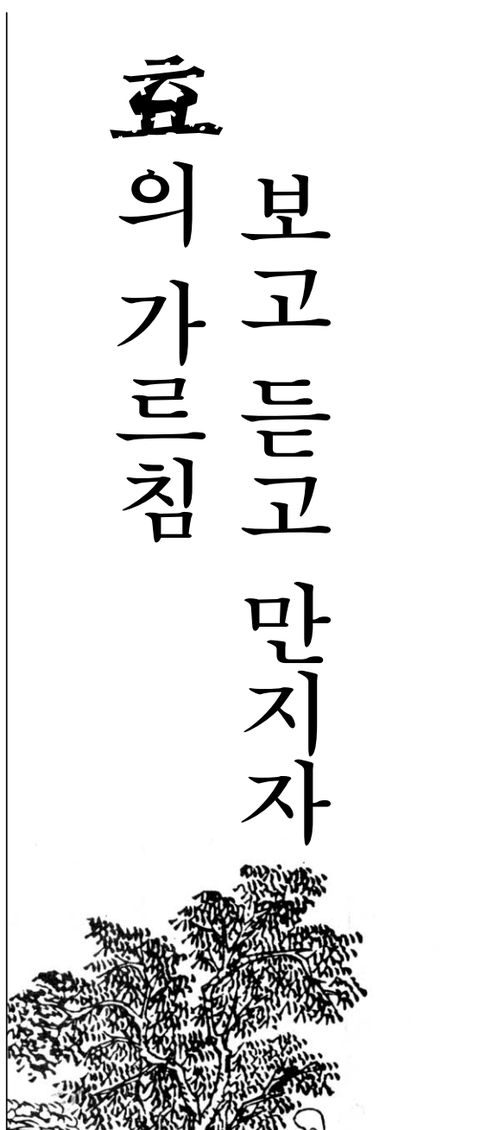
易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완결편-
녹현방정식은 몇 천년간 내려온 두루뭉실한 이론을 세계 최초로 수치화하여 공식에 대입하였다.
격국(용, 희신=추구하는 삶)과 심성체질(원초적인 본능=끌려가는 삶)이 나오며, 운의 순위(마음의 만족도)와 격국의 크기(상, 중, 하격)까지 나온다.

왕초보부터 외국인까지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녹현 이세진 지음 / 신국판 / 408페이지 / 정가 25,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최근 이혼률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페이지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컴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10,000 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효의 가르침 보고 듣고 만지자





1월 28일 개관하는 용주사 효행박물관을 미리 찾은 새싹불자들. <부모은중경>에 스민 불심과 효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미리 가 본 용주사 효행박물관

박물관에 가면 유형의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녹아있는 무형의 사상과 가치를 읽어내는 것은 철저히 관람자의 몫이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갖고 설립된 테마박물관의 '유물과 그 정신을 잇는 작업'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화성 용주사(주지 정락)는 '효'를 주제로 한 70여 평 규모의 '효행박물관(관장 보승)'을 1월 28일 개관한다. 정조의 효심으로 건립된 용주사의 역사적 특성과 그 안에 스민 정신을 관람자들에게 전시유물로써 오롯이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효심(孝心)'을 '불심(佛心)'과 접목해 '불교적인 효'를 제시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그렇다면, 그 박물관 안에는 어떤 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대표적인 전시유물은 역시 '불설부모은중경판'이다. <불설부모은중경>은 부처님이 제자 아난에게 부모님의 은혜를 설하는 내용을 담은 경전으로, 자비정신의 바탕이 되는 효심을 강조한 것이다. 경전내용과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변상도가 함께 제작되는 것이 통례라 다양한 양식의 판본이 전국 곳곳에 남아있지만, 용주사 경판의 경우 정조가 효심으로 직접 제작해 하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조는 보경당 사일 스님으로부터 <부모은중경>에 대한 설법을 듣고, 뒤주에 갇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마음으로 경판을 만들었다. 특히 변상도의 경우 다른 판본이 이야기의 배경만 간략히 표현한 것과는 달리, 섬세하고 사실적인 표현이 돋보인다. 누구의 작품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홍도 작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조가 자신의 불심과 효심을 바탕으로 직접 지은 게송 '어제 화산용주사봉불기복게(御製花山龍珠寺奉佛氣腹偈)'의 원본과 목판도 눈길을 끈다. 정조는 "절은 현륭원의 재궁(齋宮)으로 건립했습니다. 소자(정조)는 팔만 사천 법문의 경의(經義)를 베껴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삼가 게어(偈語)를 지어 삼업(三業)의 공양을 본받아 은혜에 보답하는 복전을 짓습니다"라며 기복게를 짓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부모에게는 길러주신 은혜가 있으니 공경으로써 공양하면 이것이 바로 보은의 길"이라며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을 드러내고 있다.



용주사 효행박물관장 보승 스님.

이밖에도 정조 관련 왕실 유물도 진열대에 오른다. 사도세자와 그의 비 혜경궁 홍씨의 위패를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목조감실(81x223㎝)', 사도세자의 묘소에 성묘하며 거행된 행사를 그린 '화성능행도(華城陵行圖)', 정조가 하사한 왕실 금동 · 청동 향로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국보 제120호로 지정된 범종, 보물 제1095호로 지정된 봉림사(용주사 말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등 용주사와 용주사 말사에서 모은 총50여 점의 유물들을 마주할 수 있다.

정조가 효심으로 제작한 '불설부모은중경판' 눈길
28일 개관… 입체적 시스템 운영으로 교육 효과 기대

이 같은 전시 유물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다. 아이들이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각 · 청각적 효과를 동원한 '아이글래스 시스템', 용주사 사찰문화재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담아 보여주는 '매직비전', 대웅보전의 삼세불 후불탱화를 모사한 문양을 형광등 빛으로 발광시킨 '삼세불 후불탱화 와이드 칼라'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탁본 실습공간을 마련해 <부모은중경> 인경 실습을 비롯, 범종문양 등 아름다운 문양을 탁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용주사 효행박물관장 보승 스님은 "박물관은 유물을 보호 ·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물관람을 통한 '교육'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며 "문화재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효심과 불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사회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031)234-0040

글=강신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사찰 전체가 박물관으로

서울 안양암 … 개관 기념 유물전도

1889년 정토도량으로 창건된 곳. 조선말기 양식으로 조성된 전각, 불화, 불상, 공예품 등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는 그곳.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소재 안양암이 사찰박물관으로 1월 19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전국 주요사찰에서 성보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찰 전체를 박물관으로 꾸며 선보이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총 1157평의 안양암에는 석감마애관음보살상(제122호), 대웅전 봉안 아미타후불도(제185호), 감로도(제186호), 팔상도(제187호) 등 15점의 서울시유형문화재와 천오백불상을 비롯한 1500여점의 서울시문화재자료가 있다.

이 외에도 사찰부지 전체와 7개 전각도 서울시유형문화재 최종심의 예고를 받아 사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안양암이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통사찰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불교미술박물관 권대성 관장의 원력이 컸다. 권 관장은 1997년 개발위기에 몰린 안양암을 매입한 후 각종 송사에 시달리면서도 원형보존을 위해 노력했다. 권 관장은 종중에서 물려받은 땅과 개인사업으로 번 돈으로 93년 원서동에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불향(佛香)을 피워올리던 안양암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한 것을 기념해 특별전도 마련했다. '살아있는 사찰박물관'이자 '한국불교미술박물관(관장 권대성) 별관'인 안양암의 유물들은 서울 원서동 한국불교미술관 본관에서 역시 19일부터 공개된다.

700여점 일반에 첫 공개
한국불교미술관에서 19일부터

본관 기획전시실 개관을 기념해 '안양암에 담긴 중생의 염원과 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2점의 괘불(掛佛)과 영혼을 올려 중생을 구제하고자 했던 법음구(法音具), 화려한 색상으로 호법성중(護法聖衆)의 위엄을 표현한 각종 시련의식구(侍輦儀式具) 등이 선보인다.

이 외에도 현세에서 내세까지 이어지는 중생들의 바람을 담은 각종 다라니와 부적,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중생을 제도하는 경판 및 서적, 안양암내에서도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었던 호계첩, 승적명부 등 안양암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사적기류(事蹟記類)를 포함해 총 700여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2004년 5월 안양암이 한국불교미술박물관 별관 사찰박물관으로 서울시청에 정식 등록된 후, 같은 해 12월 약 1600여점의 소장 유물을 수록한 도록을 발간하면서 추진됐다.

전시를 준비한 권 관장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치닫는 삶 속에서 현세를 잘 마감하고, 죽음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상을 꿈꾸는 중생들의 간절한 염원과 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2)766-6000, www.buddhistmuseum.co.kr

강신재 기자



사찰 전체가 박물관으로 꾸며진 서울 창신동 '안양암' 전경.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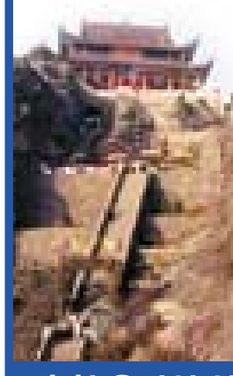
여행경비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산사 순례 및 대련 관광/정주로 이동
2 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철탑, 포공사 관광
3 일	전용버스	소림사, 탑림, 백마사 순례
4 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5 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중국의 6대조를 모신 중국의 6대조를 모신 순례 5일

여행경비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 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 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 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 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옹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천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참옻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山寺
참옻 조청 · 약도라지 조청

◈ 참옻
- 어혈, 노폐물, 피로독소 해소
- 몸의 냉기 냉증의 개선
- 오장육부 기능의 정상화
- 항암, 원기회복에 기여

◈ 약도라지
- 기관지, 천식, 기침의 완화
- 호흡기 질환 개선
- 폐기능 강화
- 거담, 배농작용에 기여

● 山寺 참옻 조청은 전래비법으로 참옻나무의 유독성은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을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옻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山寺 참옻 조청은 국내산 무공해 원료만을 사용하여 7일 동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솥 고아지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 054-372-3166 (보 갑 사)

최 고 의 선 물

2005年新/製/品

스님用 滿行靴

본 제품은 수제화로 특수 제작되었습니다.

• 상표등록출원 제 2956호
• 의장등록출원 제 35872호



■ 색상 : 회 색 ■ 규격 : 215~290(mm)
■ 보급가 ₩60,000 ■ 불자용 색상은 보라색, 흑색
■ 만행화(滿行靴)털신 특징
① 발, 볼, 등 감안 스님 치수에 맞도록 수제화로 제작하였습니다.
② 겨울 동절기에 냉기를 차단하는 특수 바닥창 논스립 우레탄 소재.
③ 외부소재 극세사 천연 방수 원단으로 내부에는 특수털로 내장 제작.

※ 스님, 도반님께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

만행화 www.manhaenghwa.co.kr

주문전화 TEL : (02)927-5715 H.P : 011-9000-5715

농협 063-12-250427 예금주 : 구자민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6>



덧없다, 참 덧없다 ②

경전을 읽을 때마다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부처님께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내용이 그다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전의 인도땅이라면 풍광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공해도 전혀 없었고 콘크리트 투성이의 살풍경한 도시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자연주의이니 웰빙이니 하는 것들이 조금도 인위적인 힘을 띠지 않고 곳곳마다 고스란히 펼쳐져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나마 저녁해가 토해놓은 노을로 붉게 타오르는 상두산의 풍광을 바라보는 경을 발견하였습니다만 부처님은 엉뚱하게도 이렇게 '감탄'하십니다. "보라, 세상은 불타고 있다. 사람도 저와 같이 불타고 있다. 눈이 타고 색이 탄다. 귀가 타고 소리가 탄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타고 있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불타고 있다."(<잡아함경>8권197경)

자연에 묻혀 계절의 추이를 노래하면서 그에 은근히 깨달음을 향한 납자의 마음가짐을 실어보는 수행자들의 멋진 글귀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요즘의 서정으로 볼 때 부처님은 멋도 없고 아름다움도 모르는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구 곳곳에서 전해오고 있는 자연재해 소식들은 이런 저의 생각이 얼마나 용렬하였는지를 단번에 일깨워줍니다.

<기세경>이라는 좀 길이가 긴 경이 있습니다. 이 경에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되풀이 되는 네 가지 현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의 머묾, 세계가 머문 뒤에 파괴됨, 세계가 파괴된 뒤에 다시 생김, 세계가 생긴 뒤에 머묾이다. 이렇게 세계가 이루어졌다가 무너지는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된다."

이런 되풀이되는 일련의 과정은, 이루어지고(成), 그 상태로 잠시 머물다가(住), 파괴되고(壞), 그렇게 파괴된 뒤에 텅 비고 만다는(空) 성주괴공의 네 가지 모습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회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쉬지 않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생노병사라는 네 가지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백년도 채 살지 못하는지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성과 소멸의 주기가 인간에 비해 말할 수 없이 긴 우주의 차원으로 눈을 돌려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은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영원성을 툭하면 자연에 견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거나 사군자의 기상을 배워야 한다거나 세상이 무너져도 변절하지 않는다거나(이 말은 그만큼 세상이 영원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태산 같은 믿음을 품었다거나 혹은 물처럼 바람처럼 걸림 없는 삶을 살자고 노래하였으니까요. 이 얼마나 짧고 얕은 식견의 소치요, 얼마나 현란한 세 치 혀끝의 장난입니까?

"나면 죽지 않는 자가 없으며, 천지에는 무너지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천지가 영원한 것이라 여기지만 부처는 천지가 허공과도 같은 줄 알고 있다. 천지도 성패(成敗)가 있거늘 몸을 버리지 않는 자는 또 어디에 있겠는가."(<불반니원경>)

부처님께서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찬미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주의 이런 긴 주기를 한눈에 보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매우 크고 넓으나 대문은 꼭 하나뿐이고, 그 안에 1백 명, 2백 명 내지 5백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나 낡아서 벽과 담은 무너지고, 기둥뿌리는 썩었으며, 대들보는 기울어져 위태롭게 생겼으며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사방에서 불이 나 전체가 한창 타오르고 있는" 집 일뿐이었습니다(<법화경 비유품>).

자전과 공전을 쉬지 않는 지구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구'라고 한 마디로 쉽게 표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속에는 인간을 제외하고도 얼마나 많은 생명체와 에너지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달라지고 변해가며 무너지고 새로 만들어지면서 우리를 담고 있는 그릇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중생들 역시 잠시도 쉬지 않고 태어나서 늙어가고 무너지고 있거늘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을 내고 제 마음에 든다고 애착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중생들이 얼마나 가여웠을까요? 삼계가 불타오르는 집이라는 탄식을 토해내신 것을 보면 '이 중생들은 제 몸과 지구에 얼마나 더 무상한 일들이 펼쳐져야 그런 미련과 무지를 떨칠 수 있을꼬'하는 깊은 안타까움이 생생하게 전해져 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생성-소멸 반복하는 우주 원리 꿰뚫은 부처님
저녁 노을 불타는 멋진 풍광 앞에서도 탄식



대일 스님은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늘 '이뭣고'를 하라고 당부했다. 굳이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늘 행주좌와 어묵동정하면 그곳이 바로 법당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하더라도, 주위 환경이 안좋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싸우라고 강조했다.

있는 그대로 보려면 '이뭣고' 하라

지상 백고좌

대일 스님

(마천 영원사 주지)

대일(大日)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서울에서 출발한지 30분가량 지났을 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스님이 만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네. 당신 뜻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덜컥 취재에 응했다고 노발대발 하셨다고 하던데. 미안하게 됐어."

대일 스님을 만나뵈라고 알려준 스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아차, 싶었다. 어쩐지 일이 쉽게 풀린다 생각됐는데…. '스님다운 스님'이라는 말로 대일 스님을 추천해준 스님과 대일 스님 상좌스님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듯 했다. 하지만 내친걸음이었다. 승용차는 그대로 마천을 향해 달렸다.

점심도 거른 채 영원사 근처에 도착했지만 또 다른 난관이 우리를 기다렸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쌓여 걷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잠시 또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다'는 생각에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몇 걸음 걷지 않아서 숨이 가빴다. 조금 지나니 등 뒤로 땀도 배어나왔다. 하지만 눈으로 뒤덮인 산줄기에서 내려오는 알싸한 바람이 걷는 맛을 새롭게 했다.

영원사에 도착해 법당을 참배하고 나오는 길에 뒷짐을 지고 지나가는 한 노스님을 만났다.

대일 스님이었다. 반배 합장을 하며 인사를 드렸다.

나와 남 구분하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생겨

"연락 못 받았나. 나는 신문에 나올만한 스님도 아니고… 절 구경이나 하다가 가소."

안경 너머로 보이는 스님의 엄격한 눈초리에 더 이상 말을 붙일 엄두가 안 났다. 그렇다고 그냥 갈 수도 없고. 법당 앞에서 쭈뼛거리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난감한 표정으로 서있는 기자가 안스러웠던지 얼마 후 스님이 '차나 한 잔 하고 가소'하고 권했다. 얼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무식해서 법문해 줄 정도로 배운 것도 없다. 요새 난다 긴다 하는 스님도 많은데 이런 데는 뭐 하러 왔어. 여기 도량이야 좋지만…."

'도량이야 좋지'라는 스님의 말에 영원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다.

대일 스님은 출가한 뒤 전국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하다 영원사 인근 상무주암에 10년 정도 있었다. 이후 30년 넘게 영원사에서만 주석하면서 영원사를 복원했다.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953번지에 위치한 영원사. 전통사찰 제106호인 영원사(靈源寺)는 통일신라시대 고승 영원 대사가 건립했다고 전해져 영원사로 불린다. 지리산 중턱 해발 920m에 위치하고 있으며 합천 해인사 말사다.

영원사는 한때 내지리(內智異)에서는 제일 큰 사찰로, 너와로 된 선방 9채를 비롯해 100칸이 넘는 방이 있었다. 고승들이 스쳐간 방명록이라 할 수 있는 조실안록(祖室案錄)을 보면 부용영관, 서산, 청매, 사명, 지안, 설파상언, 포광 스님 등 당대의 쟁쟁한 고승 109명이 이곳에서 도를 닦았다는 기록도 있다. 여순 사건과 한국전쟁으로 건물 전체가 소실됐다가 대일 스님이 복원해 오늘에 이른다.

영원사 이야기가 나오자 스님의 얼굴이 약간 풀리기 시작했다. 영원사를 복원한 이유를 여쭤봤다.

"꼭 불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빈터로 있는 거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 됐지. 불사하는 체질도 아니고. 그럴만한 자격도 없고."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돌았다. 질문을 돌려봤다. 산이 깊을 뿐 아니라 혼자 계셔서 적적하지 않느냐고.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되지 큰 불편은 없다. 돈이

불교방송과 함께하는 인도 성지순례



부처님의 향기가 서려있는 땅, 인도
그 광활한 대륙으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불교방송이 인도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룸비니동산, 부다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라와 세계7대 불가사의 타지마할을 돌아보게 될 이번 성지순례는 8박 9일이며 출발은 2월 25일 입니다.

인천 수미정사 주지 종연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기념법회도 봉행하게 될 성지순례에 불자님 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동 참 금 : 2,140,000원, 비자비용 100,000원 포함 (8박 9일) ●비자 : 사진 3장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등
●신청마감 : 2월 15일까지
●출 발 : 2월 25일(금)
●문의전화 : 불교방송 705-5302~3

▶일정표

일 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2/25 (금)	인천 홍콩 델리	KE603 AI311	07:00 11:50 17:30 21:00	인천공항 집결 인천출발 홍콩 도착 후 중식 홍콩출발 델리 도착 후 호텔 투숙	조 중 한 식 석 기내식
				HOTEL | LE MERIDIEN OR MARRIOT	
제02일 2/26 (토)	델리 곤다	전용차량 아간열차	전일 19:45	호텔 조식 후 인도문, 대통령궁, 국립박물관 등 꾸뜨브미나르 관광 아간 열차편으로 바라나시 이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호텔식
				HOTEL | 아간열차	
제03일 2/27 (일)	기원정사 룸비니	전용차량	06:00 전일	곤다 도착 후 스라바스티 이동 후 불교2대 정사인 기원정사, 앙글리마라 동굴순례 후 국경통과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로 이동 마야부인사당, 구룡폭포연못, 아쇼카석주 순례 후 석식 및 호텔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호텔식
				HOTEL | NIRWANA	
제04일 2/28 (월)	룸비니 쿠시나가라 바라나시	전용차량	전일	호텔조식 후 쿠시나가르로 이동 부처님 열반당, 다비장, 최후설법지 순례 후 바라나시로 이동 바라나시 도착 석식 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호텔식
				HOTEL | RADISSON HOTEL	
제05일 3/1 (화)	바라나시 사르나트 부다가야	전용차량	전일	호텔조식 후 갠지스강 일출, 성수목욕관람, 가트순례 후 부처님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순례 후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로 이동 석식 후 호텔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호텔식
				HOTEL | SUJATA HOTEL	
제06일 3/2 (수)	부다가야 라지기르 나라다 파트나	전용차량 아간열차	전일 18:55	호텔조식 후 마하보니대탑(금강보좌, 보리수), 니련선하, 수자타마을 순례 후 부다가야 출발 라지기르 도착 후 빔비사라왕 감옥터, 죽림정사, 영취산 순례 나란다 이동 후 불교대학터 순례 법화경의 성지 파트나로 이동 아간열차편으로 파트나 출발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호텔식
				HOTEL | 아간열차	
제07일 3/3 (목)	아그라 델 리	전용차량 아간열차	07:12	아그라 도착 후 호텔 조식 세계7대불가사의인 타지마할 및 아그라성 관람 후 델리로 이동 델리도착 후 석식 및 호텔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호텔식
				HOTEL | HYATT OR WARRIOT	
제08일 3/4 (금)	델리 홍콩	AI314	09:00 16:15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델리 출발 홍콩 도착 석식 및 홍콩야경 관광후	조 호텔식 중 기내식 석 한 식
제09일 3/5 (토)	홍콩 인천	KE604	00:40 04:55	홍콩 출발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귀성불하십시오귀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 및 항공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불교방송 일본 가고시마 성지순례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숨쉬는 곳 일본!
불교방송에서는 2월 27일 일요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동양의 나폴리, 가고시마를 시작으로 백제왕자를 제신으로 모신 미카토 신사, 미야자키에 조성된 백제마을 또 사보텐 허브원과 아리무라 용암 전망대 등을 관광하며, 저녁엔 온천욕으로 번뇌의 속진을 말끔히 털어내 보십시오.

이번 일본성지순례의 지도법사는 불광동 성불암 주지 묵산스님이 함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705국에 5302~3번으로 문의바랍니다.

●요 금 : 890,000원
●출 발 일 : 2월 27일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등

신규 여권 서류	여권 연장 서류
1. 주민등록증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여권 사진 2장 4. 여권 인지 대금 45,000원	1. 기존 여권 2. 여권 사진 1장 - 3개월 이내 찍은 사진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지 대금 4,500원 5. 단,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아야 함
일본 비자서류(60세이상)	**일본 비자서류(60세 미만)**
1. 주민등록증 사본 2. 여권 사진 2장 3. 비자 비용 5,000원	1.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사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주민등록증 사본 4. 여권 사진 2장 5. 비자 비용 5,000원
1. 스닐일 경우 위의 서류에서 재직증명서 대신 승적증명서가 필요함. 2.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사본이 주민등록등본상에 없으신 분은 호적등본 1통 필요함 3. 본인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사본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 없음	

▶일정표

일 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2/27 (일)	인천 가고시마 미야자키	KE785 전용버스	07:00 10:00 11:30 오후	공항 집합 및 인원 확인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가고시마 공항 도착 중식 후 가고시마 신궁, 에비노 고원 관광 후 미야자키 이동(2시간소요), 미야자키 신궁, 평화대교원 관광 후 호텔 이동하여 호텔석식 후 온천휴식	중 현지식 석 호텔식
				호텔 | 미야자키 관광 호텔급	
제02일 2/28 (월)	미야자키 난고쇤 미야자키	전용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난 고손이등, 백제왕자를 제신으로 모신 미카토 신사, 부여 낙화암을 본 뜬 백화정, 백제문화를 소개하는 자료관인 백제관 및 문화재창고인 정창원등 전일정 백제마을 시찰 미야자키 귀환하여 호텔석식 후 온천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호텔식
				호텔 | 미야자키 관광 호텔급	
제03일 3/1 (화)	미야자키 아오시마 사쿠라지마 가고시마	전용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아오시마 이동 아오시마 도깨비 빨래판 관광 및 아오시마 신사 우도신궁 참배, 사보텐 허브원 관광 후 사쿠라지마 이동 비지타 센터, 아리무라 용암 전망대 관광 호텔석식 후 온천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호텔식
				호텔 | 가고시마 고세라 호텔급	
제04일 3/2 (수)	가고시마 인 천	KE788	09:00 09:50 11:20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대한항공 편으로 가고시마 출발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조 호텔식
				감사합니다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 및 항공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BBS 불교방송 (02)705-5302~3 / www.bbsfm.co.kr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야 있으면 있는 대로 쓰면 되고. 그런데 요새 큰 절은 기업 아닌가. 관광상품화나 하고."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왔다. 이어 왜 평생 영원사에서 사는지 여쭈었다.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렇지. 요새 중들 죽고 나면 남은 돈 때문에 싸우는 모양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 신도들 시줏돈인데 종단으로 회향해야지. 또 대한민국 돈이 다 자기 것이면 뭐할 거야. 돈벌려고 머리 깎은 것도 아니잖아. 부처님 얼굴에 똥칠하는 짓이지."

거칠 것이 없었다. 질문하는 사람이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스님은 갑자기 기독교 칭찬도 했다.

원 세우는 일 제일 중요
청정함 없으면 깨달음도 없어

"기독교는 봉사를 잘하데. 옛날에는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니 요새는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더구먼. 그게 맞는 거야. 옛날에 성철 스님도 불공은 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 바깥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지."

가만히 들어보니 애정 어린 불교 비판이었다. 후학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었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알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커서 스님이 되더라도 수행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스님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바른 스승을 만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줬다.



대일 스님이 직접 법당 앞을 쓸고 있다.

"조선시대 여기 지리산 벽송사에 법계정심 선사라고 있었지. 여기서 감자농사나 하고 도토리를 주워 시장에 내다팔며 유유자적하게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왔지. 벽촌이라고 하더라도 큰 스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야. 그 스님이 법계정심 선사에게 '스님 밑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하자 스님은 공부할 사람이다 싶어 받아들였지.

그 후 한 3년이 흘렀어. 하루는 공부하러 온 스님이 3년이나 스님 밑에서 일만 했지 하나도 배운 것도 없고 허송세월만 보냈다 싶어 보따리를 쌌던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법계정심 선사가 떠나던 스님을 향해 주먹을 쥔 손을 치켜들며 이렇게 외쳤지. '이 곰 같은 놈아, 귓구멍이 뚫어지도록 가르쳤건만 모르고 그냥 가느냐. 법 받아가라.' 이를 본 스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았던 거야. 그 스님이 바로 지암 스님이라."

대일 스님은 요새 사람들은 참을성이 부족하다며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줬다.

"옛날에 베장사를 하던 한 총각이 고개를 넘을 때였다. 그 때 누더기를 입고 쉬고 있는 스님을 봤지. 안타까운 마음에 가지고 있던 베 한필을 스님에게 공양했지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총각은 저 스님 정도면 공부를 배울 수 있겠다 싶어 무작정 따라갔지. 그렇게 처소에 도착하자 무조건 일만 시키는 거야. 일을 하다하다 총각이 스님에게 언제 공부를 가르쳐 주냐고 물으니 스님이 솥을 걸어보라고 하는 거야. 솥을 걸고 스님에게 여쭈니 잘못 걸었다며 다시 하라고 해 시키는 대로 했지. 그런데 또 잘못 걸었다고 꾸중을 하는 거야. 그렇게 아홉 번을 하자 스님이 '이제는 됐다'고 말씀했지. 그 총각이 나중에 구정(九鼎) 스님이 됐지."

대일 스님은 무엇보다 진실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진실한 연후에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나는 공부할 줄도 모르고 견성도 못했어. 그저 하는 척 할 뿐이지. 그래서 남에게 가르쳐 줄 수도 법문할 수도 없어.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법문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지. 포교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다만 공부는 진실하게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자기 것이 되는 법이지."

스님은 또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와 남을 구분하다 보니 남보다 많이 가지려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한다는 것이다.

"〈원각경〉에 '무변허공(無邊虛空) 각소현발(覺所顯發)'이라는 구절이 나오지. 이를 두고 무변허공이 깨달음에서 나왔다는 의견과 무변허공에서 깨달음이 나왔다는 의견이 있어. 하지만 이를 둘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해야 돼. 즉 깨달음 없이 무변허공과 같은 청정한 경계를 얻을 수 없지만 청정함 없이 깨달음도 얻을 수 없는 것이야."



법당 앞에 선 대일 스님. 오늘의 영원사는 대일 스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이와 더불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힘이 아닌 덕(德)이나 선(善)으로 교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사람이 선하게도 악하게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의 종지부를 '이뭣고'로 찍었다.

"자네들은 서울에서 왔지만 온 것이 있나. 고깃덩어리만 여기에 왔지. 몸은 여기에 있어도 생각은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면 여기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있는 그대로를 보려면 '이뭣고'를 해봐. 그러다 보면 확철대오는 아니더라도 삶을 덜 고달프게 살 수는 있지."

길이 있어 가는게 아니라
내가 가서 길이 생기는 것

스님은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늘 '이뭣고'를 하라고 당부했다. 굳이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늘 행주좌와(行住座臥) 어묵동정(語默動靜)하면 그곳이 바로 법당이라는 것이다.

"육조 스님의 가르침처럼 밝다 하나 어떤 빛이 있어서 밝은 것이 아니라 본연의 지혜 그것이 밝은 것이야. 본연의 지혜는 모양과 색을 여의었지만 어떠한 모양과 색도 분별이 가능해. 또 능히 어떠한 모양과 색도 분별하지만 모양과 색을 여읜 것이지.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더라도, 주위 환경이 안 좋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싸워야 해. 그것도 어려우면 매일 108참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을 세우는 것이야. 원을 세운 다음 좋은 스승 만나서 열심히 수행하면 다음 생이라도 깨달을 수 있어. 길이 있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길이 생기는 것이야. 불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

글=남동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71년부터 영원사 주석…평생 깊은 산속에서 수행

대일 스님은 대일 스님은 1931년 경주 건천읍에서 출생해 47년 사미계, 50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전국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한 스님은 71년부터 마천 영원사 한 곳에만 주석하고 있다. 은사는 인곡 스님으로 前 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과 사형사제지간이다.

대일 스님을 처음 뵌 순간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엄한 할아버지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얼굴에 차츰 옅은 웃음이 묻어나자 어떻게 하면 저런 천진난만한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맑아 보였다.

스님에게 슬쩍 여쭤봤다. 사형인 혜암 스님과, 같이 수행한 적이 있는 법전 스님은 두분다 종정의 위치까지 올랐는데 부러운 적은 없었는지. 스님은 여전히 미소만 지을 뿐이다.

대일 스님은 대강백이나 뛰어난 선사는 아닐지 모른다. 그보다 지독한 원칙주의자 같아 보였다. 특히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평생토록 깊은 산속에서 수행의 한길로 매진하게 한 동력이었는지도 모른다.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모습을 바꾸는 요즘, 고집스러운 원칙주의자가 더 마음 깊이 다가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지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서명 스님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외지고 외지고 후미지고 후미진 그곳, 거기 청량산이 있다. 청량산의 외청량(外淸凉), 응진전(應眞殿)에 그는 앉아 있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스러져 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그렇게 앉아 있었다.

노을은, 붉은 노을은 외청량산 암벽에 부딪쳐 그 황홀한 무늬를 수놓곤 했다.

노을 비친 저녁녘, 암벽을 무연히 바라보며 그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느 고요한 여름날 저녁 무렵에, 낙엽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내리기 시작하는 초가을 저녁에, 잔설(殘雪)이 남아있는 봄날의 저녁에, 아니 펑펑 쏟아져 내려 온통 시야가 아득한 한겨울 저녁에,



그림 · 문병성

그는 장승처럼 그렇게 묵묵히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리면 한여름 내내 쏟아져 내리는 긴긴 여름날의 장마철이면, 만산홍엽 낙엽지는 가을철이면, 폭설이 내린 한겨울이면 그는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하며 있었을 것인가?

그는 일어나 부지런히 청소를 했다. 법당을 쓸고 닦고 요사의 방들을 쓸고 닦고, 분주히 움직이며 하루를 견뎠다. 그리하여 만사를 잊었다.

응진전, 법당에 모셔져 있는 십육 나한님을 향하여 무릎꿇고 경배하며 만사를 잊고자 했다. 잊어버림으로 해서 그의 조그만 정적(靜寂)을 누리고자 했다. 그것이 그때의 서명(西明) 스님 삶의 한 방식이었다.

모른다, 그냥 나대로의 추측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명 스님은 삼사년을 그렇게 보낸 것만은 확실하다.

그는 좀처럼 아랫절 청량사로 내려오지 않았다. 김치 떨어지고 간장 된장 떨어지면 훌쩍 내려와 점심 공양을 한 뒤 등산용 배낭에 이것저것을 주워담아 올러멘 뒤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가버리곤 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외청량으로 올라가 버리곤 했다. 가파른 산비탈 길을 배낭을 메고 올라가는 그의 뒷 모습을 쳐다보면서 나는 한때 참으로 우울했다. 어쩐지 우울해서 견디기 어려웠다. 형언할 수 없는 모종(某種)의 우울함이, 서글픔이 나의 전신을 짓누르곤 했다.

십년쯤 지난 오늘도 외청량산을 올라가는 산비탈을 올려다 볼라치면 그의 흔적이 거기 있는 듯하다. 그의, 휘적거리며 올라가는 먹빛 저고리가 거기 그대로 걸쳐져 있는 듯하다.

서명 스님, 그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그는 지금 충청남도 부여 부근의 오덕사란 조그만 절에 주지를 맡아 머물고 있다. 듣건대 공양주 보살도 없이 혼자 끼니를 해결하며 살고 있다고, 그저 그대로 혼자 지낸다고 전해 들었다.

스님은 사진작가다. 사진 찍는데 취미를 붙여 오랫동안 그 길을 걸어가는 사진작가다. 그는 한때 내게도 사진 찍기를 권유했고, 그런만큼 정말 사진에 미쳐 있었다.

"지현 스님, 과감하게 '트리밍'해요. 그래야 사진이 사진답게 나와요. 어떻든 간에 사진은 '트리밍'이 중요해요…" 그는 이러면서 사진의 이러저러한 내용을 설명했다.

묵묵히 사진통해 禪 탐구
국전 등 각종 공모서 상받아

좀처럼 말이 없는 스님이지만, 사진 얘기만 나오면 그야말로 그칠 줄 모르는 '떠버리'였다.

'트리밍'이 무엇인가. '트리밍'은 잘라낸다는 뜻이다.

중요하지 않은 사진은 아래나 윗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완벽한 미학을 연출해 낸다는 뜻이다.

'트리밍', 삶에 있어서도 트리밍이 필까?

우리네 피곤한 삶의 한가운데, 우리네 긴긴 여로(旅路)에 있어서 과연 트리밍이 유용하게 통할 수 있을까? 과연 자리잡을 수 있을까?

서명 스님, 그는 트리밍과 트리밍을 통하여 저 먼 우주의 블랙홀 쪽으로 빠져나가고자 했을까? 또 다른 태양계의, 또 다른 생명체들과 만나고자 했을까? 그러했을지도 모른다. 그리하고자 지금도 열심히 사진기의 셔터를 누르고 또 누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절망의 한때, 고독의 한때를 벗어나 진정한 자기의 중심(中心)을 찾기 위해 애쓰는 그의 면모가 뭉클하게 가슴을 적시는 새벽에, 나는 지금 그를 생각한다.

오랜 탐구를 거듭하여, 그는 '국전' 및 '대한민국 사진전' 등에 여러번 입선 특선을 거듭하여 추천작가와 초대작가가 되었다고 들었다.

사진을 통한 그의 탐구는 또 다른 선적(禪的) 뉘앙스를 우리네 곁에 다가보고 있다.

말없는 그의 표정이, 저 머나먼 우주의 블랙홀 쪽을 빠져나가기 위한 그의 용솟음이 늘 황홀하길 바란다. 황홀해서 늘 웃음짓길 바란다.

■ 봉화 청량사 주지

e-편한발 orthotics 특징

1. e-편한발 오소틱스 제품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EVA물질을 사용 하였으며 부드러우며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착용시 편안하다.
2. e-편한발 오소틱스는 체중과 하중을 분산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시켜준다.
3. e-편한발 오소틱스는 이상적인 족궁(Arch)을 이루게 한다.(내측 족궁, 외측 족궁, 철골궁, 횡궁)
4. 착용하고 걷기만 하여도 편안함과 근골격계를 교정 시켜주며 지속적인 발바닥 맛사지로 굳은 살, 티눈, 각질 제거
5. 은나노 공법을 도입하여 향균작용이 뛰어나다.

도움부위

- **두통 :** 혈핵순환 장애로 인한 두통 해소에 도움
- **목 :** 목디스크, 목의 통증 해소에 도움
- **어깨 :** 어깨결림, 사십견, 오십견
- **허리 :** 허리디스크, 척추측만, 굽은 등 개선에 도움
- **골반 :** 틀어진 골반 교정에 도움
- **무릎 :** 무릎관절 통증, O형다리, X형다리 교정에 도움
- **발 :** 무지외반증, 평발, 요족 개선에 도움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e-편한발
http://www.e-foot.co.kr

| 당신의 발자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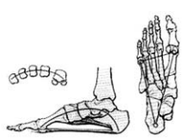


사람들이 매일 걷고 달리고 뛰어 오를 때마다 지속적인 충격은 발의 모양을 변하게 만듭니다. 변형된 발의 형태는 인체의 구조(골격계)가 틀어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발이 건강치 못하면 몸을 바로 지탱할 수 없으므로 그 위에 있는 몸이 기울고 직립관절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 척추측만, 신경과 혈관을 압박, 신경기능 저하, 혈관 순환장애를 일으켜 이와 연관된 내장기관이나 피부, 골격, 근육, 관절, 인대 등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발은 제2의 심장

정상적인 발의 arch(아취)구조는 운동성과 지렛대 역할로 몸무게를 잘 지탱시키고 바른자세를 유지케하여 하중의 완충사용을 돕고 걸을때 Pumping(펌핑) 작용을 통하여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장기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대 리 점 모 집

본사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2동 396-27
TEL. 042)633-1808
FAX. 042)636-0506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3W, 5W, 10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궁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올봄엔 불교대학 입학해요



안양불교대학에서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는 불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전국 불교대학 3월 개강
신입생 모집 한창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자원봉사를 준비하며 을유년(乙酉年) 새해를 맞아보는 것은 어떨까?"

신행활동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있는 전국의 불교대학들이 신입생을 맞기 위한 준비로 여념이 없다.

특히 부처님의 말씀이 녹아 있는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례문화학, 비교종교학, 다도, 전통무용 등의 교과과정도 다양해지면서 불자들의 '학구열'을 자극하고 있다. 대부분의 불교대학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명상과 참선을 기초과목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대학별로 특화된 과목을 선보이고 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은 직장일로 바쁜 불자들을 위해 원격화상강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 보현불교대학은 미얀마 마하시수도원, 대만 불광산사와 정기적으로 친선교류법회를 진행한다.

서울 불광사불교대학은 기본적인 불교소양부터 포교사 고시 과정준비까지 알찬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불교대학들은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불심을 전파하고 있다. 봉사활동하고 있는 영남불교대생들.

전국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일정 (1월 20일 현재)

대학명	접수마감	특징	연락처
조계사불교대학	2월 18일	직장인을 위한 토요반 운영확대	(02)720-1390
화계사불교대학	2월 28일	교리강좌 및 수행방법	(02)902-2663
불광사불교대학	1월 24일	불교교양부터 포교사과정까지	(02)413-6062
봉은사불교대학	3월 15일	발우공양과 참선 수행	(02)516-5652
도선사 실달학원	3월초	생활예절과 다도특강	(02)993-3161
능인선원불교대학	3월초	비교종교학, 근본불교	(02)577-5800
정토불교대학	3월 셋째주	자원봉사 강의 및 실참	(02)587-8994
동방불교대학	2월 15일	범패, 불교미술학	(02)745-2030
삼화불교대학	1월 30일	중국유학준비	(02)511-2026
대원불교대학	2월 18일	기본교리 및 수행법강좌	(02)754-1613
한국불교법사대학	2월 25일	법사양성과정	(02)720-1836
삼보불교대학	수시접수	삼보사이버불교대학	(02)913-2859
동산불교대학	1월 31일	불교문예창작학	(02)732-1206
만해대학	3월초	전통개금, 단청에 관한 강좌	(02)738-3386
부산 여여선원 불교신행학교	수시접수	참선, 전통무용	(051)853-5486
부산불교교육대학	3월초	생활수화 강의	(051)867-9944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2월 25일	기초교리	(051)866-7277
동국불교전법대학	2월초(선착순 30명)	와프마사지 교육	(051)642-6242
대한불교교사대학	2월 19일	아동상담 및 어린이법회 교육	(051)852-0852
울산불교교육원	수시모집	사회복지학	(052)261-1285
울산정토불교대학	3월말	문화탐방, 참선	(052)258-9944
대구경북불교대학	3월 20일	비교종교론, 성지순례	(053)792-2353
보리불교대학	3월 8일	경전강의	(053)522-7611
대구영남불교대학	수시접수	원격화상 강의 및 인터네반 운영	(053)474-8228
대구불교대학	2월 28일	교리 및 사찰순례	(053)256-3725
광제사불교대학	2월 28일	불자예절, 참선	(042)627-8600
보현불교대학	3월 8일	미얀마 마하시수도원, 대만 불광산사와 정기교류법회	(042)624-6555
백제불교문화대학	2월 28일	불교교리, 회화, 건축 특강	(042)537-8214
충주해동불교대학	2월 28일	신도포교반 운영	(043)853-3169
충북불교대학	3월 8일	기초교리	(043)274-2159
광주불교대학	2월 28일	사찰순례, 서예	(062)375-7633
광주불교문화대학	3월말	염불수행	(062)228-9098
인천불교대학	2월 20일	포교방법론, 참선수행	(032)576-9741
강릉불교대학	2월 28일	기초교리	(033)643-2985
신흥사불교대학	4월말	포교사 과정	(031)357-2695
봉선사불교대학	수시접수	기초교리	(031)527-1951
안양불교대학	3월 5일	권기종 교수의 금강경 강의	(031)444-5935
영축불교대학	3월 12일	통도사 현장 교육, 사찰순례	(055)242-8393
통도사불교대학	2월 28일	포교사 과정	(055)382-7182
금강불교대학	2월 28일	장례문화학	(055)253-0108
진주불교교양대학	2월 19일	경전반	(055)747-0108
경남불교대학	3월 15일	문화사 및 포교론 특강	(055)266-8150
구미불교대학	3월 12일	기초교리	(054)453-0571
은해사불교대학	3월 5일	사찰예절, 참선	(054)335-3318
포항불교대학	2월 28일	기초교리, 포교사 과정	(054)247-4688
만대교학대학원	2월 28일	종교음악, 장례문화	(054)535-1987
해남불교대학	3월초	기초교리	(061)534-5502
이리불교대학	2월 28일	기초교리	(063)854-1578
화엄불교대학	수시접수	불교역사와 문화	(063)277-3497
전북불교대학	2월 28일	인터넷반 운영	(063)226-7878
서귀포불교대학	수시접수	사찰순례, 서예	(064)733-8882
제주불교문화대학	2월 28일	성지순례, 등산반 운영	(064)722-2829
충북불교대학	3월 8일	기초교리	(043)274-2159

게시판

中 절강성 세계문화유산 답사 진단전통예술보전협회 세계 문화유적답사단은 2월 21~26일 중국 절강성 지역 세계 문화유적 답사를 진행한다. 이번 답사에서는 순례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보타산과 낙가산을 비롯한 주요 불교성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사전예약은 1월 31일까지.(031)908-0818

전통문화 강좌 한국박물관회는 1월 29일까지 고고학, 인류학, 역사학 등 전통문화 전반에 걸친 강좌를 들을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02)730-7092

동산불교대학 입학식 동산불교대학은 2월 5일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2층에서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하며, 2월 16일 오후 7시에는 동산불교 교리강좌를 개강한다. 또 2월 27일에는 졸업식을 진행한다. (02)732-1206



선재 소년소녀합창단원 모집 불국사는 1월 31일까지 불국사문화회관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재소년소녀합창단원을 모집한다. 선재합창단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공연을 벌이고 있는 경북지역의 대표적 합창단이다(사진).(054)746-2211

법흥사 방생법회 용주사는 2월 19일 강원도 법흥사에서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출발은 용주사 앞에서 오전 8시.(031)234-0040

20면 상식 퍼즐 정답

배	용	준		문		
달		용	형	호	제	
민			사		석	
족	보				천	안
	살		규			고
	행	주	산	성		수
		모		은	수	저

전시

돌에 새긴 그림문자 의미는…

현대백화점 부산점 심무용 전각展



심무용 씨의 전각 '도법자연'.

돌에 새겨진 아름다운 그림문자속의 닭이 금방이라도 '꼬끼오' 울음을 울 듯 하다.

심무용 전각 작품전에서 선보이는 갑골문자를 형상화한 '닭'이라는 작품은 심무용 선생의 그림 같은 전각 세계를 잘 나타내는 걸작으로 일반인의 시선을 끈다.

연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돌에 새긴 '닭'을 발견한 현대백화점 큐레이터에 의해 갑작스럽게 초대전을 갖게 된 심무용 선생의 전각 작품전이 1월 30일까지 현대백화점 울산점 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닭의 울음' '닭' '성철 스님 출가 시(詩)' 등 40여 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2005년 새해맞이 초대전으로 열리고 있는 전각작품전은 '무용체'라는 독특한 전각으로 국내외에서 작품전을 개최해온 심무용 선생의 그림 같은 전각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값진 기회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무용 선생은 "전각을 하는 사람이 점점 드물어지고 일반인들의 전각에 대한 이해도 낮아지고 있어 전각 작품 전시뿐 아니라 전각과정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했다. 심무용 선생은 전시회를 찾은 이들에게 일일이 작품 설명을 하며 전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051)667-0882

천미희 기자

한국화 보고 직접 한번 그려봐

어린이박물관체험교실 예술의 전당서



한 어린이가 붓으로 직접 한국화를 그리고 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려 보아요!"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해 어린이들이 그림을 보고 또 직접 그려보는 체험교실이 열린다.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은 6~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하는 이번 체험교실은 매주 목·금요일에 한국화를 보고 느낌을 화선지에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원.(02)580-1629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측우기 가습기

측우기 가습기로 적절한 가습량 조절은 물론 전시조형효과도 누려보세요. 측우기 가습기는 선화당의 측우대를 그대 축소시킨 상품입니다. 측우대 가습기의 설치로 가정과 회사의 습도조절은 물론 품격까지도 높여보세요. 크기 34× 50cm, 가 격 36만 원 . (02)732-1520



극장가



레모니 스니켓의 위험한 대결/판타지/97분
개봉예정일: 1월 27일
감독: 브래드 실버링
출연: 짐 캐리, 주드 로 등
등급: 12세 이상
울라프 백작은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지만 실제로는 삼남매의 유산을 노리는 사악한 인물. 유산을 빼앗기 위해 그는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지만, 삼남매는 울라프 백작의 마수로부터 도망쳐 파충류학자 몽티 삼촌과 조세핀 숙모 집을 전전하게 된다. 그러나 울라프 백작의 위협은 계속 되는데….



말아톤/드라마/117분
개봉예정일: 1월 27일
감독: 정윤철
출연: 김미숙, 조승우 등
등급: 연소자 관람가
걸보기엔 또래 아이들과 다른 것 하나 없는 귀엽고 사랑스럽기 만한 초원(조승우 분). 어느 날 초원은 자폐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고, 엄마 경숙(김미숙 분)은 초원이가 달리기만큼은 정상인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경숙은 희망을 갖고 초원이를 꾸준히 훈련시키는데….



공공의 적2/드라마/148분
개봉예정일: 1월 27일
감독: 강우석
출연: 설경구, 정준호 등
등급: 15세 이상
재단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던 명선재단 큰 아들의 사고로 인해 재단 이사장으로 급부상한 한상우(정준호 분). 때마침 명선재단 큰 아들이 숨을 거두고 그 죽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강철중(설경구 분) 검사의 수사는 큰 파문을 일으킨다. 이에 철중은 조사인의 자격으로 상우와 마주하게 되는데….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4일 14:05 음악의 마을
25일 17:10 무명을 밝히고
26일 18:15 뉴스 파노라마
27일 10:05 BBS신행상담실
28일 20: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29일 12:10 황승환의 뮤직펀치
30일 07:40 참선이야기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4일 09:20 자비수관
25일 14:30 불교TV 메디칼
26일 16:10 명상음악산책
27일 12:00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
28일 12:00 우리시대의 장인
29일 16:40 부처님경전이야기
30일 21:50 혜정정사의 밀교수행강좌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1월 28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자비수관(1월 30일 오후 1:10~1:50) 극단적인 수련방법으로 인해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기초수행법인 자비수관을 배워본다. '재가불자를 위한 눈높이 수행 자비수관'을 배워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특별상(종단협의회장상)

슬픈 눈물과 기쁜 눈물 (하)

김성식 (대전시 중구 부사동)

조급한 마음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청해 먹으면 바로 병원으로 실려 가야만 했다. 병명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양방, 한방 모두 원인을 찾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정신병동에 입원실이 마련됐다.

몸은 점점 야위어 갔다. 학교는 운전하는 이웃 아주머니들이 교대로 데려다 주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출석할 수 있었다. 초조해진 부모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다.

다 큰 자식이 힘을 못 쓰고 방 한가운데 길게 누워있는 꼴이라니.

"병명이라도 있어야 약을 써보기라도 할 텐데…"라며 어쩔 줄 몰라 하셨다.

IMF와 함께 맞은 이 아픔은 가정을 송두리째 어둡게 했다.

부모님은 불심(佛心)이 깊으셨다. 아버지는 아침에 회사로 출근 할 때마다 내게 오나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열심히 다니셨다. 아버지 또한 이때 불교에 심취하여 스승님을 모시고 경전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계셨고, 조석으로 <금강경>을 독송하고 계실 때였다. 답답한 마음이 된 어머니는 기력이 떨어져 눈을 감고 쓰러진 내 손과 다리를 주무르며 <금강경>을 무심히 읽고 계신 아버지를 향해 퉁명스런 말씀을 건넸다.

"여보! 다 큰 자식이 쓰러졌는데 그 경전만 읽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유?"

그 말씀에 충격이 크셨는지 아버지의 <금강경> 독송은 그 날로 끝을 맺으셨다.

나는 심하게 아픈 곳도 없이 점점 마르고 야위어 갔지만 정신만은 초롱초롱 했다. 하루는 아버지가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나를 일으켜 세웠으나 몇 초를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원인 모른채 허약증 시달리다

셔서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묵묵히 쳐다보곤 하셨다. 훗날 알게 된 일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실생활에 응용하고 계시던 터였다. 눈빛으로 어떤 '믿음'을 내게 보내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과자 한 봉지 어린 손에 들려주고 서둘러 초하루 법회에 다녀오시곤 했는데, 그 후 무슨 재일(齋日)이

돌출구가 보이지 않는 우환이 이어지자 무속인과 절을 찾아 헤매게 되었고, 나는 나대로 인근 사찰인 법주사에까지 가서 막연히 부처님께 매달려보는 도리 밖에 뾰족한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매일 어디 가서 들었는지, 아들에게 좋다는 것은 다 했다. 산에 가서 빈다거나, 세 가지 나물을 해서 대문 밖에 나가 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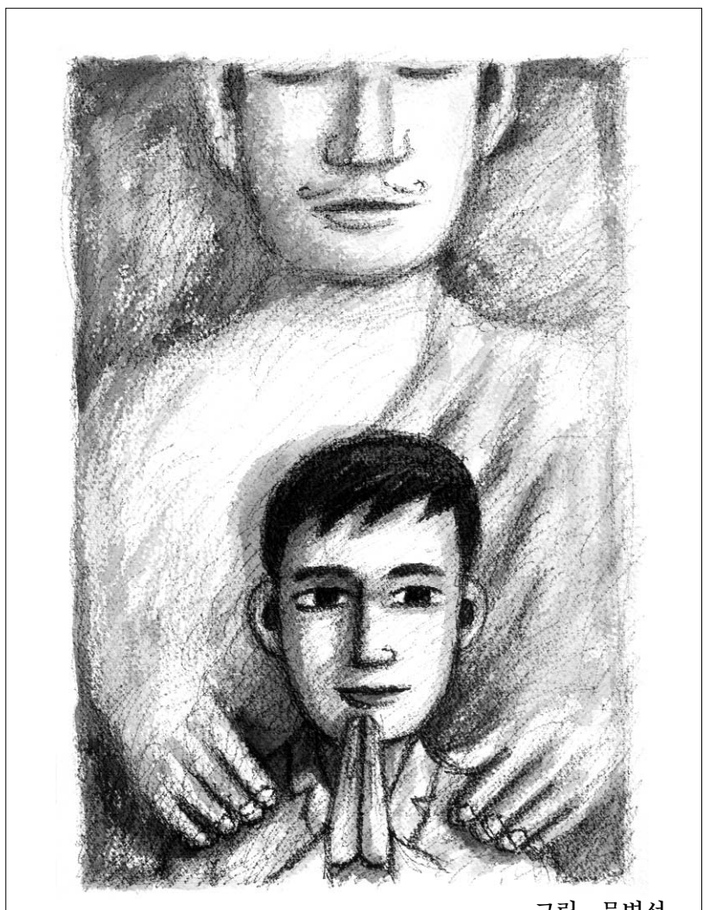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시까지 깨버린다거나, 1백여 집을 다니며 쌀을 3홉씩 구걸하여 떡을 하여 부처님께 올린다거나, 부적을 사다가 집안 구석구석 붙인다거나, 용하다는 스님 · 법사 · 보살 · 무속인 등을 찾아 인근은 물론 청주, 서울 등지까지 백방으로 뛰셨다. 재(齋)도 수없이 지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영가(靈駕)를 어머니께서 받아들이는 굿을 하기도 했다. 그 후 조금은 몸뚱이를 추스를 수 있었다.

졸업을 하는 둥 마는 둥 4년을 마치고 학사훈련을 받으러 입소하게 되었다. 훈련 12주중 4주 기초훈련을 마칠 때쯤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퇴소 당했다. 이때 몸무게는 49㎏이었다.

노심초사 걱정하시던 부모님은 내가 허약한 체구를 이끌고 입소한지 한 달 만에 집 대문에 들어서는 것을 보시고 많이 놀라셨다. 나는 집에서 매일 자전거를 타며 체력을 올리기 위한 운동을 했다. 6개월 후 다음 기(期)에 다시 입소, 이번에도 4주 만에 총을 들고 훈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해져 퇴소하게 되자 내 병은 지휘 장교는 물론 학교장까지 알 정도로 유명해져 있었다.

학창시절 온통 장교의 꿈만을 키워왔던 나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다시 6개월 후 학사장교가 아닌 사관학교를 지원해 용케 합격을 하였다. 학사장교 훈련보다 배나 힘들었다. 나는 이곳에서 죽고 싶었다. 다시 무릎이 시려와 연병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을 때, 문득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자퇴를 신청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산 속 절로 떠나 세월의 기약 없는 기도에 돌입하고 아버지 혼자서 나를 안타깝게 맞아 주셨다. 곧장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았지만 무릎이 왜 시린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군종병 지원해 3천배로 새 삶

대학 졸업하고 2년이란 허송세월이 흘러갔다. 집에는 이미 사병 입대 통지서가 도착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적(兵籍)카드에 나의 이력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병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소대선임, 중대선임, 학생장등의 일을 맡아 하게 됐다. 이런 공로로 이병(二兵)으로서 훈련소장(少將) 표창장까지 받았다. 이때 집에서는 그동안 학비로 지원 받은 군장학금을 목돈으로 갚기 위해 집을 은행에 저당 잡힌 상태였다. 또한 병명 없는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끌어댄 부채도 컸다.

입대 전 나 혼자 무속인을 따라가 기도를 해본 가락이 있어서 자대(自隊)에 배치되자마자 군종병(軍宗兵)을 자원했다. 일요일마다 목탁을 치며 사병을 이끌고 사단 법사님을 힘껏 도왔다.

처음으로 맞은 부처님오신 날.

사단으로 파견된 나는 군법당(軍法堂)에 가서 향과 촛불을 켜고 3천 배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건장하고 인물 좋은 어떤 분이 내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눈과 입 속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작은 구름 같은 물체를 끄집어 내셨다. 그때의 청량감과 시원함은 꿈을 깨고서도 생생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 날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재를 올렸다고 하셨다.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기 제대를 무사히 마쳤다.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절에서 기도(祈禱)중이신데 올해가 어느덧 5년째다. 아버지께서는 직장을 다니시며 집에 미륵부처님을 모셔놓고 정진(精進)중이다.

법주사 마당에 큰 자태로 우뚝 서 계신 미륵부처님을 우러러 보며, 내 자신의 교만했던 지난날을 뒤돌아본다.

황금과 명예를 향해 끝없이 돌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며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고, 끝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제는 확신하고 있다.

나는 고통스런 경험을 통해 지금 내 상황에 기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됐다. 병은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계기를 주었다. 이것이 신앙의 문턱으로 진입하는 동기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대 전환점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또한 불보살님들이 지난날 어린 나를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비스런 일침을 가하셨음을 고마워하며 오늘은 미륵부처님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나무 미륵존여래불.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5일
3월1일, 15일, 29일 599,000원

야호 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FAX(02)725-7923
E-Mail: yahotour21@hanmail.net

날짜	장소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식사
1일(화)	인천 항주	OZ359 전용차량	11:00 12:50 13:50	인천공항 3층 출국장 B~C카운터 7번 테이블 집결 인천 국제공항 출발 중국 항주 도착 항주의 아름다운 서호, 비래봉, 영은사 관광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 철도 대하(4성)	중:기내식 석:현지식
2일(수)	항주 영파	전용차량	전 일	호텔조식 후 항주 출발. 영파 도착, 아육왕사, 태백산 천동사 순례 석식 및 호텔투숙 HOTEL : 녕파대주점(4성)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3일(목)	영파 보타산 낙가산 보타산	전용차량 선편	전 일	호텔조식 후고속헤리 편으로 보타산 이동 불긍거관음원 참배 선편으로 낙가산으로 이동 후 5배 나한탑과 관세음보살을 모신여러 사찰들 참배 후 보타산으로 귀환. 석식 후 호텔투숙 HOTEL : 보타산대주점(4성)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4일(금)	보타산 상해	전용차량 선편	전 일	호텔조식 후 보타산의 대찰 보제선사, 고찰 법우선사 등 순례 고속헤리 편으로 보타산 출발 상해 로조항 도착 시내 이동(약 1시간 20분)석식 후 황포강가의 야경 관광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 화정그랜드(4성)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5일(토)	상해 인천	전용차량 OZ366	08:00 16:30 19:05	호텔조식 후옥불사 순례 후 중식 공항으로 이동 상해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기내식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함사항 : 항공,호텔 2인 1실 기준(4성), 일정상의 식사, 차량, 관광지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훼리 ● 불포함사항 :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일정상외의 비용 및 가이드팁 & 기사팁 여권 및 비자 수수료
● 신청방법 : 전화예약 후 은행송금

바이오연옥® 기능성돌침대

기능성 돌침대 – 돌침대의 생명은 석판!! 춘천 연옥분 특수코팅

후레임(침대틀)도 고급자재로 멋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의 직결은 오직 석판일뿐입니다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후회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품질 검증 보증서 아주대학교 기계 및 산업공학부 회전전자파(氣)측정 연구팀 지도교수 오흥국 박사

한국경제 2004년 9월 14일 화요일
신뢰받는 성장 기업… 한국경제를 이끄는 CEO리뷰
수면병 '맥반석 건강 침대'로 다스린다

서울신문 2004년 8월 24일 화요일
바이오 연옥 맥반석 건강 침대 '화제 집중'
충주산 맥반석-춘천산 연옥 결합 원적외선-음이온 방출
혈액순환 원활, 신진대사 촉진, 근육통-어깨 결림 등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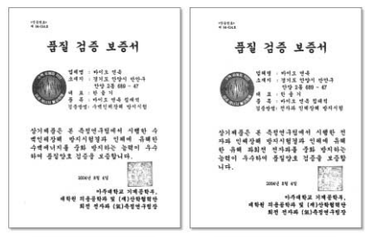
※ 게르마늄 : 인체 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를 지연시키고 생체조직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바이오연옥은 이미 아주대 기계 및 산업공학부 회전전자파 측정 연구팀의 '수맥인체 장애 방지시험'.'전자파 인체 장애방지 시험', '회전전자파 측정시험','경락순환 구동력 측정 시험' 및 '신진대사 촉진시험'등 수많은 품질검증과 요업(세라믹)기술원장 시험성적서 게르마늄 255ppm으로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바이오연옥맥반석 침대'와 관련해 경상대 자연과학대학 백우현 교수는 "바이오 연옥 맥반석 건강 침대에서 내뿜는 고효율 원적외선은 인체의 피로회복과 자연 치유력 향상을 지녔다"며 "원적외선의 온열효과를 지혜롭게 이용해 온 우리 선조들의 온돌문화에 바탕을 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또 충북대 한충수 교수 역시 "이론과 실험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상업적으로만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 반면 이 제품은 인체의 신진대사와 식물 생장 및 저장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기사 일부



「기존 돌침대 '석판'만 교환 가능합니다」



게르마늄 255ppm / 수맥 인체장해 방지시험 / 전자파 인체장애 방지시험 / 회전전자파(氣)측정시험 / 경락순환구동력 측정시험 / 신진대사 촉진능 시험

A/S : 080)445-0005
www.바이오연옥.com

바이오 연옥 본사 031)444-0005 본사 직영 매장 분당 오리역(한국까르푸) 2층 031)728-6250



물이 좋아야 차맛도 제대로…



"차는 물의 신(神, 마음 정신)이요, 물은 차의 몸(體)이니, 제대로 된 물이 아니면 그 신이 나타나지 않고, 제대로 된 차가 아니면 그 몸을 나타낼 수 없다." -<다신전(茶神傳)> '품천(品泉)'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70%가 물이듯, 차에 있어 물은 그 몸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다. 때문에 예부터 차인들은 어떤 물로 차를 우리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제대로 된 물이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물이라도 어떻게 끓이느냐에 따라 차의 생명이 좌우된다고 여긴 것이다.

초의 스님은 <다신전>에서 "흘러 움직이는 물이 고여 있는 물보다 나으며, 흔들진 곳에서 나는 물이 양지의 물보다 좋다. 참된 근원의 물은 맛이 없으며, 참된 물은 향기가 없다"고 이르고 있다.

수돗물은 하루 침전후 윗물만 사용 2~3분 끓여야 잡냄새 없앨수 있어

물이 맑고 맛이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지만, 오늘날 '좋은 물'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현대인들 중 산에서 흐르는 물이나 강물이라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장 폐수나 각종 쓰레기, 농약 등에 오염된 물이 너무도 많은 탓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차인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나 약수물 혹은 수돗물을 정화해서 차를 달인다. 하지만 생수는 가격도 비쌀 뿐 아니라 제품마다 성분이 다르고 개봉한 뒤 상온에 오래 두면 맛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집 근처의 약수터에서 떠 온 약수라 하더라도 탄산가스나 유황성분이 많은 물은 차의 본성을 해치므로 좋지 않다.

살균 처리를 거친 수돗물을 쓸 때는 수도꼭지를 충분히 열어 물을 흘려보내고 받은 후 하루 정도 침전시켜 윗물만 사용한다. 수돗물이나 정수기에 거른 물은 옹기 항아리나 유리병에 자갈, 맥반석, 굵은 모래 등을 깨끗이 씻어서 넣고 물을 가라앉히면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얻을 수 있다. 수돗물을 끓일 때는 2~3분간 끓인 후 주전자의 뚜껑을 열어놓고 잠시 더 끓여야 잡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차물로 유명한 사찰약수>

▷ 해남 대흥사 일지암 유천

일지암에는 초의 스님이 "물의 여덟 가지 덕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평했던 샘물인 유천(乳川)이 있다. '젖샘'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샘물이 희뿌연 색을 띠고 있고 물맛도 달콤하다. 해남 대흥사에서 열리는 '초의문화제'는 이곳에서 떠 온 물로 차를 우려 부처님께 바치는 헌공다례로 시작할 정도다.

▷ 아산 인취사 샘물

백제시대에 지어져 전해오는 인취사의 샘물은 부여 고란사 샘물과 더불어 물 맛 좋기로 유명하다. 무색 무미 무취의 이 물은 차를 우리기에 더 없이 좋은 물로 꼽힌다.

▷ 구례 화엄사 옥천

화엄사는 쌍계사와 함께 우리나라 차문화의 중심지다. 범종각 북서쪽의 울창한 동백숲 아래서 솟는 옥천(玉泉)이 바로 화엄사 차맛의 전통을 지켜온 샘물이다. 화엄사 스님들은 찻물을 달일 때 꼭 이 물을 썼다고 한다.

▷강화 정수사

정수사 샘물 역시 물 맛좋기로 손꼽힌다. 지난해 한일수교 40주년 기념으로 열린 '한일 차문화 식문화 교류전'에 참가한 쯔쿠다 이까씨(일차암 14대 이에모토)는 직접 정수사의 약수를 떠와 전차 시연에 사용하기도 했다.

2005 티월드 페스티벌 개최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6월 15~19일)

"2005 티월드 페스티벌은 지난해 보다 더 커진 규모에 학술세미나와 일반인들을 위한 차 강연회, 세계 명차 특별전 등 알찬 행사로 꾸며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차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티월드 페스티벌'이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티월드 페스티벌은 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하고 차인구 저변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열리는 국내 최대의 차산업 박람회다.

티월드 페스티벌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순)는 지난해

"우리 차 세계화 기대"

130여 업체가 참가하고 3만4천여 명이 관람한데 이어 올해는 150여 업체와 4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행사 장소를 인도양홀과 그랜드 볼룸, 야외전시관으로 확대하고 차 관련 업체들의 전시와 학술심포지엄, 세계 명차 특별전, 중국자사호전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중국와 일본을 비롯해 태국, 네팔 스리랑카 등 아시아 주요 차 생산국 10여 곳이 참가해 자국의 차문화를 선보인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중국 자사호전'과 '다식 특별전' 등의 행사를 개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 위원장은 "티월드 페스티벌과 우리 차문화를 알리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차 박람회에 참가했는데 아직 우리 차문화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티월드 페스티벌이 우리 차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6000-8000 여수령 기자





뇌원차 생산, 공물 · 중신 하사품으로 사용

고려시대 ③

고려의 차문화가 점점 무르익기 시작해서 평민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뿌리내린다. 임금이 연로한 사람들의 신분을 따지지 않고 차를 내리고 변방 병졸들의 유족들에게까지 차를 나누어줄 정도였다. 송과 교역되는 상품의 종류나 수량이 많아지니 차의 수입도 늘어났다. 우리의 차 생산량도 증가했으나 수요에 부족한 형편이었다. 팔관회나 연등회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사찰의 건립이 끊이지 않았으니 차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특기한 것은 고유의 뇌원차(腦原茶)가 생산되어 외국의 공물로도 사용되고 중신들이 사망하면 궁에서 차를 하사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다방(茶房)은 부서를 더욱 확장해 책임자의 직위를 높였다.

중국에서는 다서가 계속 쓰여졌고 임포(林逋), 정위(丁謂), 섭청신(葉淸臣), 채양 등이 활동했다. 일본은 아직 선가(禪家)나 왕실을 제외하곤 내세울 차에 관한 사료가 없다.

① 차를 파는 점포가 있었음을 말한다. <고려사>

② 문하시중 한언공이 죽으니 쌀 오백 석과 차 이백 각을 내렸다.

③ 변방의 장졸 유족이나 장졸들에게 차와 다포를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차의 보급이 넓어졌음을 말한다.

④ 현종 때 적이 온다는 소문이 있어 내시부와 다방 군사들도 모두 종군케 함.

⑤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급차인 뇌원차를 거란에 보내는 공물에 넣었더니 다음 해에 거란 쪽에서 더 많이 보내라는 요청이 왔다.

⑥ 이주좌(李周佐)는 경주 사람으로 형부상서로 죽으니 왕이 차와 의복을 내렸다.

⑦ 다방 채의 소감 김징악이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고자 했지만 더 공직하게 했다.

⑧ 구양수(歐陽修, 1007~1072): 송대 사람. 당송 팔대가에 드는 문인으로 차를 좋아해서 <용다록후서> <대명수기> <부차산수기> 등의 다서를 남김

⑨ 주봉: <보다경(補茶經)>을 쓴 문인

정위: 송대의 대신. 진국공(晋國公) 차를 즐겨 용봉차 만들기를 시작했고 <북원다록(北苑茶錄)> <다도(茶圖)>를 지었다.

⑩ 임포(967~1061): 송대 은사(隱士)로 매처학자(梅妻鶴子)라는 칭호가 있었다. 차를 즐겨 많은 글을 남겼다.

⑪ 송기(998~1061): 송대 문인. 차를 즐겨 <감로차찬(甘露茶贊)>을 남김

포증(999~1062): 송대 정치인으로 <논다법주(論茶法奏)>를 남겼다.

⑫ 채양(1012~1067): 송대 차학자. <다록> 양편(兩篇)을 썼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시대별 연표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고려시대	1002 다점(茶店)이 있었다. ①	송대	1007 구양수의 출생 ⑧
	1004 한언공(韓彦恭)의 죽음 ②		
	1007 노인과 병인(病人)에게 차를 내림		
	1009 80세 이상인 백성에게 음식과 차를 하사		
	1010 대장경 간행, 연등회 팔관회 개최 차 하사		1012 채양(蔡襄)의 출생
	1014 변방 장졸 유가족에게 차 하사 ③		
	1018 교위(校尉)와 선두(船頭) 이하 장졸에게 다포를 내리다		@ 주봉(周鋒), 정위(丁謂)의 활동 ⑨
	1019 송나라 상인 100여 명이 토산물을 바침		
	1021 90세 이상인 자에게 다약(茶藥)을 내리다		
	1022 80세 이상인 병약자에게 차와 포를 내리다		1028 임포(林逋)포의 타계 ⑩
	1025 다방군사로 종군시킴 ④		
	1038 거란에 뇌원차를 보냄 ⑤		1033 송기(宋祁), 포증(包拯)이 활동함 ⑪
	1040 이주좌가 죽음 ⑥		
	1047 다방 태의소감 김징악 ⑦		
	1049 최봉성 등 노인에게 뇌원차 하사		1049 <다록(茶錄)>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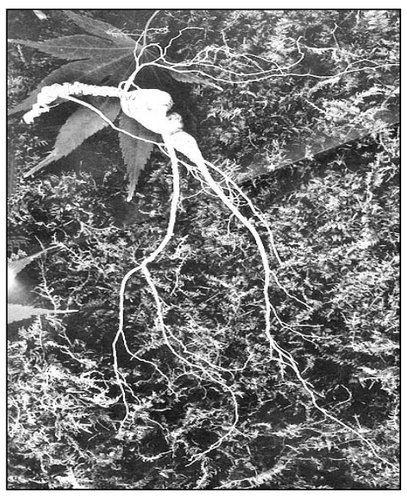


좋은 책, 향기로운 삶
월간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문의전화 | 02)722-7777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바깥으로 찾지 말고 꼭 안으로만 찾아라!

마음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

문 스님께서는 국내 및 국외에 지원을 여러 군데 설립한 이유가 무엇이며, 법문하실 때마다 항상 주인공을 믿으라 하고, 마음을 찾으라고 왜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 각 처에 손닿는 데마다 지원을 내는 것은, 그 지역에 역사적 사건으로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문을 열어 주어 한마음으로 귀정 짓게 하고 산 사람도 역시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함께 한마음으로 지구를 보존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진실한 실천이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맹세코, 실천하지 못한다면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언자들이 몸겁이 쓰러질 것이다, 물이 다 쏟아지면 죽는다고 이렇게 예언은 하지만 그걸 안 쓰러지게 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멀고 가까움이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주고, 그렇게 해서 모두 한마음으로 이어져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바깥으로 찾지 말고 꼭 안으로 찾으라고, 일거수일투족 주인공이 하고 있다고 항상 말해 왔습니다. 이 언덕 저 언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 육신과 정신이 어디 따로따로 놉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빨리빨리 넘어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언덕은 물질계고 저 언덕은 정신계인데, 만약에 정신계에 도달하게 되면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저 언덕을 넘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인공을 찾다 보면 거기에 모든 것이 통신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계로만 들어간다면 통신이 되질 않아서 한마음이 될 수가 없으니까 공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 한 개체도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전부 따라 준다면 공덕이 되고, 개개인으로 논다면 그건 공덕이 될 수가 없죠. 한 회사에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운영해 나간다면 한 구성체지만 제가끔 논다면 한 구성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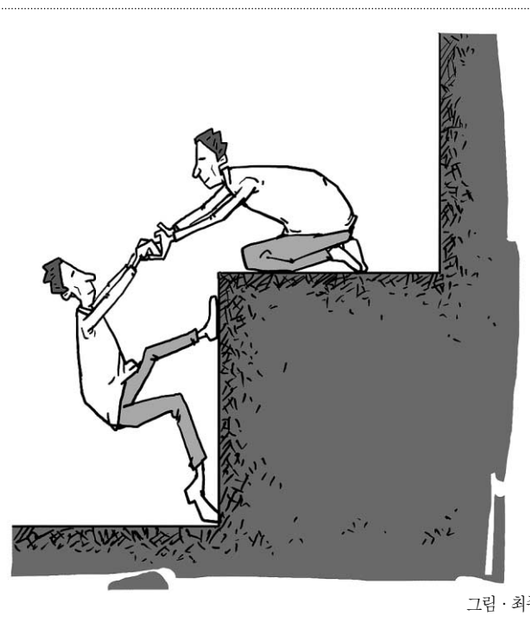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마음을 합쳐서 일체가 다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일체제불과 더불어 같이 이 지구의 모습을 지속되게 하는 도량이 있어야 된단 얘깁니다. 그건 왜냐하면 운기라고 할까, 그런 따뜻한 공기가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공기막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저 스님이 저러는지 그것쯤은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을 합니다. 그게 터지면 만년설이나, 남극과 북극, 여름이나 겨울이나 녹지 않는 얼음이 녹게 됩니다, 모두가 달라지고. 그게 터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땅덩어리가 산산조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개미처럼 어디 물 없는 데로 기어올라가야 할까요, 어떡할까요? 그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마 이름해서 천지개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마음공부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전자에는 물에 죽고, 불에 죽고, 종교 싸움에 죽고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건성 다니며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불어 같이 돌이 아닌 내 생명, 내 모습이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오는 사람 하나하나 건지는 것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도 몸 하나를 건져야 그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이 다 살 수 있는 거지 몸 하나 건지지 못하면 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은 다 죽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공부를 해야만이 오고 가면서도 영령들에게 모두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영령들은 누가 자기를 이익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온다 그래서 발로 걸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빛보다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묘하니까 여러분이 오직 한마음에…. 한마음에서 검부락지 하나를 일으켜 세운다 하더라도 지구를 들 수 있는 그런 태세라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날까지 여러분한테 간곡히 이렇게 공부하라고 얘기해 왔던 겁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열심히 마음공부하시고, 일체 모든 일들을 자기 주인공에 내려놓으면서 열심히 관하시기 바랍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함께 한마음으로 지구를 보존해야 살 수 있어


그림 · 최주현

재사 지내는 도리에 대해서…

문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간이자 한국 정신문화의 지주인 제사 의식이 번거롭고 바쁘다는 이유로, 더욱이 기독교 문화에 밀려서 저 멀리 사라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뿌리를 놓치지 않고 살려 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추어 재사 지내는 도리에 대해서도 가르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재사 지내는 법을 간편하게 일러 드렸고, 영탑을 만들어서 모든 조상님들을 한 곳에 모시게 한 것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자손들일수록 앞으로는 더할 겁니다. 지금도 산소를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볼까 말까 하는 집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탑 하나만 찾아오면 조상님들을 다 뵈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한국의 땅덩어리가 작아서, 이제는 산소 자리를 세를 주고 얻어 놨다가도 돈을 못 내면 다 뺏기게 돼 있고, 내 땅을 사서 해도 앞으로는 땅덩어리가 부족해서 점점 모시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해서 그냥 보내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고, 우리가 좀 더 은혜를 갚는 마음을 가지려면 탑에라도 모셔 놓으면, 그저 일 년에 두 번이고 서너 번이고 그래도 절에 가는 참에 뵙고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탑 하나만 해 놓는다면 누가 돌아가셔도 묘지 때문에 애를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사를 지내도 지금처럼 음식을 차려 놓고 해야 한다면, 맏이일 경우에는 한 해에 일곱, 여덟 번씩은 지내야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같이 부부가 노력 안 하면 못 사는 세상에 그렇게 여러 번 지내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차려 놓고 지낼 수 있느냔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음식을 차리면서도 형제들끼리 네가 더 냈느니 내가 더 냈느니 이렇게 마음의 알력이 생겨서 싸움들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피곤한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 이러면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조상님들에게 누가 되는 거죠. 제사는 지내지만 전부 불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지극하게 하면서 의미를 가지는 몇 가지로 간편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지낸다면 그런 재사는 남자들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떡 세 덩어리 사 가지고 오면 될 거고, 정히 여자가 못 할 때에는 남자가 케이크라도 하나 맞춰서 사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말입니다. 그리고 과일 세 가지, 초, 향, 물 이렇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고 정성껏 지내야지, 음식은 많이 차려 놓고 서로 불편한 마음으로 자손들이 싸워 보세요. 부모가 그 음식을 먹겠나.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와 같이 누구나가 다 어려서는 자식이 되고 커서는 며느리 되고 사위가 되고, 그러다가 또 부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육신이 태어나는 것은 내 자성의 뿌리가 형성을 시켜서 이렇게 사람이 됐는데, 내가 마음이 탄생을 하려면 나온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자아궁(自我宮)이라는 얘깁니다. 어떻게 잘못 듣지 마시구요. 나의 궁이라는 말입니다. 이 몸뚱이도 알고 보면 나의 궁이라는 얘기죠. 나의 집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조사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놈아! 너 아직도 덜 떨어졌구나. 너의 어머니 자궁 속에 다시 한 번 들어갔다가 배워 가지고 다시 나오너라." 이랬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태어났다고 해서 육신이 깨닫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려면 텔레비전 몸체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도 몸뚱이가 있어야 부처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깨닫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육신이 태어났으면 다시금 정신이 태어나기 위해서 자아궁 속으로 다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너라. 또 네 몸뚱이 속으로 다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너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넓게 하고 주인공에 일임하면서 다시 입력을 해서 앞서의 입력된 것들은 폐지시키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가 우리가 듣고 보지도 못했으면 중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들었던 거라면 살아가는 중에는 생각이 안 나다가도 그와 비슷한 환경이 딱 닥치면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밀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런 생각이 딱 나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뭐. 그래서 체험을 얻고 발전을 하고, 그래서 언덕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림 · 최주현

바깥으로 끄달린다면 통신이 되지 않아 제도될 수 없어

누구든지 가만히 보면요, 자기 좁은 몸뚱이 하나도 돌아다볼 줄 모르고 그저 앞만 향한 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벌어진 것에만 끄달려서 허덕이고 다니거든요. 그러니 침착하게 고개를 숙여서 심안을 봐라, 심안! 각자 심안을 견고하게 보면서 뚜벅뚜벅 걸어라 이겁니다. 비가 쏟아져도 종종걸음으로 걷지 말고 뚜벅 뚜벅! 그러는 사람이라면 한 걸음에 천 리를 뛴다고 했습니다.

행사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지요?

문 저희 집안 대대로 불교를 믿고는 있지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천도재를 올렸는데도 촛불재니 또는 조상을 위한 백종 같은 이러한 행사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지, 그래야 한다면 참여해야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이 의문이 생깁니다.

답 왜 밥을 먹고 또 밥을 먹습니까? 아침 먹었으면 됐지 점심 저녁까지 먹고, 그 이튿날은 또 왜 먹습니까? 아침 쇳송에 부모의 은혜를 갚고, 국왕의 은혜를 갚고, 만물의 은혜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듯이 낳아서 길러서 이렇게 성장시켜 놓은 부모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낳아서 기르느라고 이 도리를 잘 배우지도 못한 채 그냥 허덕지덕 허덕지덕 하다가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천도를 시킨다는 것은 조상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죄 석방이 되게끔 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와 같은 성품으로 살았으면 개로 태어나고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로 태어날 텐데 그것을 무마시켜서 다시금 인도환생하라고 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뭐가 따르느냐? 인간으로 태어나서 마음 도리를 공부하면서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게 해 드리기 위한, 그 은혜를 갚고 묵은 빚을 갚는 그런 것이 즉, 재(齋)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린애를 낳아 놓기만 하면 다 사회인이 됩니까? 길러서 가르치고, 가르쳐서 다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만이 그때 어른입니다. 그럴 때까지는 해야죠. 그러다 보면 끝인가요? 그러곤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했던 것이 또 부모가 돼서 끝이 나고, 자식들이 또 그렇게 해야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름해서 효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조부 증조모, 할머니 할아버지, 윗대 조상들을 우리 아버지가 천도를 시켰다면 천도된 분들은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깨우쳐서 부처님 한자리를 했다 할지라도 천도가 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시기가 있고, 위에 올라가 앉아서 '아! 저놈은 참 착하구나.' 하고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 부모만 부모입니까? 정말 부처님 자리 한자리를 했다 할 때는 그렇게 공을 들이고 촛불재를 하고, 백종을 지내고, 사월초파일에도 등을 달고 다 이렇게 조상들을 위하는 게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로 돌아가니까, 전부 일체제불과 더불어 일체 중생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자식 내 자식 따질 수가 없고, 네 부모 내 부모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면…, 지금 검사 판사가 됐다고 해서 내 자식이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무죄로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고, 아래서 허덕거리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시기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천도재를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 말고 인도환생하여 태어나게 해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인도환생이 된 후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서 정말 한자리 하도록 원하는 그 자식들의 은혜를 갚는 마음이 아주 끌간 데 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밥 한 번 먹고는 어떻게 밥을 또 안 먹습니까?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입력이 잘 지워지지 않아…

문 스님께서는 늘 되입력 하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만 먼저 입력된 것이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는 그것이 습이 워낙 중한 까닭인지요, 아니면 되입력 하는 마음의 힘이 약한 때문인지요? 놓고 또 놓는다고 하면서도 되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괴롭습니다.

☞30면으로 계속

조상을 위하는 게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29면에서 계속

답 그건 입력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되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말입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자꾸 따지는 버릇을 갖는다면 습입니다. 자기한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일일이 따지죠. 그게 왜냐하면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속에 자기가 다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몸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솔솔 나옵니다. 이때 한 거는 이때 나오고 저때 한 거는 저때 나오고, 그냥 입력된 대로 순서대로 착착 나옵니다. 착착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의식들이 수가 없습니다. 그 의식들이 입력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자꾸자꾸 거기서 나오는 대로 나오는 그것만 알지 업식 때문에 그것이 잘되고 잘못되는 거를 모르는 중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거기서 나온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어느 수좌가 동짓날 팥죽을 큰 솥에다 쑤는데 팥죽이 부글부글 끓어서 팥죽 방울이 수없이 나오거든요. 수없이 나오니까 퍼뜩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우리 속에 있는 팥죽 방울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방울이 따로따로 있는 줄 알고 했는데 한 팥죽 솥에서 나오는구나!' 하고요. 한 팥죽 솥에서 방울이 나오는 거지 팥죽 솥이 따로 있어서 방울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자기 법이란 얘기죠. 법신! 요것도 법신! 요것도 법신! 하고는 주걱으로 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스스로 익는다면 벌써 팥죽은 다 익었으니까 열기가 더 오르지도 않고 더 내리지도 않고 아주 평상시처럼 따뜻하게만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팥죽 방울이 올라오지 않죠. 모두가 하나가 돼 버렸으니까 그냥 모두가 팥죽이 돼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듯이 어떠한 화가 올라오든지, 또 자기에게 누가 되게끔 생각이 나오든지, 또 집안 식구들한테 짜증이 나든지, 자식이 잘못해서 속이 상하든지 모든 것을 거기다가 그냥…, 자식의 일이든지 뭐든지 다 거기다가 맡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걸 거기다가 맡겨 놓을 때,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돌아서 잘 나오게도 할 수 있잖아!' 하는 생각이 아주 필연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안되는 일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되게 할 수 있는 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 하고 돌려놓는 겁니다.

속에서 불이 일어나게끔 나올 때도 불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도, 이럴 때는 아주 선선하게 마음이 곧바로 화해 가지고는 아주 좋게 나옵니다. 즐겁게 나옵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모든 게 더할도 덜할도 없는 잘 익은 팥죽이 돼서 맛있게 맛을 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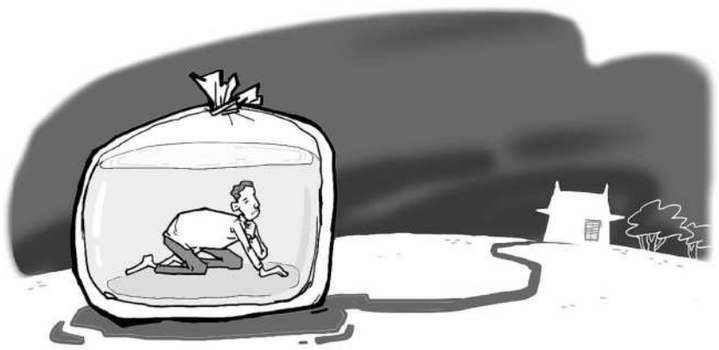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이 도리를 배우고 증득해서 이 어항 속에서 벗어나야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하려면…

문 스님께서는 한생각에 이 우주천하를 집어먹고 토해낼 수 있어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사회를 건져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마음과 둘 아니게 통신이 돼야 상대에게도 통신이 오고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하고 통신을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 우리는 지금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어항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기주머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니까 우리가 이 도리를 알고 배우고 증득해서 그 어항 속을 벗어나야만이 자유롭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세상에는 텔레비전도 보고,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아서 모두 너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이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좀 모르는 듯 하고 어리석은 듯 해야, 옛날에는 선지식들께서 화두를 주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화두선이 그렇게 빛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해도 내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얼른 쉽게 말해서 물질로 치닫는가 하면 형상으로 치닫고, 형상으로 치닫는가 하면 모든 점에서 정신세계는 무시하고 돌아가는 경향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만물만생은 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또 우리 인간은 말과 말로 전달을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통신으로 전달을 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는 도리를 여러분이 하나도 몰라요. 그저 조급하게 불끈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해치워 버리고 그냥 말해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를 자기가 구워 먹고 삶아 먹는 경향이 그런 데서 벌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도 걸림이 없이, 돌 위에 세워 놔도 살 수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긁어서 고(苦)를 만들고, 자기가 긁어서 애고를 만들고, 자기가 긁어서 모든 병고를 만들고 이럽니다. 그러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대(四大)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한데 합해져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지수화풍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지수화풍을 또 내놓습니다. 먹는 대로 내놓습니다. 그럼 내놓는 것 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바로 증발이 되고 모두 화(化)해서 일체 만물만생에게 도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전달한 까닭에 다시 또 먹습니다. 그러니 내놓으면 먹게 되고 먹게 되면 내놓고 이러는 작업이 계속되죠. 이 도리를 우리가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살던 것, 미래로 인해서 오늘 현실에 오는 것, 이 전체를 삼라만상이라고 합니다. 삼세(三世)라고 그러죠. 또 삼심(三心)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글러 오면서 교차하면서 살아나온 자기의 인과 업이, 선하게 행을 했다면 선행의 업이 있을 거고 악하게 행을 했다면 악행의 업으로서 진행되는 것이 여러분 몸속에 다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들로 구성돼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한테, 그 구성원들을 교화를 시키는 데 여러분 마음의 채찍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로는 일체제불과 둘 아닌 마음을 지니고서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아래로는 그 믿는 마음으로써 채찍질을 한다면 아래 내 몸속의 중생들은 스스로 제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는 말도 그런 뜻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정(定)에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뜻이 뭐냐? 그냥 정에 들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고 해서 정에 드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양변을 다 작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내면에다 놓고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정에 드는 방법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작용하는 그 묘법과, 묘용, 광대무변한 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빛으로 화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리를 전 세계에서 알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타의에다가 기도하고 상대에다가 빌고 잘되게 해 달라고 하지, 자생을 제도하면서 자기를 자기가 채찍질하면서 자기 완성을 하려고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한다고 해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 자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느냐 중생으로 그냥 남느냐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을 깨닫는다고 합시다. 그거를 돈오(頓悟)라고 한다면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자생중생들을 제도해야 하기 때문에 점수(漸修)가 또 들어갑니다. 나를 깨우치는 거는 쉬워도 둘 아닌 도리와 둘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포착하려면 그만큼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생중생들은 내가 바깥으로 끄달리게 되면 제도할 수 없습니다. 안으로 놓고 들어가야 통신이 돼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따라가서 제도가 되는데, 바깥으로 끄달리면 절대로 통신이 되질 않아서 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제도가 못 되는데 어찌 내가 제도가 되겠습니까? 상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대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서로 마음으로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과 마음으로 통신을 해야 서로 둘 아니게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각종누비
- 면누비(먹물)
- 모직누비
- 물실크 누비
- 무명누비
- 손누비 (명주, 무명…)

동복
- 고급모직
- 무명
- 각종 먹물, 면

장삼, 가사, 조끼 몸빼, 셔츠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쑥뜸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 오행 쑥뜸기 좌훈기 전통 좌훈요법 첨단기술 접목 -
- 여성 항문 질환, 산후 질 팽창과 요실금 등 -
- 연기, 화상 위험이 없는 쑥뜸기, 쑥좌훈기 출시 -



적용혈자리 : 중완혈, 신궐혈, 관원혈, 천추혈 (어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기미, 복부비만,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위염, 장염, 변비, 성기능개선, 불면증, 당뇨개선, 고혈압



적용혈자리 : 회음혈 (어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변비, 치질, 생리통, 냉대하, 전립선염, 성기능개선, 신경성과민대장염, 갱년기 장애

적용혈자리 : 백회혈, 견정혈, 대추혈, 명문혈, 독비혈, 족삼리 (어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무릎 관절염, 오십견, 요통, 두통

- 제품의 특징 -
*연기가 100% 실외로 배출된다. *타이머가 장착되어 편리하다.
*ISO9001 인증제품-쑥뜸기, 좌훈기 *쑥뜸 시 화상위험이 없다.

제품 구입시 쑥 한달분 무료 증정

오행쑥뜸방 모집중

D.M.I 산업
모사포유 www.moxa4u.com
대구한의대학교 인재개발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당하당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직을 사퇴하며 대한불교대승종 탈종을 함께 공고합니다.

불기 2549년 1월 25일

매화산 실상사

鄭 慧 心

운동하고 치료받고~ 돈? 별로 안들어

겨울철 건강 복지관서 챙기세요



겨울철에는 런닝머신을 이용한 걷기운동과 근육스트레칭 등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몸이 움츠러들어 방안에만 있기 쉬운 계절이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따뜻한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일이 많은데, 갑작스럽게 실외로 나갈 경우 혈관 수축으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건강관리법으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평소 가벼운 실내운동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한 달에 10만원이 넘는 헬스클럽 이용권을 끊는게 망설여진다면 지역 복지관으로 눈을 돌려보자. 눈을 비비고 찾아보면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대다수 복지관들이 어린이나 노인, 주부들을 위한 건강관련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집과도 가깝고, 이용료도 저렴한데다 시설도 일반 헬스클럽이나 스포츠센터 못지않다. 불교계 복지관의 겨울철 체력단련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요가·아로마·참선 교실 인기…부대시설 이용도 '재미'

69세의 조만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씨는 오늘도 열심히 운동 중이다. "아픈 건 맨날 마찬가지야. 그래도 이렇게 운동하면 훨씬 나아지지."

조 씨가 당뇨판정을 받았던 것은 3년 전. 마침 중풍 치료차 경희 의료원에 대여섯 달 입원해 있을 때였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잠자고 일어나면 또 마찬가지였지. 병원에 있으면 뭘 해.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해 봐도 달라지는 거 없었어. 병원에서 5개월 있으면서 돈도 엄청 많이 나갔지."

그러나 조 씨는 요새 병원으로 출퇴근 하는 대신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무료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 종로구까지 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조 씨는 한 달에도 예닐곱 번씩 서울노인복지센터(02-739-9501)를 이용한다.

조 씨는 올 때마다 이곳에서 당뇨 검사도 받고, 친한 노인들끼리 탁구도 치고, 이야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복지관의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하다보면 저도 모르게 흥겨워진다는 조 씨. 1년 전만 해도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했지만, 요새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료 물리치료실과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다보니 점점 손발에 힘이 붙는다며 '운동의 즐거움'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지역주민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복지관을 개방하고 있는 것은 서울노인복지센터만이 아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02-831-2755)에서는 한겨울 동안 수영을 배울 수 있다. 주부반과 직장인반, 어린이반, 5~6세인 자녀와 함께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엄마랑 아이랑'반이 따로 마련돼 있다. 강습료는 어린이 2만원, 어른은 6만원이다.

경주시장애인복지관(054-776-7522)은 아로마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아로마 교실'을 2월부터 연다. 매주 화요일 오후마다 아로마 요법의 효능과 효과를 배우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1월 24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역삼재가노인센터(02-564-9294)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지역 내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무료로 수지침을 시술하고 있다. 침값 2500원은 본인 부담이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겨울철 이용할 수 있는 불교복지관

복지관과 전화번호	프로그램
공창종합사회복지관 053)363-2063	물리치료실, 한방진료, 요가교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 02)507-6319	군살없애는 스트레칭째즈 교실,웰빙요가, 유리드믹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02)466-6242	단전호흡, 태극권, 발지압, 댄스스포츠, 한국무용, 우리춤체조, 차밍디스코, 국선도, 건강댄스, 덩더꿍체조, 탁구, 당구, 게이트볼, 골프, 물리치료실 · 체력단련실 이용가능, 한방진료, 양방진료
구로종합사회복지관 02)852-0525	요가교실, 심리발달교실, 무료수지침
길음종합사회복지관 02)985-0161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이용가능,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생활체조, 당구모임, 단전호흡, 탁구
낙동종합사회복지관 051)271-0560	단전호흡(기공체조), 경락 마사지, 전신마사지, 발마사지, 생활건강 상식지도, 물리치료실 이용가능
대전서구노인복지관 042)488-6297	건강무용교실, 레크레이션, 레크-에어로빅, 건강강좌, 워킹실사댄스, 배드민턴, 탁구, 물리치료실 이용가능, 건강검진, 기공치료, 한방치료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02)3494-4755	수지침서비스, 한방침서비스, 발마사지서비스, 아동 재즈댄스 교실, 성인 에어로빅 교실, 재즈댄스 교실
군포시 매화종합사회복지관 031)393-3677	단전호흡, 체조에어로빅
명륜종합사회복지관 033)762-8131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게이트볼
본동종합사회복지관 02)817-8052	한마음 상담치료 센터, 양방진료, 수지침진료, 물리치료실 이용가능,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포켓볼, 챠밍댄스
청주북부종합사회복지관 043)216-4004	차밍댄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물리치료실 이용가능
삼전종합사회복지관 02)421-6077	수족침교실
서울시립은평노인복지센터 02)385-1351	건강 에어로빅, 치료레크레이션, 물리치료실 이용가능
안양시노인복지센터 031)455-0551	물리치료실 이용가능, 장수체조, 요가, 탁구, 우리춤체조, 명상, 단전호흡, 맷돌체조, 사교댄스, 댄스스포츠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3)



몸의 균형 · 항상성 유지에 우선

본격적인 티베트의학의 논의에 앞서 이번 주부터 약 2 회에 걸쳐 티베트 전통의학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티베트의학은 전일(holistic) 의학이다

질환의 발생 부위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 질환은 병증이 드러난 해당 장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장기나 조직들이 같이 문제가 되어 발생했을 수 있다. 병에는 각기 병이 시작된 기시(origin) 부위와 거기서 병증 부위로 질환(성)물질이 이동하는 순환로가 있다. 그래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는 병증 부위나 발병 장기뿐만 아니라 신체를 하나의 전일체로 보고 몸 전체의 질환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병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2) 심신(psycho-somatic) 관계를 중시 한다

병의 발생에는 신체적 요인과 정신적인 요소가 함께 관여한다. 집착(貪), 성냄(嗔), 그리고 미망(痴)이 신체 질환을 초래하는 병인이 될 수 있다. 거꾸로 그릇된 식습관과 몸가짐(신체적 요인)이 정신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티베트의학에는 약물, 식 · 음료(섭생)와 함께 종교적 신행태도에 대한 처방이 많은데, 바로 이러한 심신관계의 맥락에서 이다.

3) 씨(근원)보다 터(환경)를 중시 한다

몸에 침범한 병원체는 여러 질환의 병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병원체는 단지 이차적인 원인일 뿐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신체적 조건일 수 있다. 티베트의학에서는 몸의 생리를 조절하는 세 체액(생체에너지), 일곱 조직성분, 그리고 소화 및 대사 노폐물들의 불균형을 병을 부르는 신체적 조건으로 본다. 세 체액(생기)이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악성인 병원체라 할지라도 증식되거나 실제 병을 유발하지는 못할 것이다. 티베트의학의 전통 처방들은 모두 그러한 신체 생리의 균형 혹은 항상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들이다.

4) 유독성 부작용 없이 부수적 효과는 크다

몸에 일단 침범한 병원체는 체세포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그 병원체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력한 약물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약물은 당연히 체세포에도 위해를 끼치게 되어 유독성 부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체세포가 병원체를 격퇴할 힘을 갖추도록 해 주면 문제는 해결된다. 항생제를 쓰면 체세포가 면역기능이나 저항력을 기를 기회를 박탈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항생제를 남용하면 내성만 키워 결국 약물 의존성만 심화된다. 티베트 전통의사들은 세 체액과 같은 몸의 생리적 균형을 잡아 병원체에 대항하는 신체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처방을 쓴다. 그래서 티베트의학의 약물들은 유독성 부작용이 없고 유익한 여러 부수 효과들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5) 모든 약물이 일종의 강장제이다

티베트의학 약물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침범한 병원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능 및 구조상으로 몸의 생리적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약물은 모두 일종의 강장제로 작용한다. 환자에게는 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환자가 아닌 정상인에게는 면역계를 강화시키는 강장제로 작용하여 환자와 정상인 모두에 두루 유익하다. 티베트의학은 백부자, 수은, 유황, 비소의 유독 성분까지도 중화하여 동종의약물로 만들어 사용한다.

6) 티베트의약의 약성은 무독성이다

합성 화학제제가 대부분인 현대 의약품들은 시판 전에 급성, 아급성 및 만성 독성과 기형발생의 부작용에 대해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판된 약이 뒤늦게 유독한 것으로 밝혀져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입약 중에서는 원제조국에서 판매 금지된 약이 해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에 반해 티베트의약물은 수천 년 간 사용되어 왔고 오늘날까지도 그 치료 효능이 계속 입증되고 있다.

7) 천연 약제를 사용 한다

티베트의약은 자연 약제들을 원료로 만든다. 특정 실효성분만을 얻기 위해 합성약이나 추출 정제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소위 실효성분이라 불리는 약물의 특정 성분만을 사용하면 치료효과 외에 또 다른 역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 식물에는 실효성분이라는 화학물질의 유해 효과를 중화하는 다른 성분들도 들어 있다. 티베트의학에서는 어떤 식물의 특정 실효성분만을 얻기 위해 그 식물을 사용하지 않고 약미(맛)같은 약성을 따져 처방한다.(계속)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등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모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고통 받는 중생의 앞일을 밝힌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또한 불행한 운명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중생은 그 불행한 운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떠나야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지장사는 아프고 고통받는 중생들이면 누구나 찾아와서 스님과 상담하고 기도하는 법당이며 스님은 삶의 굴곡을 겪고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그 답답함과 고민을 스님의 도력으로 그 불행한 운을 퇴마시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 굿을 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을 가서 점을 봐도 시원치 않는 분
- 하는일이 되는 노릇이 없고 덕과복이 없어 고통에 사시는 분
- 신들림으로 몸이 아프거나 꿈에 영가가 자주 보이시는 분
- 이사나 매매, 이동 변화가 궁금하신 분

"혼자서 고민말고 바로 전화 주십시오"
스님을 친견하면 큰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천도란 첫번째는 3악도에 떨어져 있는 가장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고 두번째는 인간몸을 받았지만 뭐든지 되는 노릇이 없고 내뜻에 맞지 않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천도란 자기소원을 이루고 가지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님을 친견하면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하철 4호선 수 유 역
지장사 주지 고봉 합장
전화 011-715-6333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0주년 독자 사은 大행사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y(친구)를 뜻합니다

NESPOT swing

이번 주,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 법회 이벤트



1. 가고 싶은 사찰은 **네비게이션**을 보며 빠르고 정확히 찾아갈 것!

2. 수백 권의 경전을 **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바로바로 예습할 것!

3. 큰스님의 중요 법문은 **음성녹음**과 다운받은 **동영상**으로 다시 볼 것!

4. 큰스님과 친견을 원할 때에는 **화상통화**로 간단히 해결할 것!

단한번의 기회!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HP rw6100 최저가 특별보급 2가지

1 현대불교 영구독자 선착순 신청 1,000분께만 특별한 혜택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HP rw6100 스마트폰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아이벗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평생구독료 일시납
18개월 의무사용

2 초기수납금 없는 **최저가 24개월** 무이자 할부 보급(월 평균 할부금 24,291)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께는 24개월 의무 사용조건으로 HP rw6100 스마트폰의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520 MHz CPU / Flash – 128MB, RAM – 64MB(133MHz Mobile SDRAM) / 고화질 240 · 320 , 반투과형 TFT LCD(26만 컬러 지원) / 3G CDMA2000 1x EV-DO technology(1.8GHz PCS, RTT capable), IEEE 802 Part 11b(802.11b), 11Mbps / 표준형 – 연속 대기 7일, 연속 통화 3시간, 대용량 – 연속 대기 14일, 연속 통화 6시간

MP3 · 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00 '아이벗'



특별 보급가 아이나비 일체형 세트 880,000원
(사은품 1GB SD메모리카드 증정)

일반 구입시, 스마트폰 HPRW6100(891,000원) + 스마트폰용아이나비(484,000원)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벗(I-BUD)사업단
TEL 02)735-3034, 737-8881 / FAX 02)738-3034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